

바로미와 함께하는

좌충우돌 재판이야기

5

글 • 서울교육대학교 법과인권교육연구소
그림 • 극동만화연구소

대법원 · 사법발전재단

“책을 펴내며”

요즘은 가상공간에 글을 쓰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휴대전화나 태블릿 PC,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누구나 인터넷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상게시판에 글이 넘쳐나고 댓글도 많이 달립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쓴 글에 누군가가 욕설 또는 나쁜 의미의 댓글을 올린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 책에는 나리의 사촌 언니인 유명 연예인이 악성 댓글로 힘들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악성 댓글은 연예인이나 유명인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가상공간에서 욕설이나 비방, 악성 댓글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고 참아내기 힘든 일을 겪게 되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법원과 재판을 나와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로만 느끼나요? 하지만 법원과 재판의 내용 중에는 어린이와 관련된 것도 많습니다. 어린이를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를 누리게 하며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 또한 법과 재판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바로미와 함께하는 좌충우돌 재판이야기 1~4권에서 법원의 재판을 다양하게 경험해 보았어요. 이제 여러분은 좌충우돌 재판이야기 5, 6권을 통해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만나게 될 거예요. 왜 대법원일까요? 우리나라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많게는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대법원은 마지막 재판을 통해 분쟁을 마무리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의 모범답안이라 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를 알아보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규범과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길라잡이가 됩니다.

5, 6권에서는 똘이 할아버지가 햇볕을 쬘 권리를 되찾는 과정, 케이팝(K-POP) 스타를 꿈꾸는 친구들이 노래교실에서 겪은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나리의 사촌 언니가 악성 댓글에 대처하는 자세, 눈이 쌓인 고속도로에 갇힌 사람들이 소송을 통해 권리를 회복하는 이야기, 유나의 진정한 가족 찾기, 학원에서 쉬는 시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발생한 사고, 나리 엄마의 종중 입성기 등 대법원 판례가 다룬 많은 사건 이야기들이 책 속에서 쉽고 재미있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대법원을 견학하는 장면을 통해 대법원의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어요.

바로미와 함께하는 좌충우돌 재판이야기 1~4권에서 등장했던 우리의 친구 용감한 똘이와 지혜로운 나리, 그리고 정의를 수호하는 요정 바로미가 이번 5, 6권에서도 여러분들을 더욱 신나고 재미있는 이야기 속으로 안내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새롭게 펼쳐지는 법원과 재판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2024년 10월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등장인물 소개



바로미

정의를 수호하는 법의 요정.
똘이와 나리에게 법과 재판에 대해 가르쳐주고
초능력을 사용하여 특별한 경험을 겪게 해준다.



한똘

덜렁대긴 하지만 정의롭고
용감한 소년. 장래에 훌륭한
판사가 되는 것이 꿈이다.



신나리

똑똑하고 어여쁜 똘이의 여자친구.
침착하고 이성적이지만 똘이와
둘이 있으면 닭살 커플이 된다.



엘비스 황

딩가딩가 노래교실의 원장님.
노래도 잘 부르고 호탕하지만
학원관리를 좀 대충대충하는 듯 하다.


똘이의
할아버지
도시 외곽의 비닐하우스에서
여러 가지 난을 키우는 일을 하신다.
신미모
나리의 사촌언니.
인기 아이돌 그룹의 멤버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
얄미
똘이와 나리의
같은 반 친구.
호기심이 많지만 다소
말이 가볍고 조심성이
없다.
진서와
규홍이
똘이의 친구들.
장래 희망이 가수로 똘이를 설득해 함께
오디션에 참가하려 한다.

글 싣는 순서





제1화
와! 대법원이다!! ····· 8

제2화
햇빛을 쬘 권리가 있어요 ····· 38

제3화
미래의 K-Pop 스타 ····· 80

제4화
악플 좀 달면 안 되나? ····· 138

제1화

와! 대법원이다!!







TIP 사법부의 최고기관 대법원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여 적용하는 곳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고 자유를 수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법원'이라 부르지요.

대법원은 법원들 중 가장 높은 기관입니다.

재판의 마지막 단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대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대법원에서는 재판업무 외에도 여러 가지 사법행정에 관한 일도 합니다.




주목!
와글
웅성
웅성
와글
웅성
견학을 시작하기 전에 당부할 말이 있어요.
대법원은 중요한 일을 하는 곳이에요.
안에 들어가서는 얌전히 걸어다니고
음식을 먹어선 안 되며,
대화는 조용히 하고 질서를 지켜주세요.


알겠죠?
네에에
아이고
걱정된다.
타
박
타
고생이
많으세요,
선생님.
아, 네.
안녕하세요.
대법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저는 대법원을 소개해
드릴 담당자 김해설
입니다.
시관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간단히
대법원에
대해
소개할게요.


이 곳 대법원은 마지막 재판이 열리는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
아~~~~주 중요한 곳.
대법원 건물은 가운데 본관을 중심으로 동관과 서관이 대칭적으로 서 있어요.
본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사무실, 대법정, 소법정)
서관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대법원열람실)
동관
(법원행정처, 법원전시관)
그럼 우선 동관으로 가 볼까요? 따라오세요.
법원전시관
이 곳에서 판사님들이 중요한 재판을 하신다 이거지? 으으으~ 가슴 떨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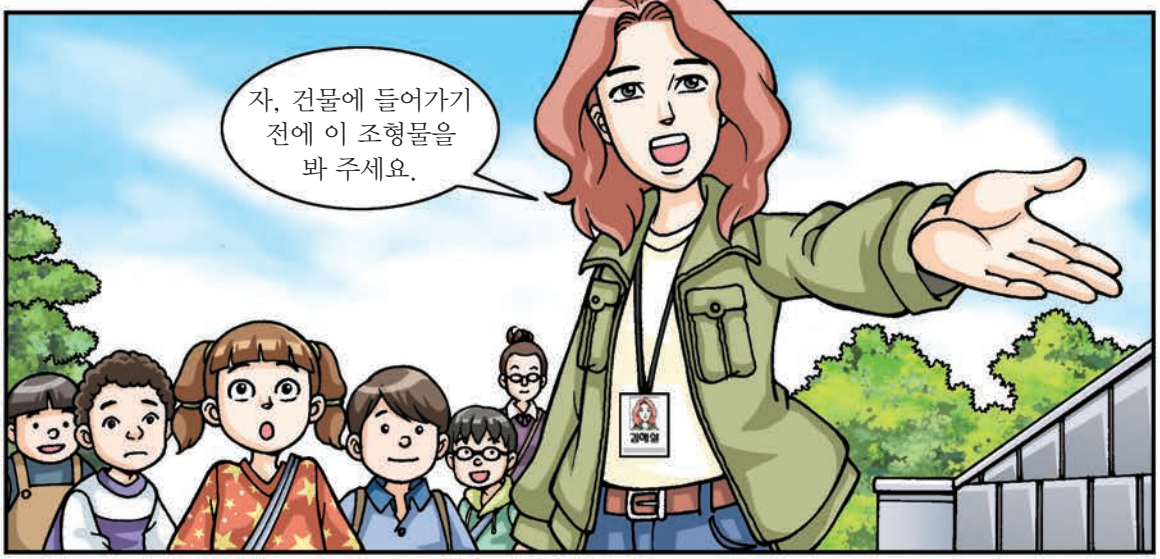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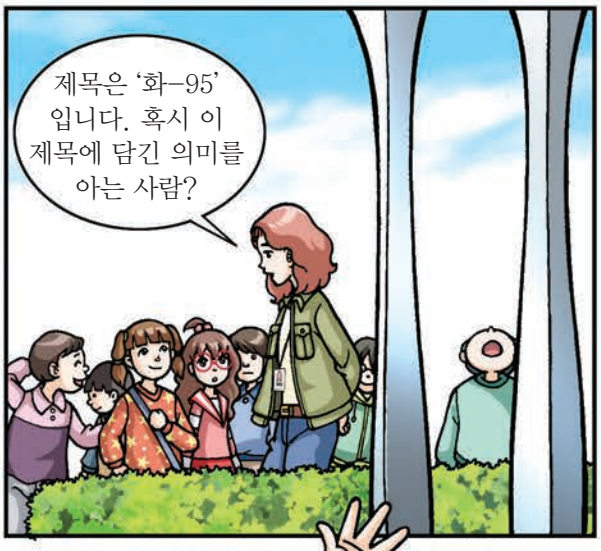
TIP 판사와 대법관

법원에서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을 하는 공무원이 법관입니다.

대법원의 법관은 『대법관』, 대법원 아래 각급 법원의 법관들은 『판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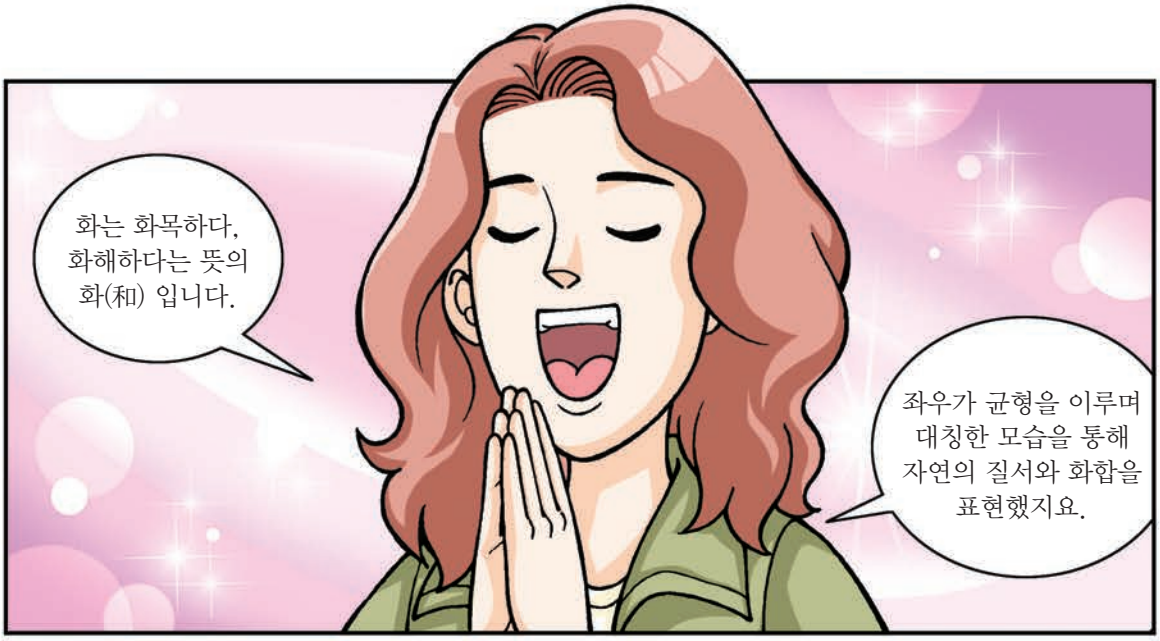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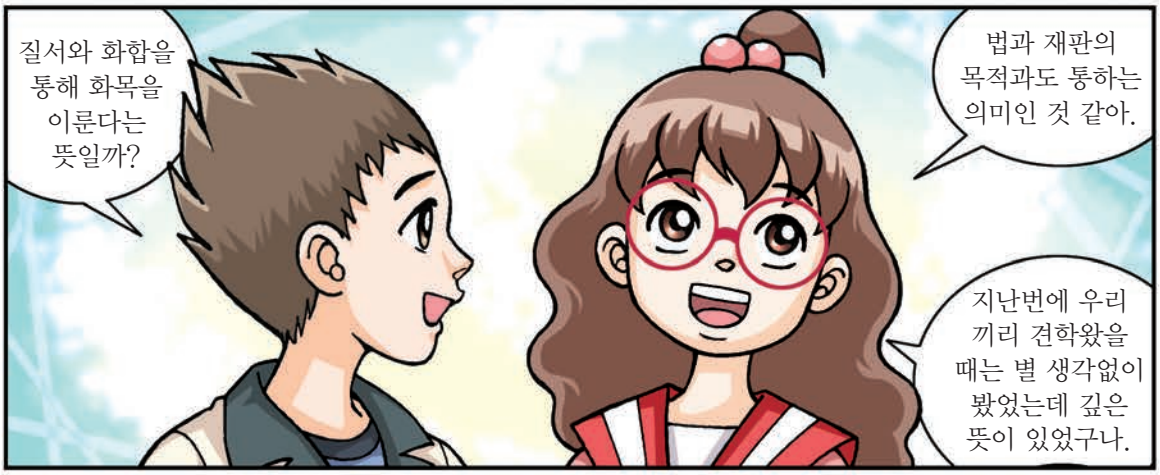

제목은 '화-95' 입니다. 혹시 이 제목에 담긴 의미를 아는 사람?


저요!
저 알아요!


화려한 95점!
화요일에 95대만 맞자.
화가 나니깐 징역 95년.
네, 다 틀렸어요.


먼저 숫자 95에 대해 설명할게요. 95는 1995년을 뜻합니다. 대법원은 원래 서울시 중구에 있다가
1995년 새로이 지금의 건물을 지어 이사왔어요. '화-95'도 그때 세워졌지요.


화는 화목하다, 화해하다는 뜻의 화(和) 입니다.
좌우가 균형을 이루며 대칭한 모습을 통해 자연의 질서와 화합을 표현했지요.


질서와 화합을 통해 화목을 이룬다는 뜻일까?
법과 재판의 목적과도 통하는 의미인 것 같아.
지난번에 우리 끼리 견학왔을 때는 별 생각없이 봤었는데 깊은 뜻이 있었구나.


자, 어린이 여러분 이제 들어갑시다.
네.
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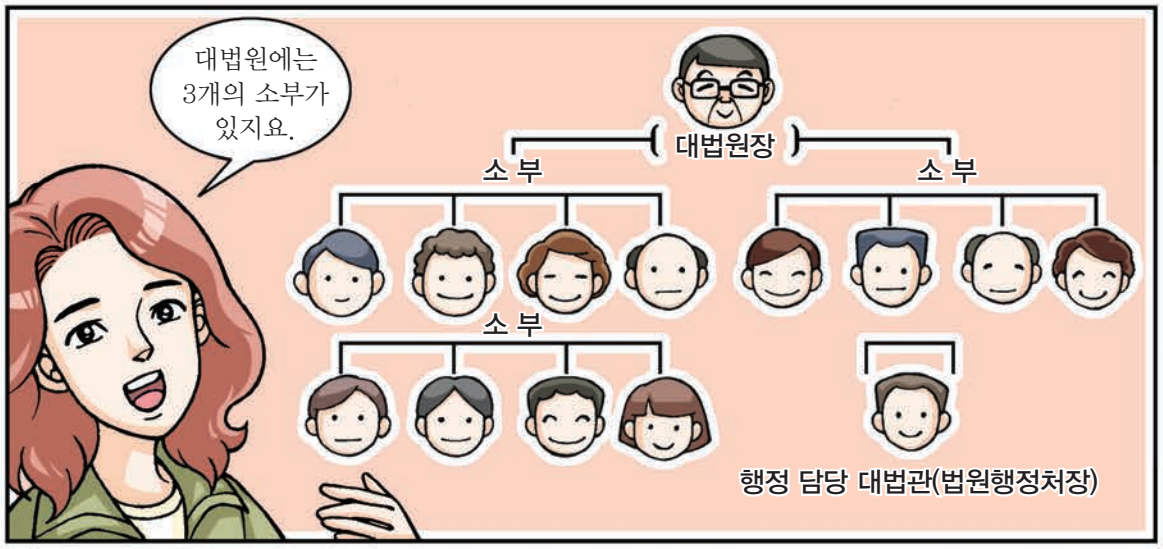

여기 계신 선생님이 나보다 설명을 더 잘하는 것 같지?
?
아니, 바로미네가 하면 더 잘할걸.


뜰이와 친구들은 대강당에서 대법원에 대해 소개하는 영상을 관람하고
법원전시관에서 우리나라 법의 역사와 사법부 조직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선시대에는 관아에서 행정과 재판을 다 처리 했어요.
법이란 무엇일까요?
What is law?
지금으로 말하면 시청, 군청에서 재판까지 한 거죠.
1895년 4월 25일. 고종임금이 다스리던 때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되면서 새로운 사법제도가 시작되었어요.
으리으리하네. 여기선 재판만 한다고?
이를 기념해 4월 25일이 법의 날로 지정 되어 있지요.
오옷~ 크리스마스도 25일이고 내 생일도 25일인데
25일에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기나 봐.


억지로 끼워 맞추긴... 그럼 6. 25 전쟁은 뭐냐?
미래의 꿈 법복 입어보기
조용히 하랬잖아.
우와. 판사복이다.
입어봐도 된대. 입어보자. 근데 딴 색깔은 없나?
무식하긴. 판사복이 아니라 법복이라고 해라. 법복!
이 재수탱이! 잘난 척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잘난 척이 아니라 잘난 거지. 법은 내 전공이잖냐.
그럼 넌 법복이 왜 검은색인줄 알아?
다, 당연히 알지.
폼 나니까!!
할말이 없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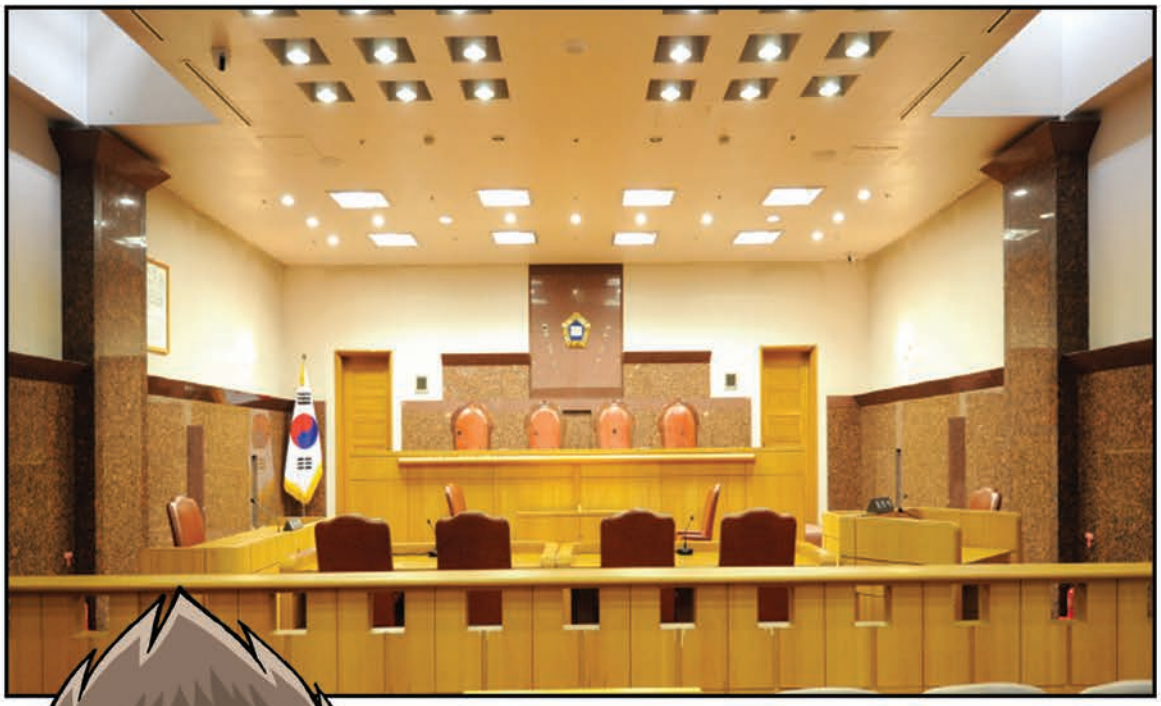

그건 검정색이 어떤 색에도 물들지 않는 색이기 때문이야.
어떤 압력에도 휘둘리지 않고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의미란다.
에궁.
캬캬캬! 법전공은 무슨!! 허세전공이지. 허당 한똘이 구나.
솔직히 폼도 나잖아! 시꺼먼게 얼마나 카리스마 있냐?
호호
네 말도 일리가 있구나.
쥐봐, 나도 입어 보게.
싫지롱. 장난아, 우리 인증샷!
찰칵
자,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할게요.


대법원에는 대법원장님과 13분의 대법관님이 계십니다.
보통은 대법관님 4분이 재판부를 구성해 판결을 내리세요. 이 재판부를 「소부」라고도 하죠.
법원조직법 제7조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재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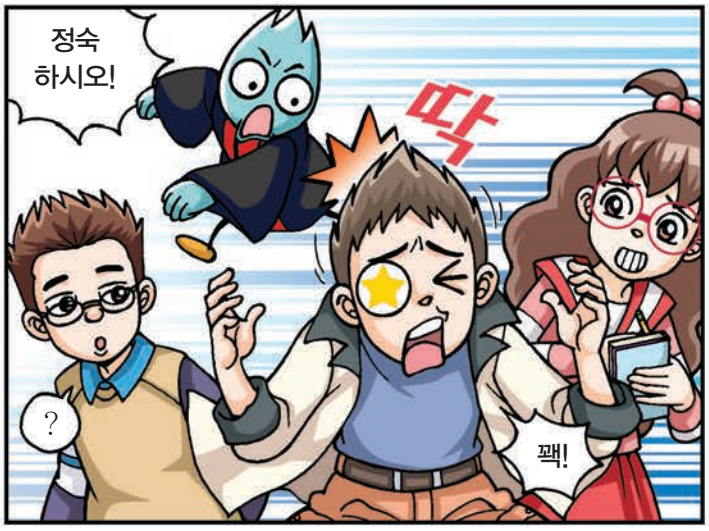

대법원에는 3개의 소부가 있지요.
대법원장
소 부
소 부
소 부
행정 담당 대법관(법원행정처장)


그럼 대법관 한 분이 남는데요?
네. 그 분은 행정 업무만을 담당하시고 재판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곳이 바로 소부가 재판을 하는 '소법정'입니다.




오오오옷! 이 곳이 바로 소법...


정숙
하시오!
딱
?
꽥!


완전 깨끗해!
청소 열심히
했구나.
반짝반짝
빛나...
가, 감상이
깨끗하다는게
전부냐?


대법원에는 소법정이 2곳 있습니다. 소부별로 한 달에 2번씩 재판하도록 되어 있죠.
소부의 재판은 대법관 4분의 의견이 모두 일치해야 판결이 나옵니다.
오~ 신나리 역시 우등생! 메모하는 거야?
까먹을까 봐.
이 곳은 대법원의 중앙홀입니다.
우와! 천장 높이 좀 봐. 대박!!
여기서 축구 해도 되겠어.
크크~ 그럼 잡혀갈 걸.


벽에 걸린 초상화를 한번 보세요.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님을 비롯한 역대 대법원장님들 이랍니다.


우와! 저 문 위에 동상이 있어.


오옷! 선녀다.




저 동상은 정의의 여신상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을 한국적인 느낌으로 표현한 거예요.

TIP 정의의 여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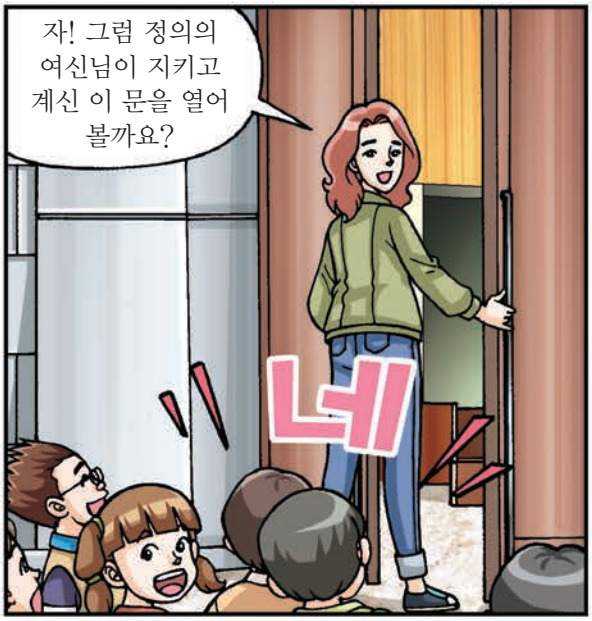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은 일반적으로 두 눈을 가린 채 저울과 칼을 쥐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저울은 판결의 형평성, 사회의 균형을 상징하고 칼은 법의 강제성을, 두 눈은 중립성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의의 여신은 소외계층과 약자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눈을 가리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칼 대신 법전을 들고 있어요. 이는 규칙과 기준에 따른 따뜻한 법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른 손은 저울을 들고 있는데, 이는 빈부나 권력에 구애받지 않는 공정하고 평등한 판결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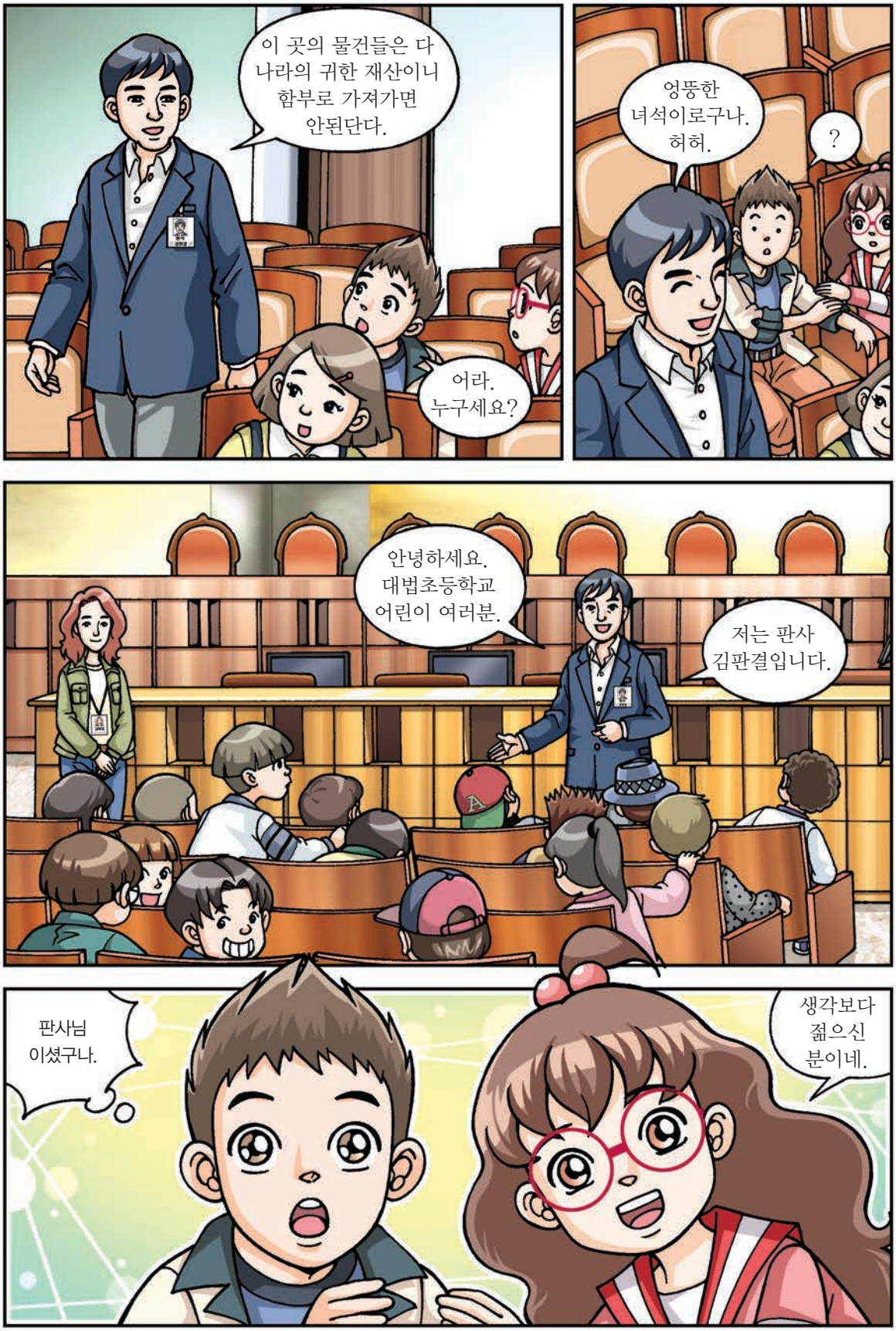







아니야. 분명히 여신님이...
잘못 봤어.
여신님은 네가 아니라 내게 윙크를 하신거라고.
!
와! 여기도 무지 넓다.
나 여기 TV에서 봤던 것 같아.


자! 모두들 이쪽으로 앉도록 해요.
이 곳은 대법원장님과 12분의 대법관들이 재판을 하는 대법정입니다.
이곳이 대법정!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건, 문제들이 해결되는 곳...
후후 장난꾸러기 똘이도 대법정에서는 숙연해지는구나.
와... 의자 진짜 많아. 대체 몇 개야?
대법정의 방청석은 310석이란다.
우힛! 그럼 한 개 들고 가도 티 안나겠네.
크... 진지함이 5초도 못 가는군.


이 곳의 물건들은 다 나라의 귀한 재산이니 함부로 가져가면 안된단다.
어라. 누구세요?
엉뚱한 녀석이로구나. 허허.
?
안녕하세요. 대법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저는 판사 김판결입니다.
판사님 이셨구나.
생각보다 젊으신 분이네.


여러분과 법과 재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왔어요.
오늘 대법원 견학은 즐거웠나요?
네~
즐거웠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다툼 등이 생겨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요.
고소해요.
119에 신고해요.
119는 화재 신고잖아. 바보야.
그래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법원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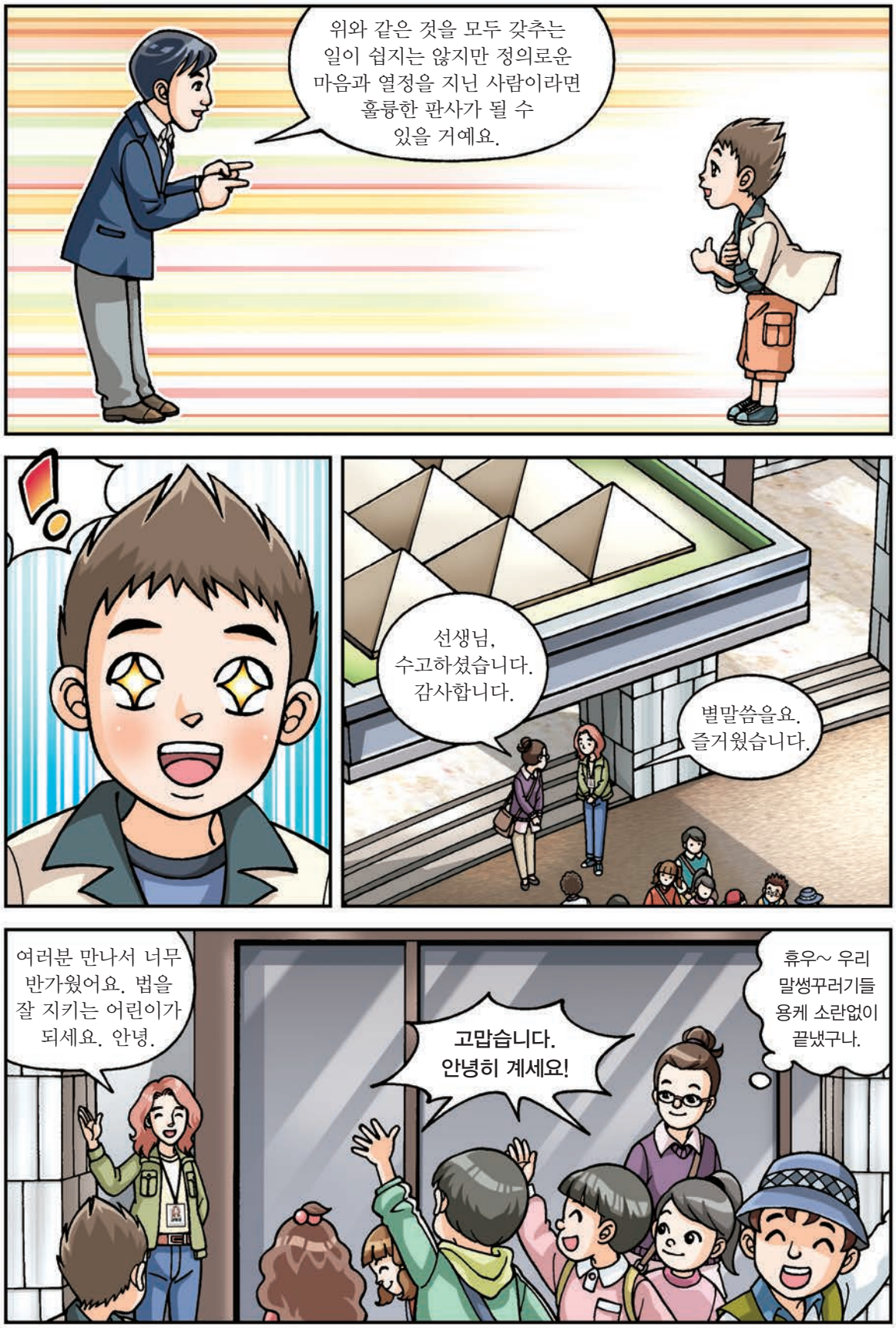

여러분이 오늘의 견학을 통해 법원을 좀 더 친숙하게 여기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요.
혹시 법과 재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게 질문해 주세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판사님, 대법원 건물은 왜 이렇게 커요?
야! 클만하니깐 크지. 좀 제대로 된 질문 좀 할 수 없냐?
난 그냥 궁금해서...
어려운 말로 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질문인 건 아니에요. 친구의 질문을 막지 맙시다.
큭! 잘못 했습니다.
미안. 내가 오바했어.
크크. 괜찮아.


그것은 대법원에서 재판 외에도 하는 일이 많고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하고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각급 법원을 지휘, 감독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법관님들 외에 업무를 하시는 판사님들, 직원분들도 많이 근무 하고 있지요.
판사님,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재판이 있으신가요?
글쎄... 모든 사건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한 사건들이 기억에 남지요.
판사님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열심히 하긴 했지만 무리하진 않았어요.
나도 평범한 학생이었는걸요. 다만 모르는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아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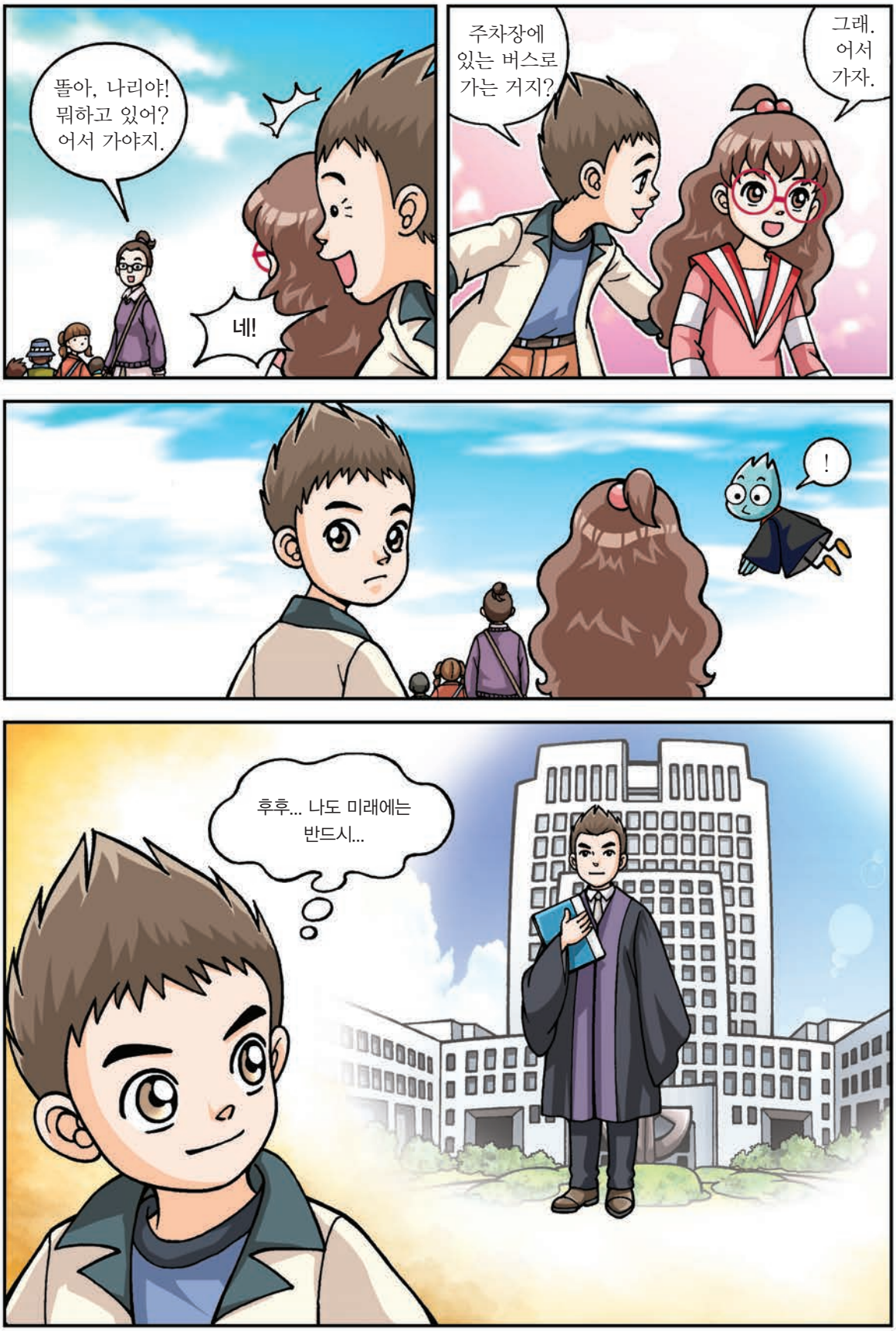

법을 모르고 어겨도 벌을 받나요?
음. 수준 높은 질문인걸.
원칙적으로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도 벌을 받을 수 있어요.
수준 높은 질문이래.
그러니 어떤 일을 할 때는 관련되는 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겠지요.
법은 몇 개가 있어요?
무척 많아요. 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법률만 해도 1,000개가 넘습니다.
법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약속이자 원칙이라 할 수 있지요.
그렇게 많은 법 모두를 알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자신과 관련된 분야의 법은 잘 알아두는 것이 좋겠지요.


판사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는 기준은 뭔가요?
헌법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는 사건과 관련된 헌법, 법률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서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의 양심은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다른 양심이 아닌 판사에게 요구되는 직업적인 양심을 의미합니다.
직업적인 양심! 판사로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시겠다는 걸까?
그렇지.
휴~ 이제 끝인가? 의외로 질문이 날카롭군.
자.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
판사님!! 저요! 저도 질문있습니다.


전 판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판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뭔가요?
오호라! 요 개구쟁이의 꿈이 판사라고?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우선 판사에게는 균형감각이 필요합니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양쪽의 말을 잘 들어 보고 공정하게 해결해야 하지요.
그리고 사람과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
법원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의 말을 경청하는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것을 모두 갖추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정의로운 마음과 열정을 지닌 사람이라면 훌륭한 판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말씀을요.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법을 잘 지키는 어린이가 되세요.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휴우~ 우리 말썽꾸러기들 용케 소란없이 끝냈구나.


똘아, 생각보다 재밌었지?
응. 난 판사님과의 대화가 제일 인상적이었어.
크크. 판사님도 네가 제일 인상적이셨을걸.
대법정 의자를 내다 팔려는 건 너밖에 없었을거야.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
판사라는 내 꿈이 얼마나 중요하고 멋진 건지 다시금 알게 됐어.
판사님께서 균형 감각을 키우라 하셨지.
좋아. 오늘부터 균형적인 똘이가 되겠어.
판사님이 말씀하신 균형은 그게 아니잖아.
아이쿠 못말려!


똘아, 나리야! 뭐하고 있어? 어서 가야지.
네!
주차장에 있는 버스로 가는 거지?
그래. 어서 가자.
!
후후... 나도 미래에는 반드시...

제1화 심화학습

와! 대법원이다!!

대법원 견학 함께 가요.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 찾아가는 길: 2호선 서초역 6번 출구

■ 법원전시관(Court Museum)

– 관람시간: 월~금 09:30~17:30

– 휴관일: 매주 토 · 일요일 및 국경일 등 공휴일

– 관람료: 무료

– 개인 및 가족은 별도 예약 없이 전시관을 관람할 수 있어요.

– 전시내용: 법과 법원실, 법원 역사실, 어린이 법 체험실, 기획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린이 법 체험실에서는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어린이 법 체험실〉






■ 대법원 사이버 견학

– 법원 어린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이버 견학이 가능해요.
http://www.scourt.go.kr/kids/



〈법원 어린이 홈페이지: 어린이 마당〉



〈법원 어린이 홈페이지: 대법원 둘러보기〉

■ 대법원 단체 견학

– 20명 이상 50명 이하 단체는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단체 견학을 신청할 수 있어요.

– 법원전시관 관람, 대법정과 소법정 및 정의의 여신상 관람, 모의재판 체험 등의 활동을 합니다.

제 2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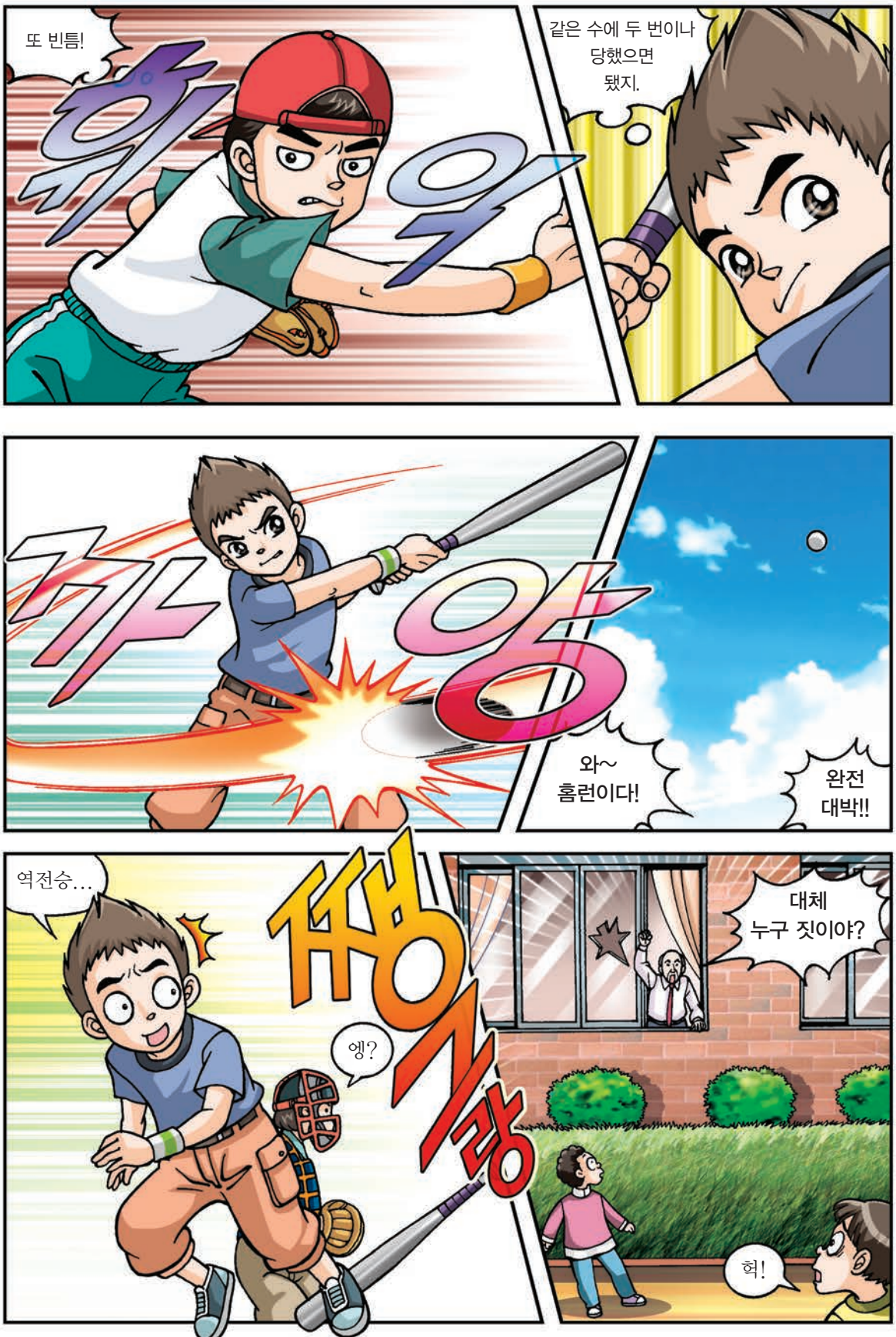
햇빛을 쐴 권리가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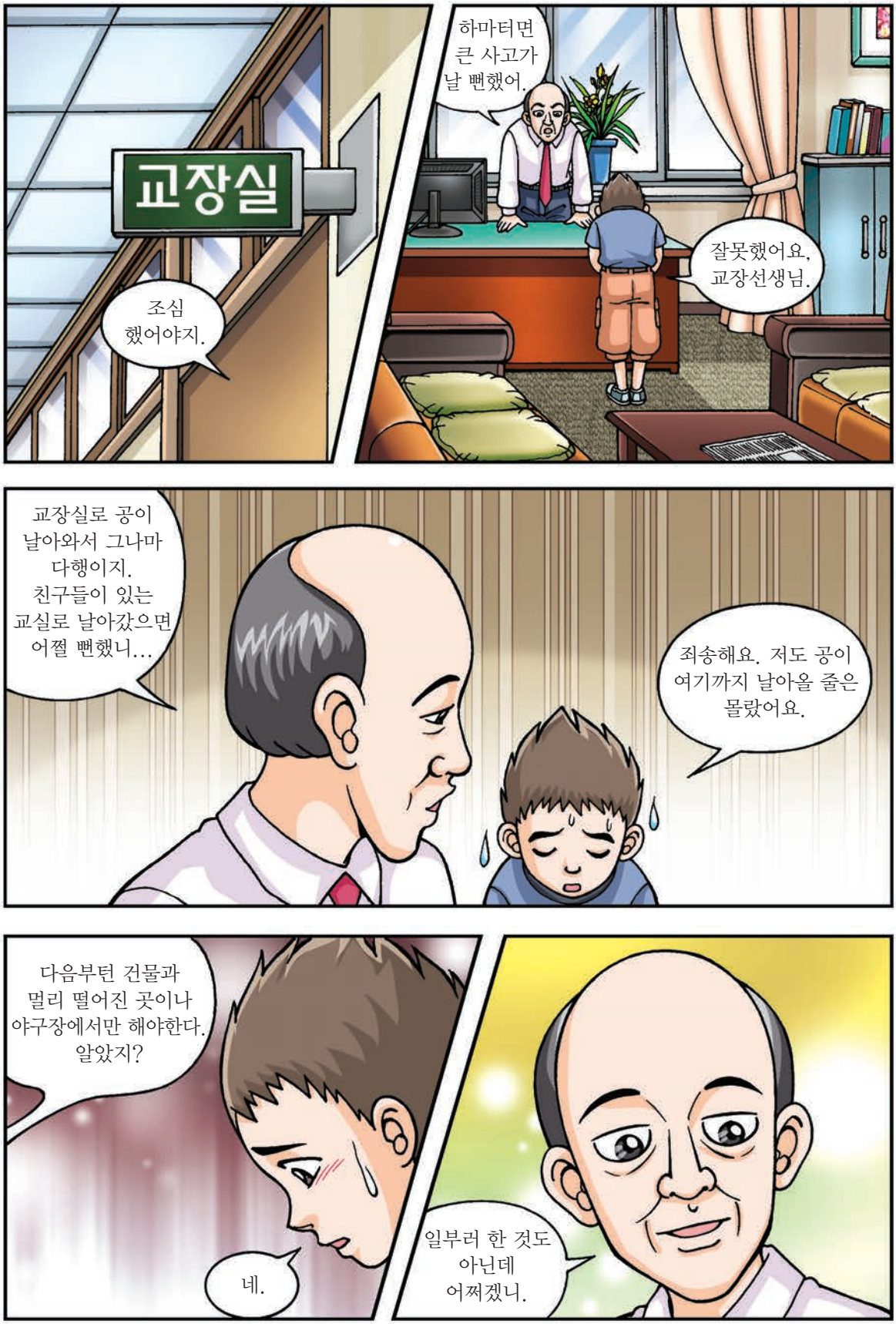



투아웃에 만루,
2대 3으로 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홈런을 때리면
영웅이 되는 것이고
아웃이 되면 역적이 되는
것이렸다.
홈런!
홈런!
똘아, 힘내!
우오오오오옷!
사랑의 힘이여 솟아라!
내 반드시 홈런을 치고
말리라.
부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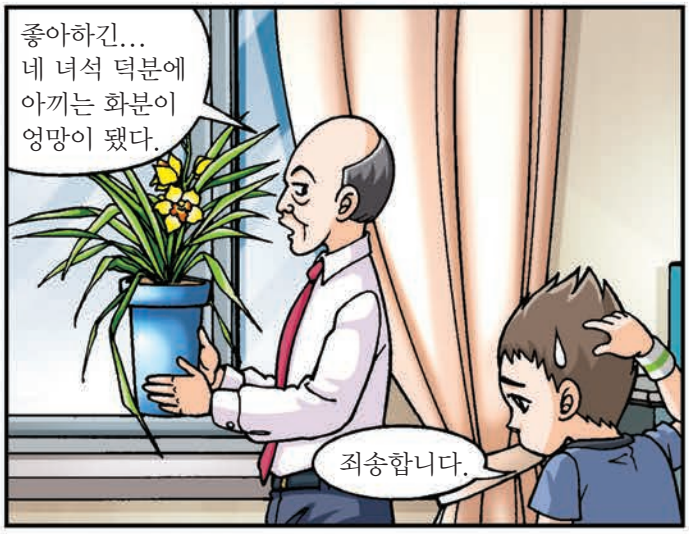

휘익
이게 무슨 소리지? 설마 지진?
바보! 학교 옆 빌딩 공사장에서 나는 소리잖아.
우우웅
헉! 진짜네. 언제 학교 옆에 저렇게 큰 건물이 지어졌지?
왠지 운동장이 좀 어두워졌다 했지.
다 지어지면 교실까지 그늘이 지겠는걸.
!
따
앙
원 스트라이크!


야!
준비도 안됐는데 공을 던지면 어떡해?
누가 한눈 팔래?
각오해라. 난 오늘 반드시 너를 쓰러뜨리고 대법초등학교의
새로운 영웅의 자리에 오르겠다. 그리고...
그리고?
퍼억
투 스트라이크!!
비겁하게 말하는 도중에 던지냐?
푸헤헤헤
속는 사람이 바보지. 바보! 바보! 바보!
똘아, 침착해! 넌 최고의 타자잖아. 네 실력대로만 치면 이길 수 있어.
흥분하면 안돼.
따닥
따닥
알았어, 진정할게. 나리야, 알라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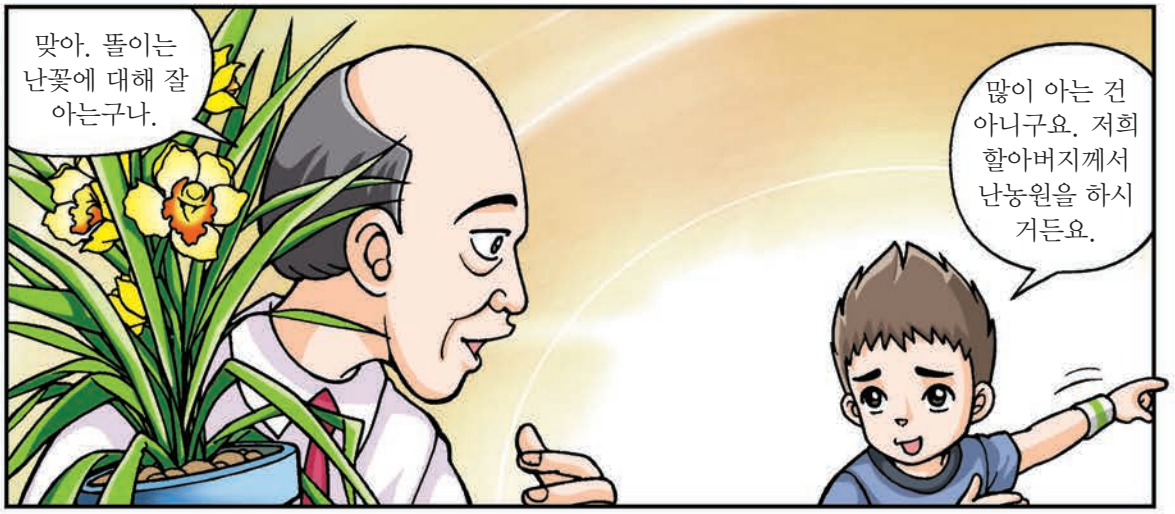

또 빈틈!
휘익
같은 수에 두 번이나 당했으면 됐지.
까앙
와~ 홈런이다!
완전 대박!!
역전승…
따악
엥?
대체 누구 짓이야?
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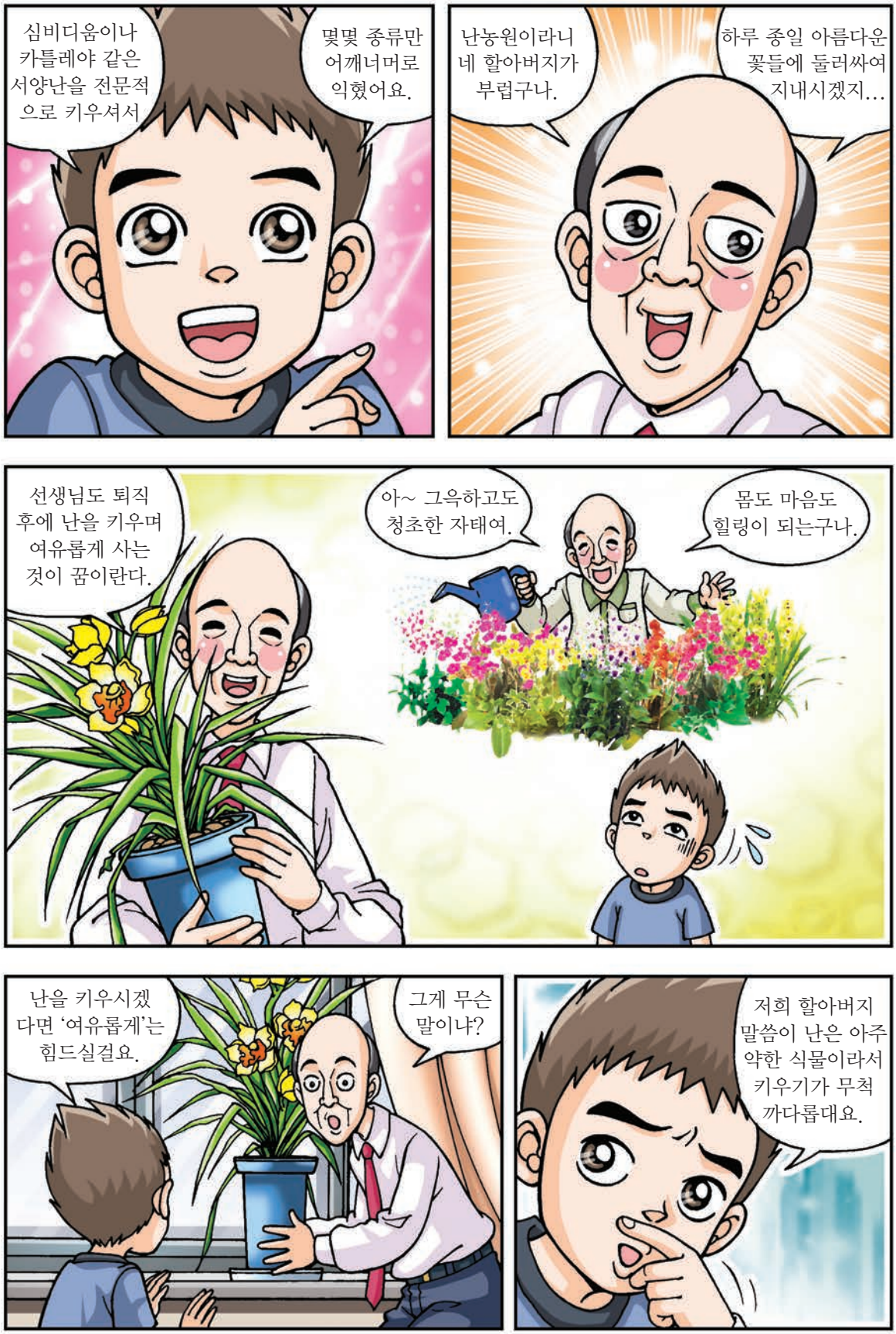

교장실
조심 했어야지.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했어.
잘못했어요, 교장선생님.
교장실로 공이 날아와서 그나마 다행이지. 친구들이 있는 교실로 날아갔으면 어쩔 뻔했니...
죄송해요. 저도 공이 여기까지 날아올 줄은 몰랐어요.
다음부턴 건물과 멀리 떨어진 곳이나 야구장에서만 해야한다. 알았지?
네.
일부러 한 것도 아닌데 어쩌겠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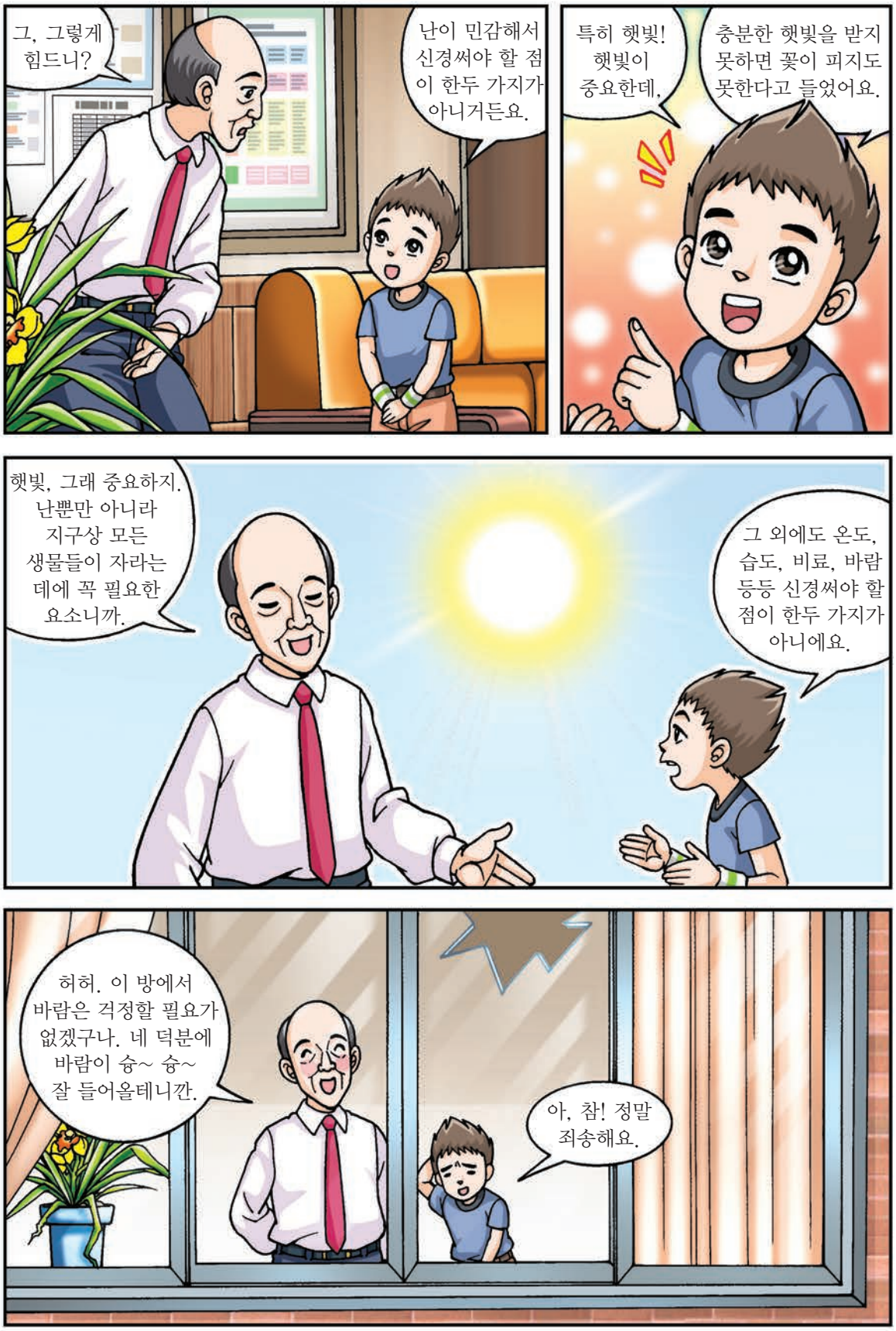

그나저나 대단하구나. 운동장에서 여기까지 공을 날리다니...
우리 학교 개교 이래 처음있는 일이다.
헤헷. 제가 좀 힘이 세서...


좋아하긴... 네 녀석 덕분에 아끼는 화분이 엉망이 됐다.
죄송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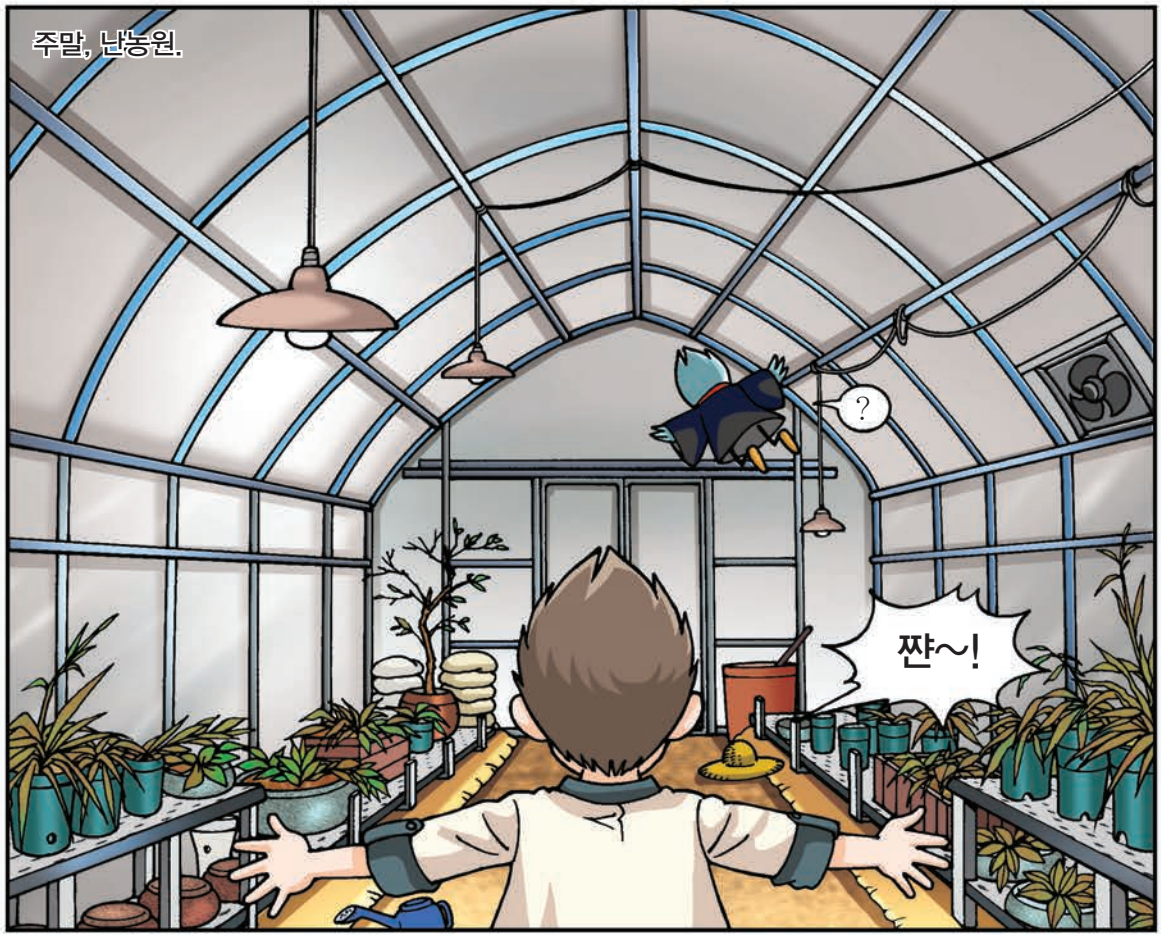

어? 교장선생님. 그 난 혹시 심비디움 아니에요?
끌적
끌적


맞아. 똘이는 난꽃에 대해 잘 아는구나.
많이 아는 건 아니구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난농원을 하시거든요.


심비디움이나 카틀레야 같은 서양난을 전문적으로 키우셔서
몇몇 종류만 어깨너머로 익혔어요.
난농원이라니 네 할아버지가 부럽구나.
하루 종일 아름다운 꽃들에 둘러싸여 지내시겠지...
선생님도 퇴직 후에 난을 키우며 여유롭게 사는 것이 꿈이란다.
아~ 그윽하고도 청초한 자태여.
몸도 마음도 힐링이 되는구나.
난을 키우시겠다면 '여유롭게'는 힘드실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저희 할아버지 말씀이 난은 아주 약한 식물이라서 키우기가 무척 까다롭대요.


그, 그렇게 힘드니?
난이 민감해서 신경써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특히 햇빛! 햇빛이 중요한데,
충분한 햇빛을 받지 못하면 꽃이 피지도 못한다고 들었어요.
햇빛, 그래 중요하지. 난뿐만 아니라 지구상 모든 생물들이 자라는 데에 꼭 필요한 요소니까.
그 외에도 온도, 습도, 비료, 바람 등등 신경써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허허. 이 방에서 바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네 덕분에 바람이 슝~ 슝~ 잘 들어올테니깐.
아, 참! 정말 죄송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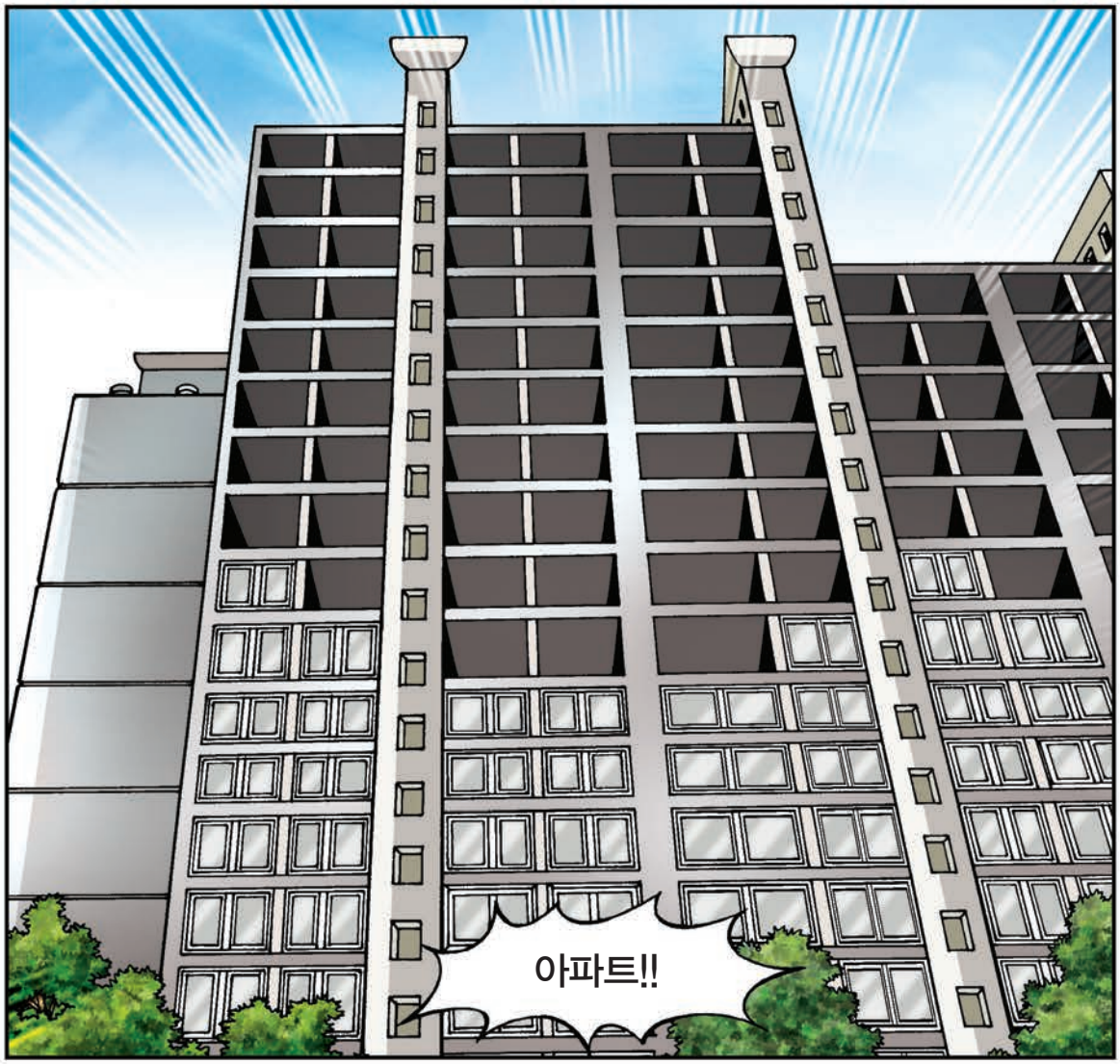

대법초등학교
잘 가. 약속한 것 잊지마.
내일 봐.
똘아.
교장선생님 완전 천사표 시네.
응, 야단 맞으러 갔다가 난 이야기만 실컷 듣고 왔다니깐.
너희 할아버지께서 난농원을 하시는지 나도 몰랐어. 예쁜 꽃이 많겠다.
그건 그렇지.
나리야. 이번 주말에 같이 난농원에 놀러 갈래?
꽃도 보여주고 우리 할아버지도 소개 시켜줄게.
할아버지댁이 가까워?
교외에 있는데 그래도 버스타고 가면 금방이야.
색색의 꽃들 수천 송이가 피어 있는 모습이 진짜 환상적이야. 같이 가보면 깜짝 놀랄걸?


주말, 난농원.
?
짠~!


엥? 난들이 왜 이래?
꽃도 없이 모두 시들었잖아!
어머?


전화라도 미리하지 그랬니.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난이 꽃도 없이 다 시들었잖아요.


에구… 친구까지 데려왔는데 보여줄 꽃도 하나 없으니 어쩌누…
할아버지…
많이 당황했지? 그럴 일이 있었단다.
저기 뒷문으로 나가볼까.
난이 이 꼴이 된건 저것 때문이지.
!


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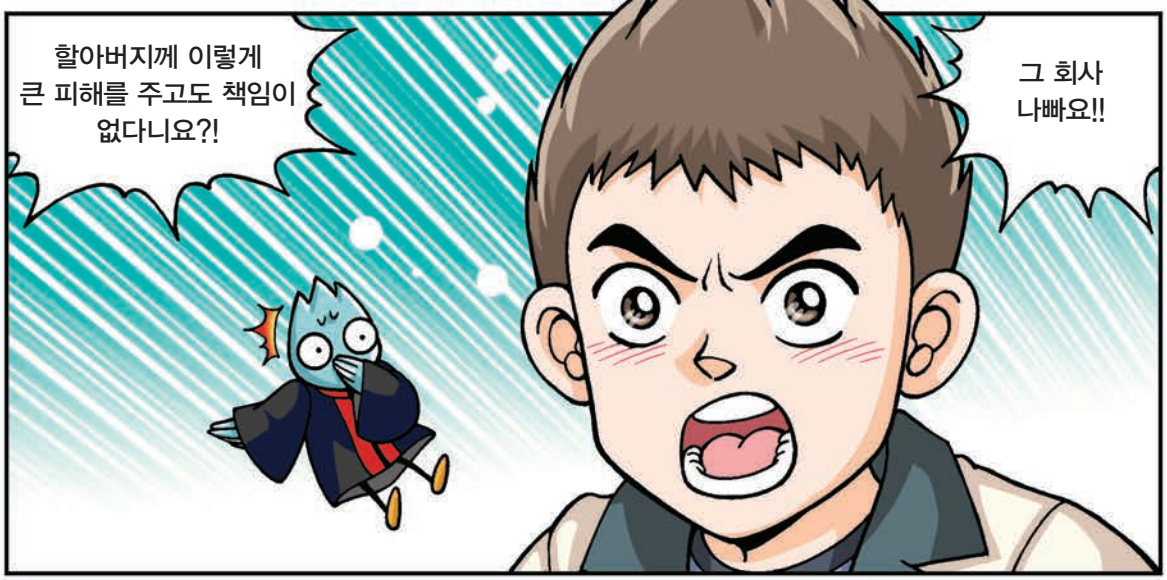

작년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란다.
설마했는데 아파트 그늘 때문에 햇빛이 들지 않자, 난들이 시들시들 하더니 이제는 다 죽게 생겼구나.


어떡해요, 할아버지? 아파트를 짓고 있는 회사에 말해 보셨어요?
맞아요. 아파트 때문에 난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왜 안했겠니? 회사 사장을 찾아갔었지.
허허. 어르신 난이 죽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저희 책임은 아닌 듯 하군요.
저... 그게... 제 말은 아파트 그늘로 인해 난 재배가 완전 불가능해져서.
저희는 정당하게 땅을 사고 건축 허가를 받아 아파트를 짓고 있는 겁니다.


건축법, 주택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여러 가지 규정도 모두 지키고 있고요.
법적으로 어르신께 해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르신을 정중히 모시게.


아파트를 법대로 지었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야지.


그냥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나오고 말았단다.
말도 안돼요! 무슨 법이 그래요?
!


할아버지께 이렇게 큰 피해를 주고도 책임이 없다니요?!
그 회사 나빠요!!


그래, 걱정마라. 이제 난 키우는건 포기하고 다른 일을 찾을 생각이다.
똘아, 지금 흥분할 때가 아니잖아.
무슨 말씀이세요?
햇빛 잘 드는 곳으로 이사 가셔서 다시 난을 키우시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이번 일로 힘들게 되었어.
왜요?
할아비가 키운 난들이 예쁘고 싱싱해서 수출 계약을 맺게 되었단다.
그래서 신이 나서 큰 돈을 빌려 비닐하우스를 하나 더 지었는데...
그만 이런 일이 생겨 계약이 깨지고 말았지 뭐냐... 거참...
그럼 할아버지께서 빚을...


이런 내 정신 좀 보게. 가자! 가자! 네 할미가 너희 주려고 옥수수와 고구마를 쪄 놓았어.
기다리겠다. 어서 가자.
하, 할아버지 그런데요.
아빠도 알고 계시겠죠?
너희 애비도 사느라 힘든데 할아비 문제로 걱정을 하게 해서야 되겠니…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 일이니까 당연히 아빠도 아셔야죠.
허허… 우리 손자가 다 컸구나.
그러니 돌아, 아빠한테 말해선 안 된다.
신나리라고 했지. 난꽃 구경와서 꽃도 보지 못하고 할아비가 주책없는 말만 늘어 놓아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그보다 할아버지께서 힘드셔서 어떡해요…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지 몰랐어.
그래도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대단한 분들이셔.


그런 힘든 일이 있으신데도 걱정 할까봐 말씀을 안 하시다니...
그 점은 나도 인정해. 아빠가 모시려고 해도 한사코 따로 살아야 한다며 나와서 살고 계시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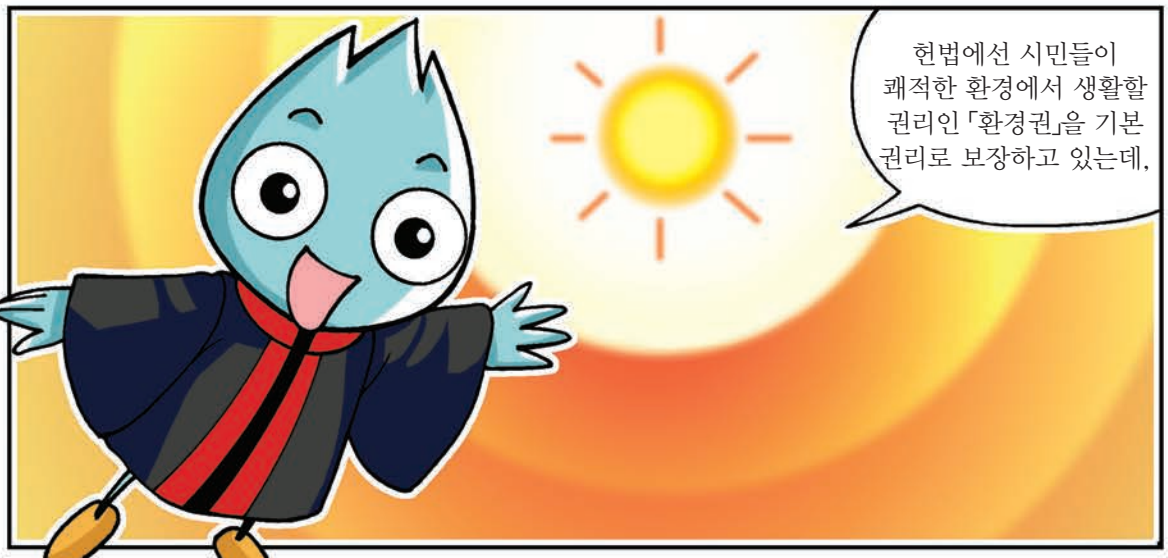

우리가 오늘 깜짝 방문을 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몰랐을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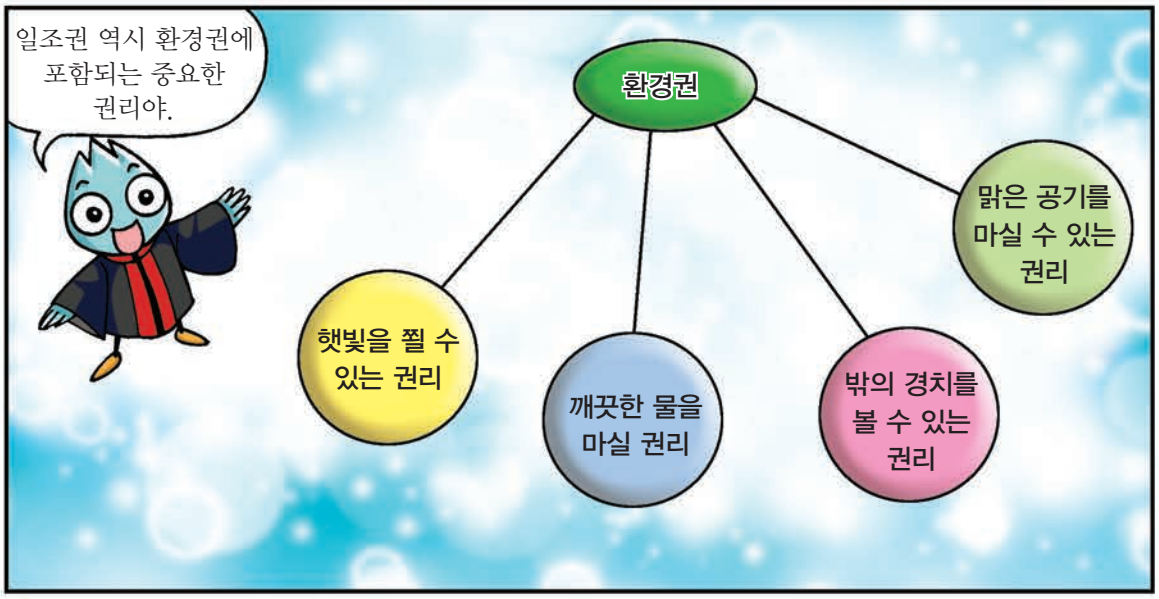

어떻게 할아버지를 도울 좋은 수가 없을까?
똘아, 이건 내 생각인데,


아파트 회사를 상대로 법에 호소하는 거야.
법에?
아파트 회사에선 법대로 아파트를 지었으니 책임질 일이 없다고 했잖아.
응.


그건 아파트 회사 측 입장에서만 이야기한 거고.
너희 할아버지는 입장이 다르지. 일조권을 침해 당하셨잖아.


일조권?
쉽게 말하면 햇빛을 쬘 권리를 말해


헌법에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을 기본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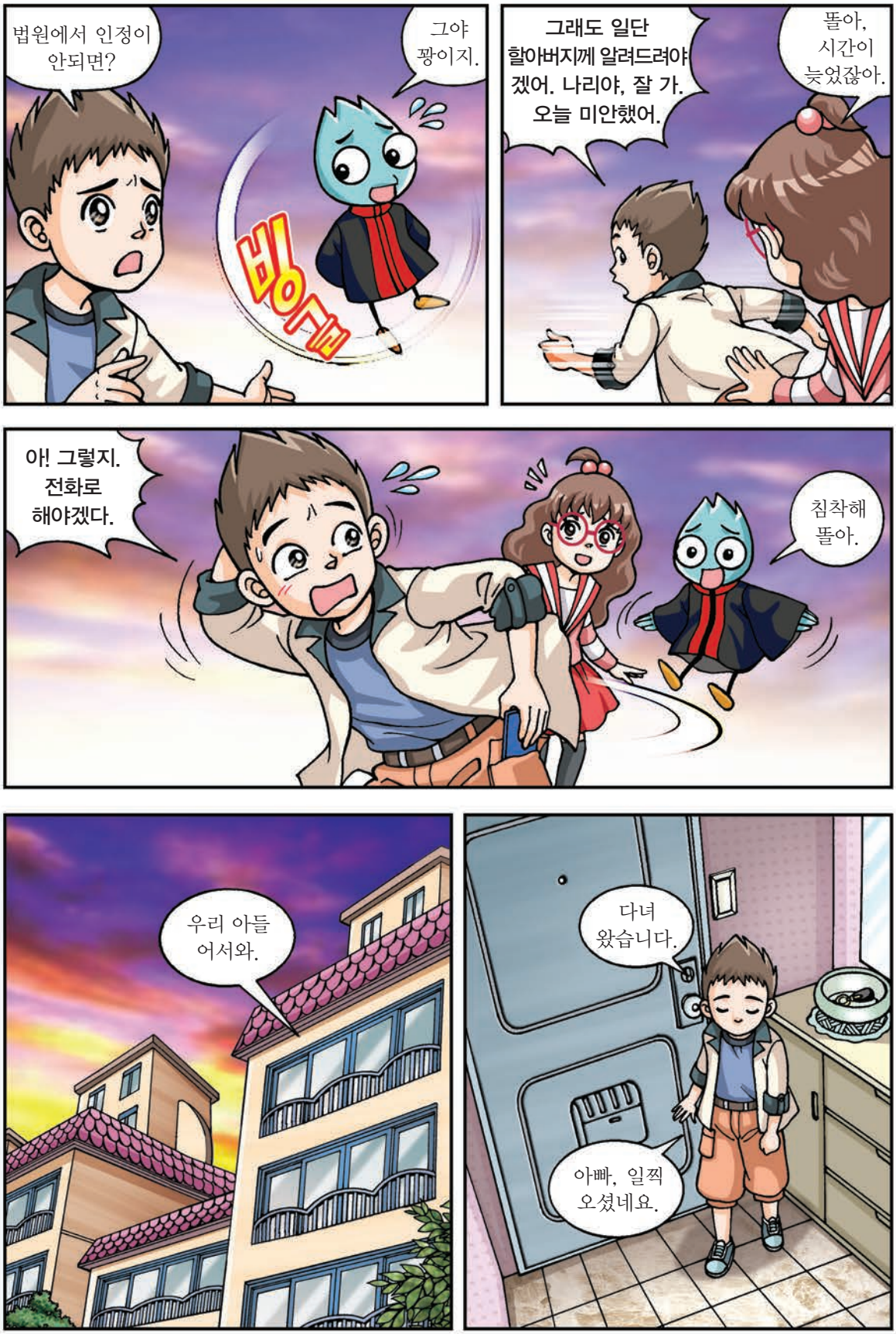
TIP 헌법에서 보장한 환경권

- 헌법 제35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헌법 제35조 제3항
  -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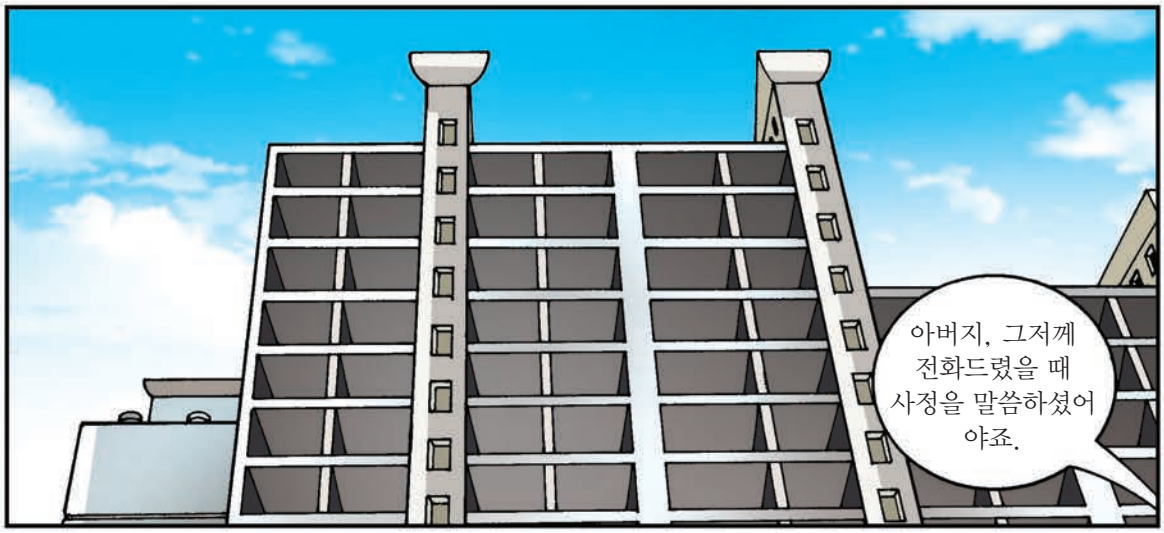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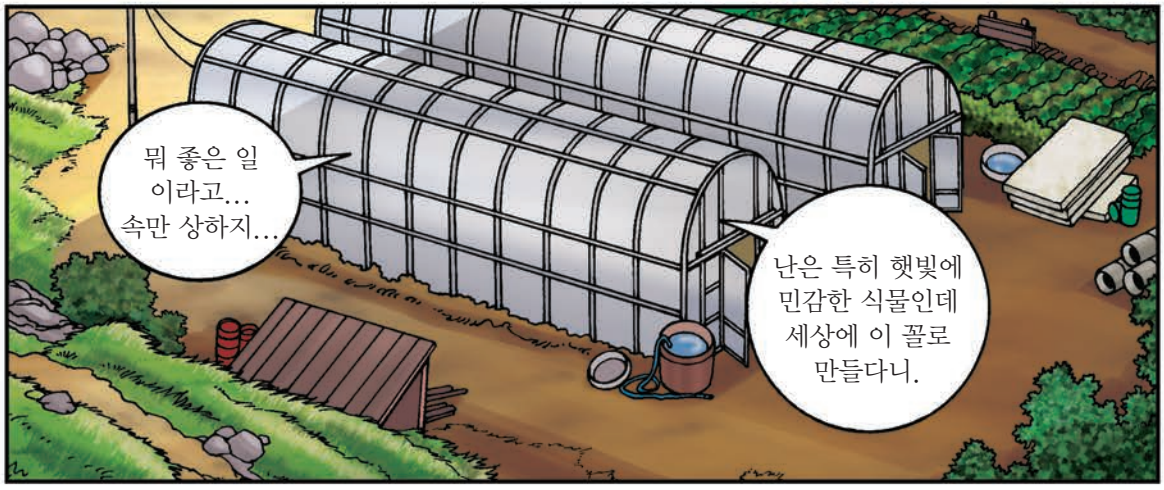

법원에서 인정이 안되면?
그야 꽝이지.
비이잉
그래도 일단 할아버지께 알려드려야 겠어. 나리야, 잘 가. 오늘 미안했어.
똘아, 시간이 늦었잖아.
아! 그렇지. 전화로 해야겠다.
침착해 똘아.
우리 아들 어서와.
다녀 왔습니다.
아빠, 일찍 오셨네요.


난꽃 보고 나리가 좋아 하던?
할아버지, 할머니 잘 계시더냐?
아빠, 일조권에 대해 잘 아세요?
일조권? 그렇게 어려운 말도 아니?
우리 한씨 집안에 인물났네. 그건 왜?
아이구, 우리 손자에게 큰 걱정거리를 준 게로구나. 걱정마라. 이 할아비도 알아볼 만큼 알아봤단다.
그러니 아빠, 엄마한테도 여기 일은 말해선 안된다. 늦었으니 어서 전화 끊고 들어가거라.


아, 아니에요.
??
너 나리랑 싸웠니?
무슨 일인데 그래?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답답해서 그래요.
아니, 할아버지 집에서 나리랑 신나게 놀고 와선 답답하다니?
신나게 놀긴요. 할머니가 쪄주신 옥수수랑 고구마만 먹고 그냥 왔다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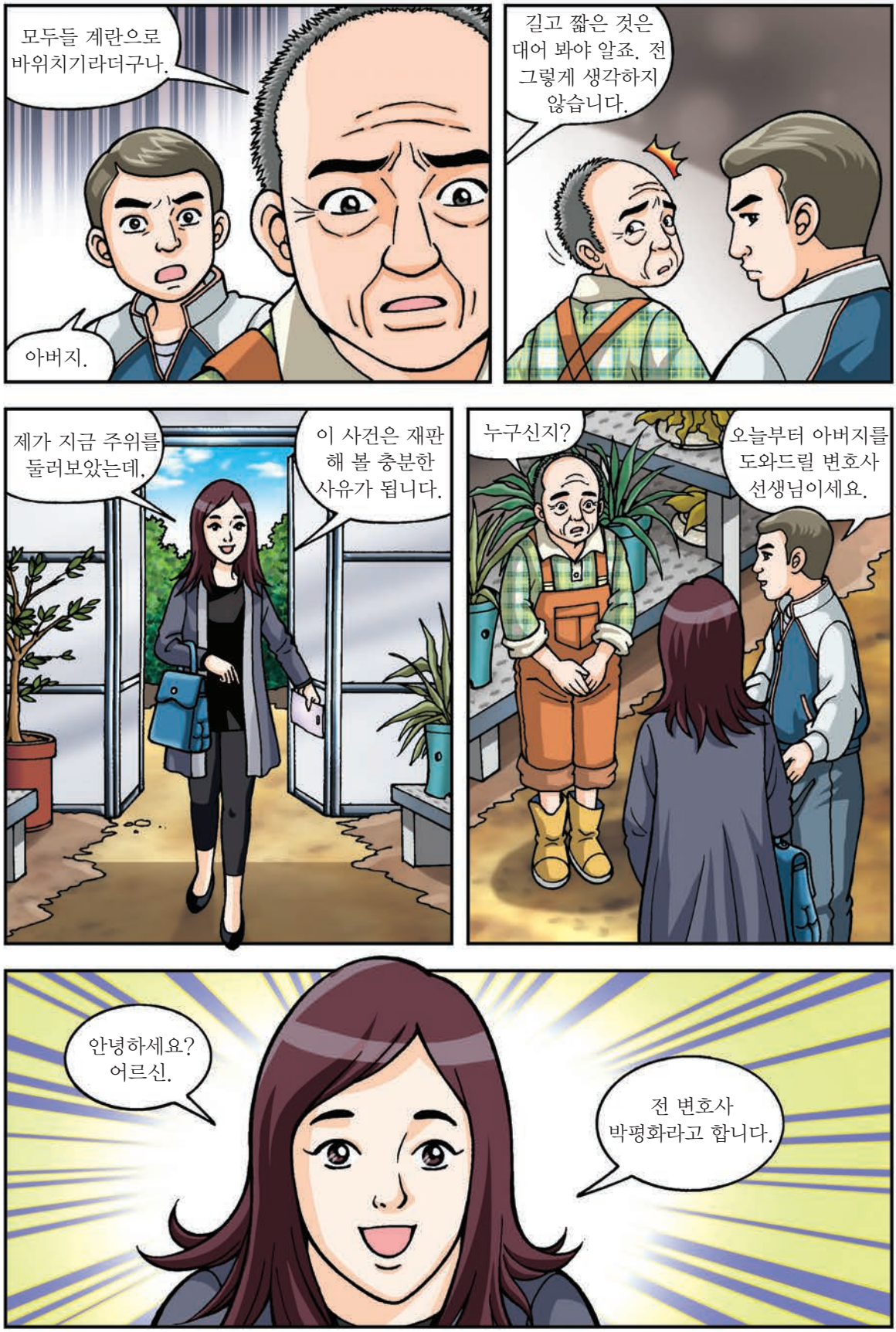

뭐? 나리한테 난꽃 구경시켜 준다고 하고선.
아빠! 엄마!
엉엉
할아버지는 아빠,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 할아버지 난농장에 난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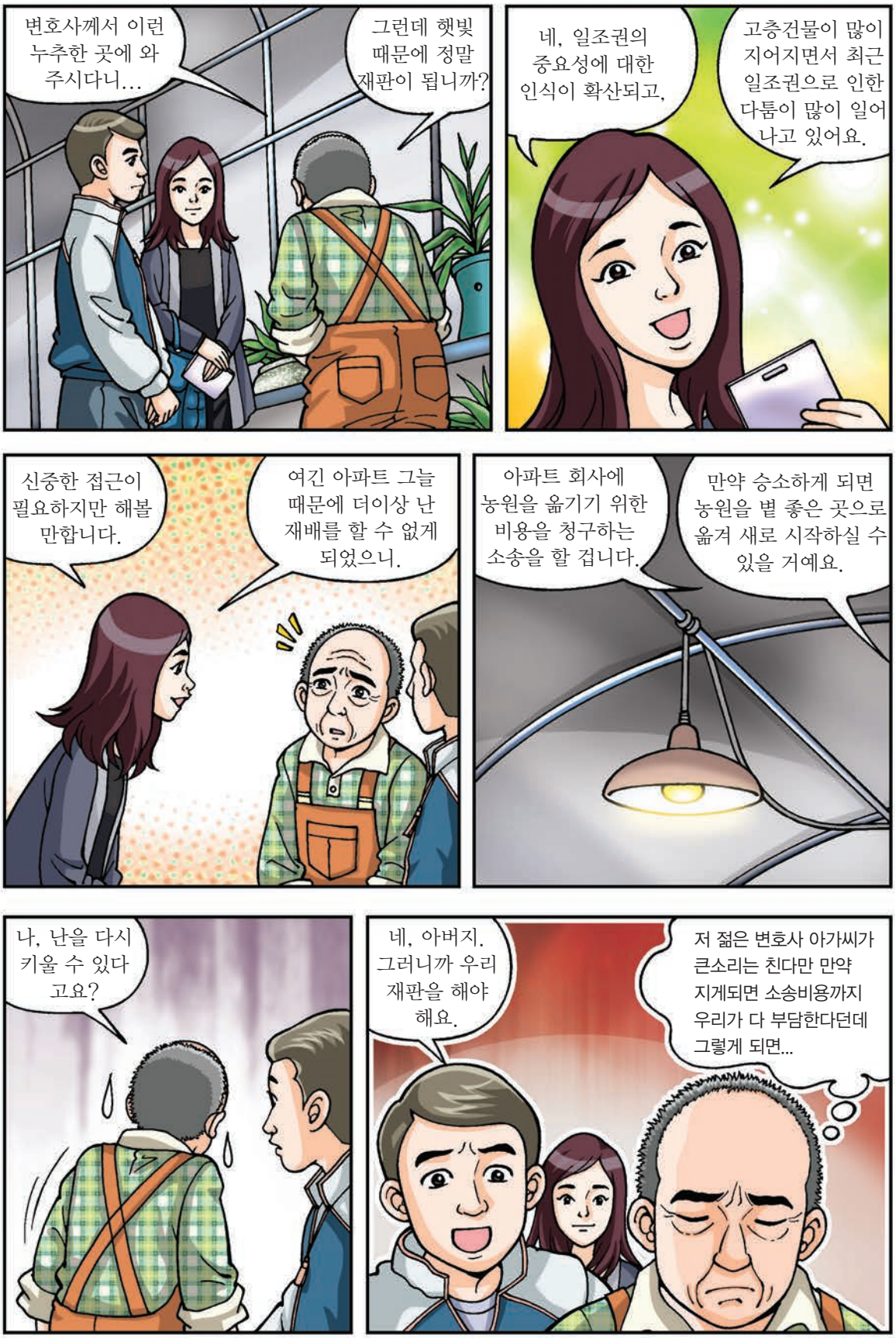

아버지, 그저께 전화드렸을 때 사정을 말씀하셨어야죠.


뭐 좋은 일이라고… 속만 상하지…
난은 특히 햇빛에 민감한 식물인데 세상에 이 꼴로 만들다니.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법의 도움을 받아야죠.
건축회사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아버지.
소송을…


재판 같은 거 아무나 하는게 아닌가 보더라.
상대는 어마어마하게 큰 건설회사야.


모두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더구나.
아버지.
길고 짧은 것은 대어 봐야 알죠.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이 사건은 재판해 볼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누구신지?
오늘부터 아버지를 도와드릴 변호사 선생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전 변호사 박평화라고 합니다.


변호사께서 이런 누추한 곳에 와 주시다니...
그런데 햇빛 때문에 정말 재판이 됩니까?
네, 일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고층건물이 많이 지어지면서 최근 일조권으로 인한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해볼 만합니다.
여긴 아파트 그늘 때문에 더이상 난 재배를 할 수 없게 되었으니.
아파트 회사에 농원을 옮기기 위한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할 겁니다.
만약 승소하게 되면 농원을 볕 좋은 곳으로 옮겨 새로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 난을 다시 키울 수 있다고요?
네,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재판을 해야 해요.
저 젊은 변호사 아가씨가 큰소리는 친다만 만약 지게되면 소송비용까지 우리가 다 부담한다던데 그렇게 되면...


○○지방법원
안녕하세요. 할머니.
에구, 또 만나는구나.
나리는 똘이네 학교 학생회장이에요. 참 똑똑해요.
오호, 그래. 똘이에게 아까울 정도로 참하다 했더니 호호호.
할머니.
손주 녀석 덕분에 내 평생 처음으로 법원 구경을 다 하는구나.
할멈, 청심환 좀 줘봐. 재판 전에 먹어야겠어.
걱정마시고 들어가시죠. 어르신 오늘을 위해 제가 만반의 준비를...
척척
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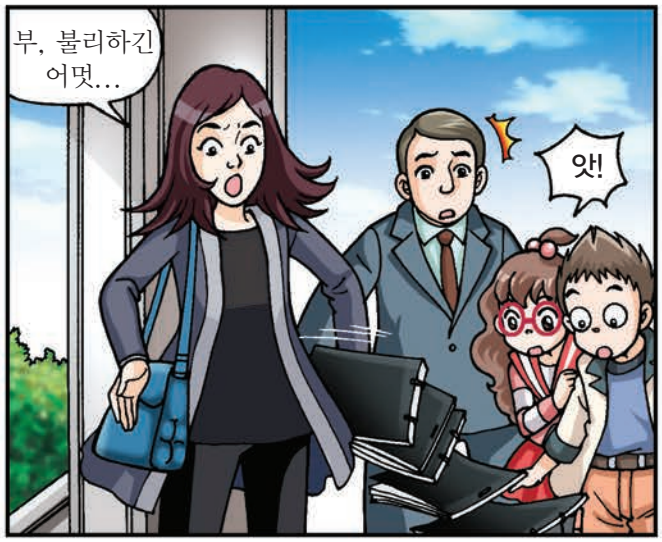

척
척
척
척
척
오늘 재판 상대인 회사 사람들이구나.
아빠 저 사람들은 누구에요?
움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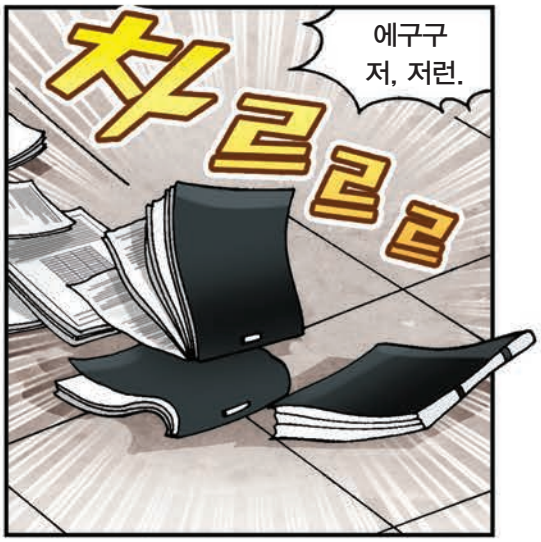

세상에! 위압감이 장난 아니네.


저, 저들은 대형 로펌 빅토리…
로펌이 뭐에요?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회사란다.
가사, 상속, 건설, 금융, 조세 등 각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로 조직되어 재판내용에 따라 각각 활동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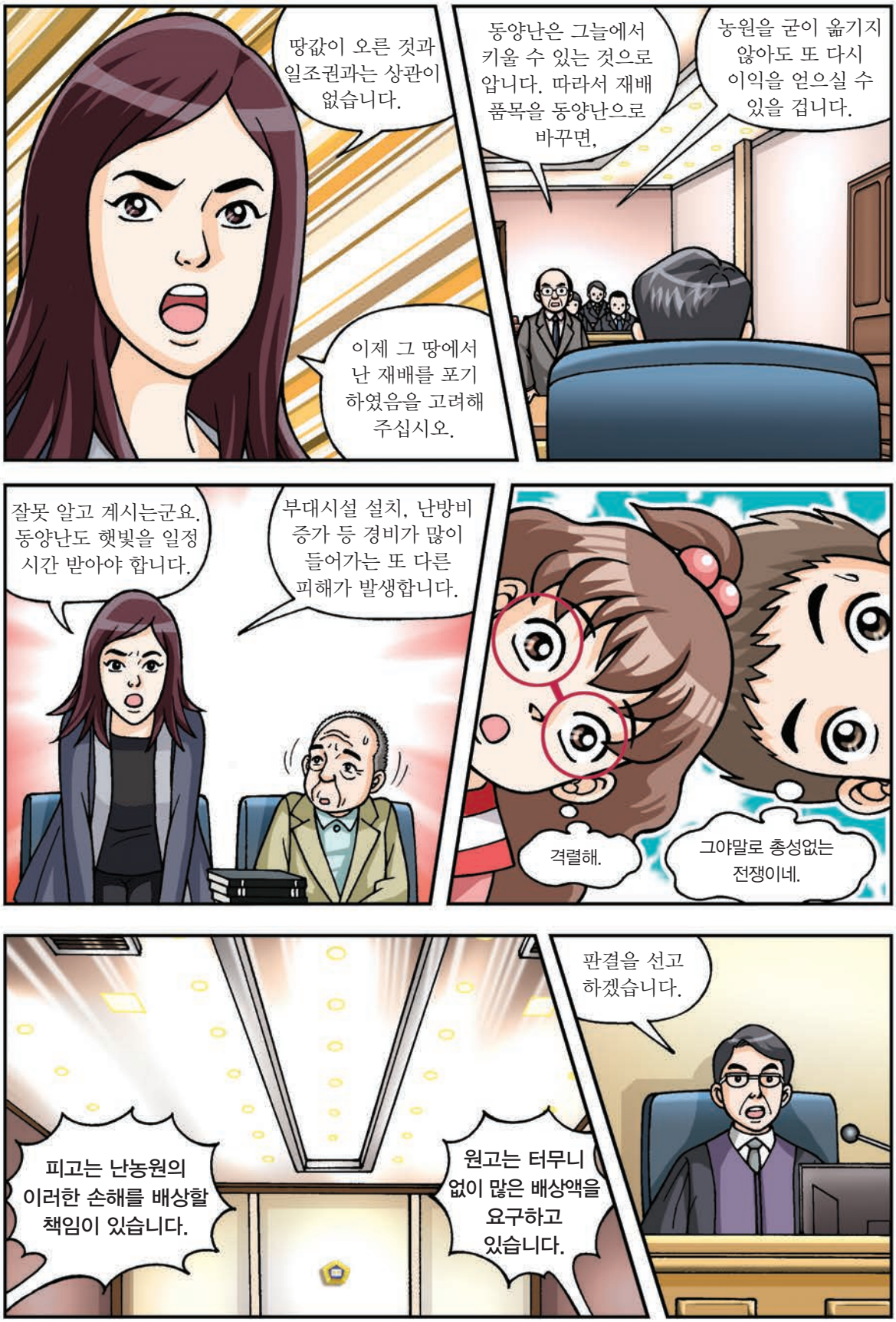

전문 변호사… 그럼 일조권 전문가도 있겠네요.
설마 우리가 불리한 건 아니겠죠?


부, 불리하긴 어멋…
앗!


에구구 저, 저런.
차르르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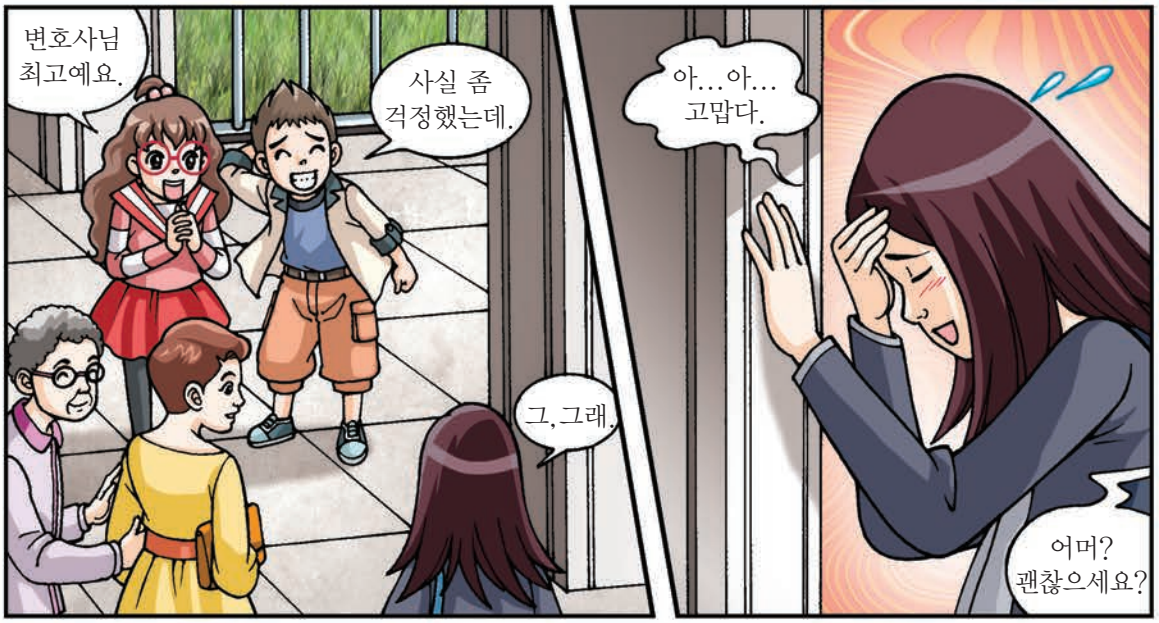

변호사 아가씨도 청심환 하나 드실라우?
걱정마세요. 저도 만만치 않은 변호사 거든요.
내가 변호사를 잘못 선택했나...
원고석
피고석
어? 검사가 없네. 판사님도 세 분이고?
민사재판에는 원고와 피고만 있잖아.
아! 맞다.
저 세 분이 합의해서 판결을 하는 것을 합의부 재판이라 하고 판사님이 혼자면 단독재판, 맞지?
그 정도는 기본이거든. 미래 판사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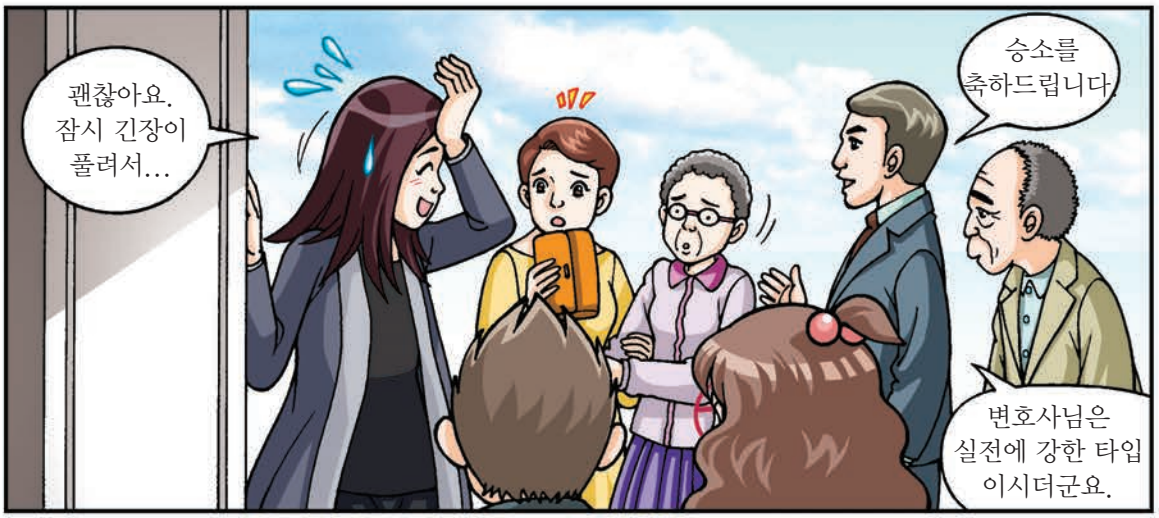

피고측 변호사 말씀하세요.
시작인가봐요. 어머님.
피고는 아파트를 지으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모두 지켰습니다.
피고석
원고에게 일조권이 있듯 피고에게도 자유롭게 아파트를 신축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의 그 권리로 인해 원고의 일조권이 치명적인 침해를 당했습니다.
아파트 그늘로 농원의 일조량이 60~80%까지 감소되었고 그 결과 난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피고가 일조권을 침해한 것은 인정합니다.
허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주변 땅값이 올라 원고가 이득을 본 것도 참고되어야 합니다.


땅값이 오른 것과 일조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그 땅에서 난 재배를 포기하였음을 고려해 주십시오.
동양난은 그늘에서 키울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재배 품목을 동양난으로 바꾸면,
농원을 굳이 옮기지 않아도 또 다시 이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군요. 동양난도 햇빛을 일정 시간 받아야 합니다.
부대시설 설치, 난방비 증가 등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합니다.
격렬해.
그야말로 총성없는 전쟁이네.
피고는 난농원의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터무니 없이 많은 배상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결을 선고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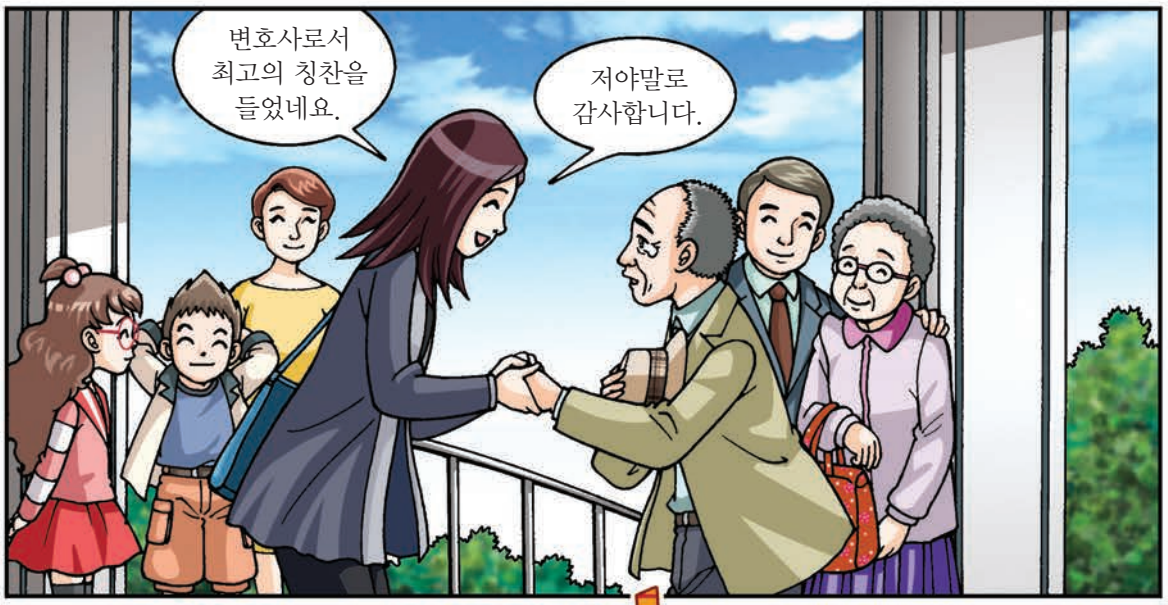

저 여유는 뭐지?
햇빛을 받으며 누리는 이익 역시 법적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석
새로 지은 아파트 때문에 토지에 그늘이 증가하여 「수인한도」 즉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게되면,
원고석
그 아파트 건축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법원
피고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였다고는 하지만,
!


!
이러한 사정으로 피고의 행위를 다르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일조침해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판결합니다.
어르신! 우리가 이겼어요.
이, 이겨요? 세상에 이럴수가!
정의의 승리! 대한민국 만세다. 하하하.
아버지, 축하드려요.
아직 난 얼떨떨 하구나.


변호사님 최고예요.
사실 좀 걱정했는데.
그,그래.
아...아... 고맙다.
어머?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잠시 긴장이 풀려서...
승소를 축하드립니다.
변호사님은 실전에 강한 타입이시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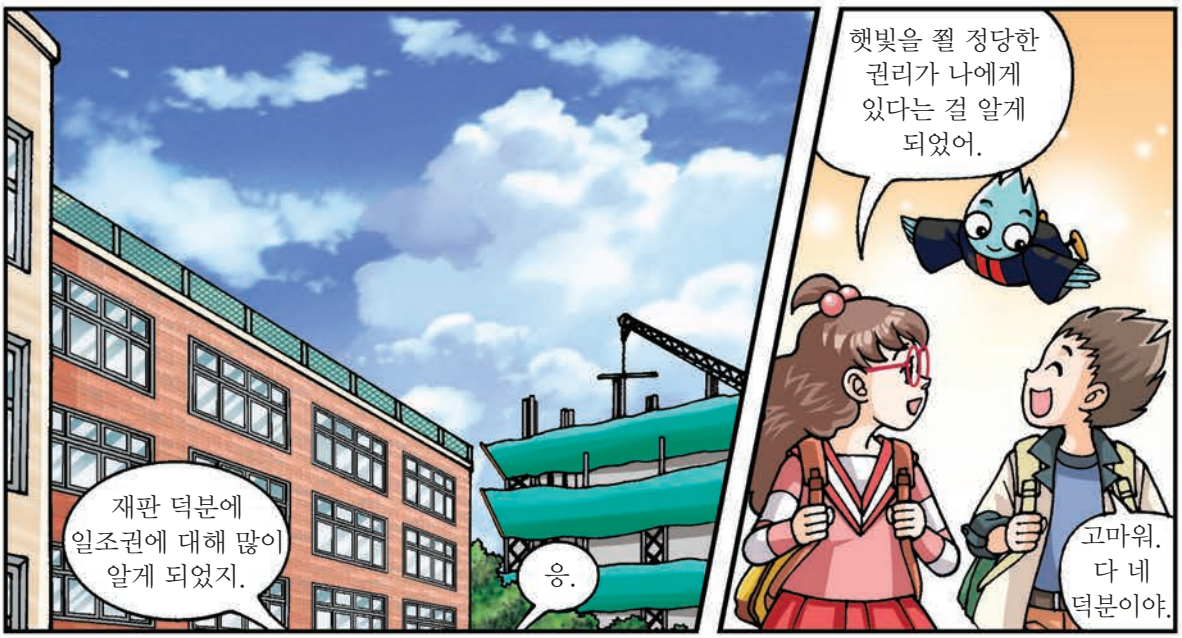

꿈만 같아요. 난을 계속 키울 수 있게 되다니...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쓸모없는 늙은이가 된 기분이라 많이 움츠리고 있었는데
이번 재판으로 새롭게 시작할 힘을 얻게 되었어요.


변호사로서
최고의 칭찬을
들었네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이 소리는
?!!
척
척
척
척


척
척
척
척


!
흠! 어떠냐? 우리가 이겼다.
그간 어르신께 피해를 끼쳐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
돌아가는 즉시 모든 사업계획서를 재검토 하도록.
네.
앞으로 건물을 신축할 때는 이웃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해야 해.
네, 대표님.


재판 덕분에 일조권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지.
응.
햇빛을 쬘 정당한 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
고마워. 다 네 덕분이야.


그런데 저기 짓고 있는 빌딩도 우리 학교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장 선생님께 말씀 드려 볼까?


그래! 우리 학교는 우리 손으로 지켜야지.
허허. 걱정들 마라.


안녕하세요? 교장선생님.
오! 그래. 안그래도 저 빌딩회사를 상대로 재판을 했단다.


교실에 햇빛이 잘 들지 않으면 너희들이 공부하는데
지장도 있을 수 있고 건강도 해칠 수 있다 싶어 소송을 했지.


어떻게 됐는데요?
흠, 학교건물에 해가 비치는 시간 비율을 계산해서.
아파트 층수를 예정보다 낮게 짓도록 판결 났단다.


와아! 우리 학교도 법을 통해 일조권을 보장 받았네요.
멋져요. 교장선생님!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도 햇빛을 듬뿍 받고 무럭무럭 자라거라.
네!

제2화 심화학습

햇빛을 쬘 권리가 있어요.

(일조권 관련)

2화의 '햇빛을 쬘 권리가 있어요'의 이야기는 실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고 있어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어 비닐하우스에서 더 이상 난을 재배하기 어렵게 되어 생기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도록 판결한 것이지요. 고층 아파트 때문에 난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에 햇빛이 들지 않게 된 것이므로 아파트 건설회사는 비닐하우스와 그 안에서 재배되는 난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필요한 비용을 배상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햇빛을 쬘 수 있는 권리는 법으로 보호됩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햇빛은 식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에요. 초등학교의 일조권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있어요. 건설회사에서 학교와 마주보는 위치에 22층 고층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어요. 이렇게 될 경우 학교 쪽으로 그늘이 생겨 교실에 햇빛이 잘 들지 않게 돼요. 학교에서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학교 등의 햇빛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것이므로 아파트를 22층으로 건축하면 안된다고 주장하였어요. 아파트 건설회사에서는 이미 적합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2층 이하로 아파트를 짓게 될 경우 건설회사의 재산권을 침해 당한다고 주장하였어요.

학교와 아파트 회사는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법원은 아파트 층수에 따라 학교에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 비율을 계산하여 20층 이하로 짓게 될 경우 학생들에게 비교적 피해가 적다고 판단하여 아파트 건설 회사에 20층 이하로 아파트를 짓도록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법 2004. 10. 14. 선고 2004가합2290 판결]

환경권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은 충분한 햇빛,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깨끗한 토양 등 우리가 살아가는 주위 환경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환경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3 화

미래의 K-Pop 스타




당신도 세계를 흔드는 한류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재능과 끼가 넘치는 당신! 당장 K-월드 스타오디션에 도전하세요!!


뚤아, 이거 어때?


뭐가? 나보다 못생겼네.
여자애들은 왜 저런 녀석을 좋아하나 몰라.
근거 없는 자신감


우웩! 저 왕자병!
아이돌 얼굴 말고 K-월드 스타 오디션에 대해 묻는거야.
오디션?
우웩


진서랑 나랑 K-월드 스타오디션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두 명으로는 임팩트가 모자란 것 같아.
호잇
똘이 너도 한 춤 하잖아. 같이 나가자. TV에도 출연할 수 있어.
호잇


거절하겠어. 내 꿈은 판사야. 할 일이 많다고.
오옷~ 단호박처럼 단호한데?


우승 상금 3억!


오케이 콜!
헉?
탁


똘아! 판사의 꿈은 어쩌고?
바로미, 판사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 안 나?


판사가 되기 위해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셨어.
엥?
왜 저래?
오디션 역시 훌륭한 판사가 되기 위한 경험이 될 거야.
3억
쳇! 돈에 눈이 멀었구만.
재 지금 누구랑 얘기하냐?
몰라!
또, 똘아…
어!
아, 괜찮아. 잠시 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어.
너 괜찮아?
쯧! 둘러대긴…
그보다 우리 팀 이름은 뭘로 할까?


「진서와 상남자들」을 줄여서 「진상들」 어때?
그것보다 「똘이와 아이들」을 줄여서 「똘아이들」이라 하자.
나리야.
어? 여기 있었네.


똘이 좀 봐.
무슨 일 있어? 굉장히 진지해 보이는데…


쟤네들과 함께 TV에 나오는 가수 오디션을 볼 거래…


똘이가 춤은 잘 추지만 노래는 영 아닌데…
크크, 그치? 말도 안 되지?


그래도 잘 생겼으니깐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못말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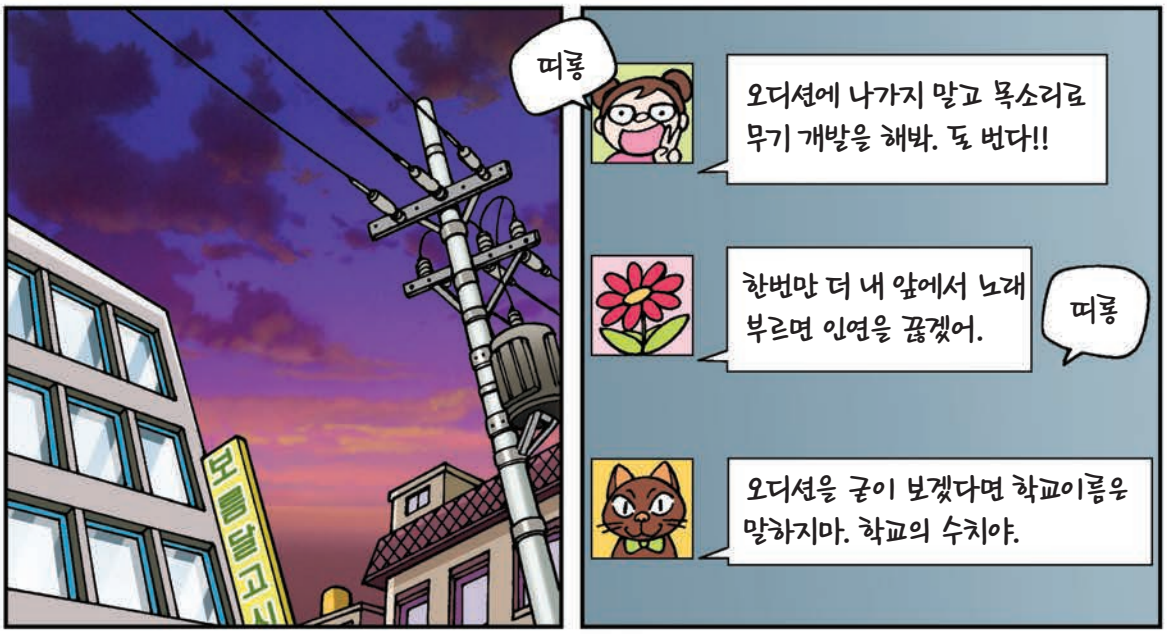

진서랑 규홍이, 똘이가 학교 뒤 공터에서 연습한대.
어서 가보자!
오디션에 통과하려면 시선을 끌어야 해.
인기아이돌 '남자친구'의 노래를 부르자!
난 그 팀 느끼해서 싫은데.
남자친구 노래가 제일 부르기 쉬워.
야, 얼른들 시작해라.
오... 규홍이 좀 멋진데.
진짜 기대된다.
진서 네가 리드 보컬, 규홍이가 랩을 맡는 게 좋겠어.
난 현란하게 춤을 추다가 가끔씩 화음을 넣을게.
좋아!
쟤들 뭔가 좀 아는 것 같은데?
오디션에 나갈 정도니 숨은 실력이 있겠지.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해 보자.
O·K
one
two
one two three four
스타트!
바로의 사랑의 랩신청이
YO YO YO
후욱


끼아!
으아아!
만신창이
Yo
만신창이!
Yo
더는 못 듣겠다.
나리야, 나도 못 참아.
내 고막이 만신창이가 될 것 같아.


우리 노래가 진짜 감동적인가 봐.
모두 눈물을 흘리며 벅차 하는 걸.
나리야, 그래도 넌 남아 주었구나.
우리 노래 어땠어?
어? 나, 나리야. 왜 그래?
나리야! 정신 차려!
으음...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나리야, 우리 노래 어땠어?
오디션에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아... 얘들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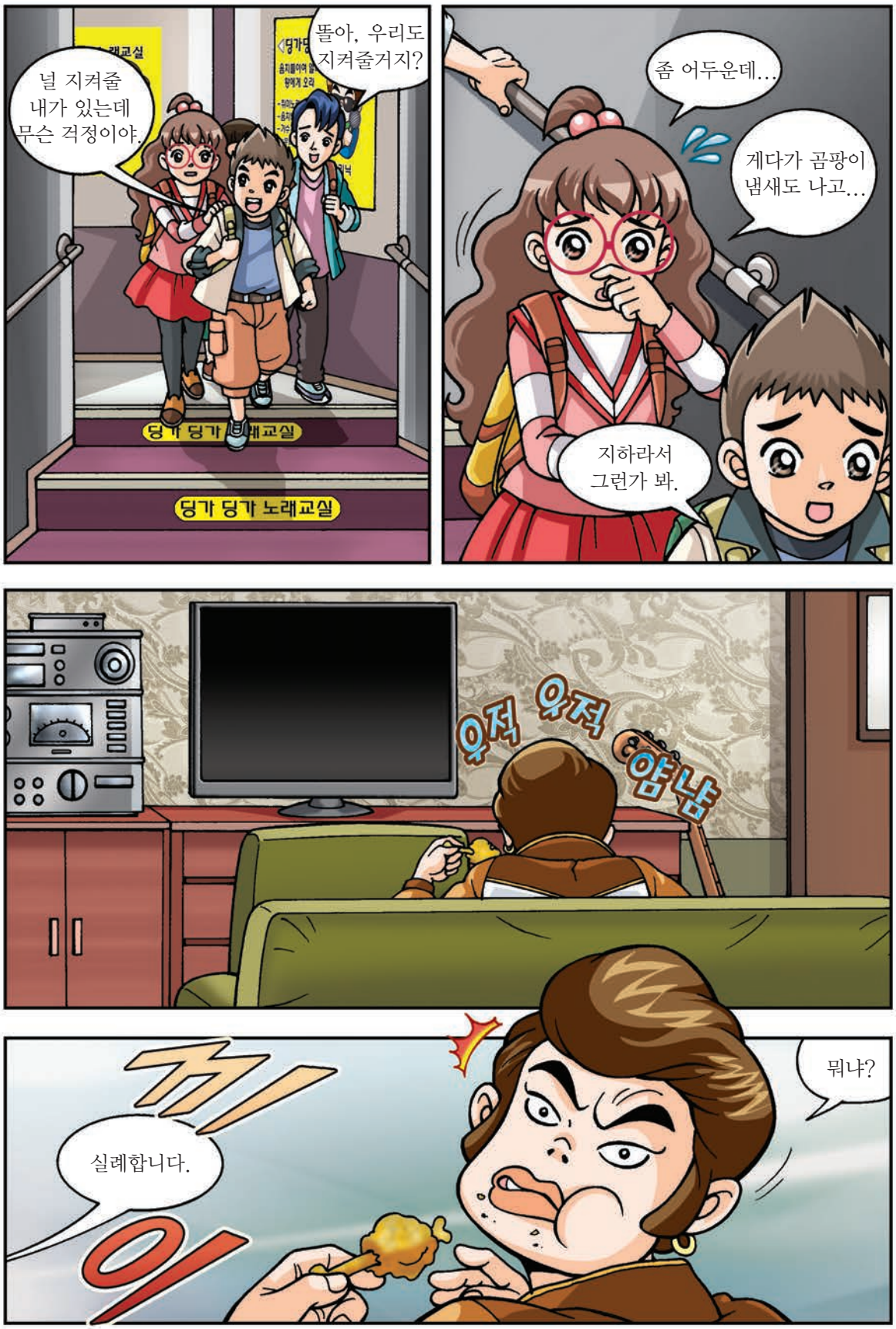

너희들이 돌고래야?
왜 초음파를
쏘고 그래?
노래를 불러!
노래를!!
초, 초음파?
쩌~억!
얘들아, 미안해.
머리가 아파서 나도
모르게 진담을…
진담!
쩍!
그, 그게 그러니까
개성이 넘치는
인상적인
공연이었다고
할까… 아무튼
그랬어.


띠롱
오디션에 나가지 말고 목소리로 무기 개발을 해봐. 도 번다!!
한번만 더 내 앞에서 노래 부르면 인연을 끊겠어.
띠롱
오디션을 굳이 보겠다면 학교이름은 말하지마. 학교의 수치야.


우리 실력이 끔찍했나 봐. 톡방 좀 봐.
난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야. 결과를 받아들여. 우린 음치야.
띠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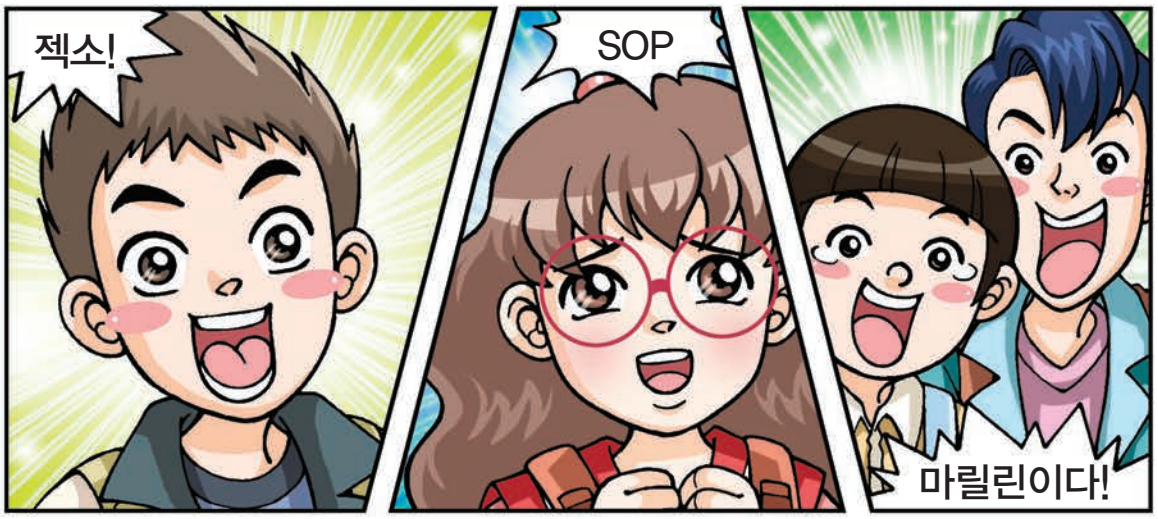

천사표 나리마저 아찔하게 할 정도의
소름끼치는 음치라고.
미, 미안 하다니까.


그럼 오디션은?
포기하기엔 내 외모와 춤이 아깝긴 한데...
끔적
끔적
우와! 애들아, 저기 봐.
◁딩가딩가 노래교실
음치들이여 엘비스 황에게 오라
-취미노래 교실
-음치박치 교정
-가수지망생 실전연습
<무료 상담 대환영>
★음치 교정 전문 클리닉
혹시 우리도 교정할 수 있을까?
음치 교정 전문이래.
우리 동네에 이런 곳도 있었나?
여기 무료 상담도 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 들어가서 구경해 볼까?
난 좀... 별로인데.
괜찮아. 간판까지 번듯하게 걸고 있는데 설마 이상한 곳이겠어?


넬 지켜줄 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똘아, 우리도 지켜줄거지?
딩가 딩가 노래교실
좀 어두운데…
게다가 곰팡이 냄새도 나고…
지하라서 그런가 봐.
우적 우적 얌냠
실례합니다.
뭐냐?


저... 음치 교정에 대해 상담 좀 하러 왔는데요.
교정전문
손님!!
후
닥
닥
잘 찾아왔다! 난 엘비스황! 어떤 목소리도 비단결로 만들어 준단다.
잘못 찾아온 거 아냐?
저 사람 이상해...
??
못 믿겠나본데. 내 손을 거쳐간 가수들이 한 두명이 아니란다.
저길 보렴.


어?
남자친구다!
대박!


젝소!
SOP
마릴린이다!


미모언니도 아저씨에게 배운거에요?
SOP의 신미모 말이지. 나랑 진짜 친하지.
어쩜, 그래요? 미모언니가 제 사촌 언니거든요. 제 이름은 신나리, 언니는 신미모.
그, 그, 그랬니? 그러고 보니 둘이 좀 닮은것 같구나.


호호... 미모언니에 비하면 전 하늘과 땅 차이죠.
엉터리가 아닐까 의심했는데 진짜 전문가인것 같아.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을 많이 알다니...
저희가 얼마 후에 있을 K-월드 스타 오디션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혹시 저희들을 오디션에 붙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우리 노래교실에는 가수 지망생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도 있단다.
우선 너희들 목소릴 들어볼까?
헉!
자, 잠깐만요. 휴지 좀 쓸게요.
어? 그래. 화장실은 2층에 있다.


미안 똘...
화장실 가는 게 아니었나?
저기, 노래는 저희 셋이 하거든요.
오! 그래 어디 들어 보자.
멋지게 하자.
원 투 쓰리 포!
아...아주...
털썩


임팩트가 강하고 센세이션하며 어메이징하구나.
칭찬이시죠?
그, 그래...
조언하자면 목소리에 힘이 넘치는 건 좋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톤으로 부르는 건 좋지 않아.
노래를 부르는 데에만 몰입해 자기 음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음정이 들쑥날쑥해. 박자도 안맞고.
한마디로 음치 박치라는 거네.
?
자, 내가 부르는 걸 보렴. 같은 노래가 얼마나 느낌이 다른지 알 수 있을게다.


나는야~
사랑에 가슴이
정신까지
구급차를
사랑의 만신창이
화르륵 화르륵
오락가락
불러주오~~
어머, 정말 감동이에요.
사랑의 만신창이가 이런 노래였구나.
아저씨! 아니 선생님! 당장 등록하겠습니다.
저희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핫하하! 환영한다 제자들아.
척
교육 수강 신청서
어서 신청서에 사인하거라. 수강료는 20만 원이다.
아!
맞다!
돈!
엥? 설마 나같은 전문가에게 공짜로 가르침을 받으려 한거냐?
그게 아니라 미처 생각을 못해서…
자, 잠깐만요.




야, 너희들 20만 원 있어?
초등학생한테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어?


하아... 이제까지 모아둔 용돈을 합치면
15만 원은 마련할 수 있긴 한데 나머지 5만 원이 문제로다.
끌적
끌적
푸


돼지 저금통을 깨고 이것저것 게임 아이템을 팔면...
장난감 사려고 모아둔 돈도 있고... 누나에게 매달려서 좀 빌리면...
띠
띠딕


안돼. 안돼. 20만 원은 역시 무리야.
아무리 생각해도 돈 나올 구멍이 없어.


헛흠흠! 좋다.


원래는 20만 원이지만 초등학생이니 내가 크게 인심쓰마.
5만 원 깎아서 한 사람당 15만 원 어떠냐?
15만 원이요?
우와아 신난다!
너희들이 기뻐하니 나도 기쁘구나.
감사 합니다.
꼭 마련해 올게요.
15만 원도 큰 돈인데 부모님께 말씀 드려야 하지 않을까?
절대로 안돼!
부모님께서 아시면 무조건 반대하실 게 틀림없어.
난 부모님을 깜짝 놀라게 해 드리고 싶어.
난 너희들의 의견을 100% 존중한다.
초등학생이면 다 컸지. 암! 너희들의 미래는 너희가 스스로 결정해야 해.


그럼 등록 신청할 때 부모님을 모셔오지 않아도 돼요?
부모님이 오시지 않아도 아무 문제없다.
!
그런데 넌... 나리라 했지? 너는 등록 안 할 거니?
네. 전 그냥 친구들을 따라온 거예요.
Oh-No!! 너처럼 예쁜 애가 아이돌이 되지 않는 것은 죄야. 미모를 낭비한 죄!
네 목소릴 들어보니 딱 느낌이 오는구나! 넌 스타의 자질이 있어.
한 번 상상해 보렴.
네?


나의 트레이닝을 받고 얼굴도 노래도 완벽해진 네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의 스타가 되는 모습을!!
어머머!!


관심없어요. 제 꿈은 아이돌이 아닌걸요.
크윽, 단호하구나.


뭐?


부모님 동의도 없이 학원에 덜컥 등록했다구?
따닥
따닥
쉿!! 엄마, 아빠 들으시겠어.



TIP 미성년자의 계약

만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들은 부모님 또는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동의를 얻지 않고 맺은 계약은 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어서 권리만을 얻게해 주거나 의무를 면하게 해주는 계약은 미성년자 혼자서도 맺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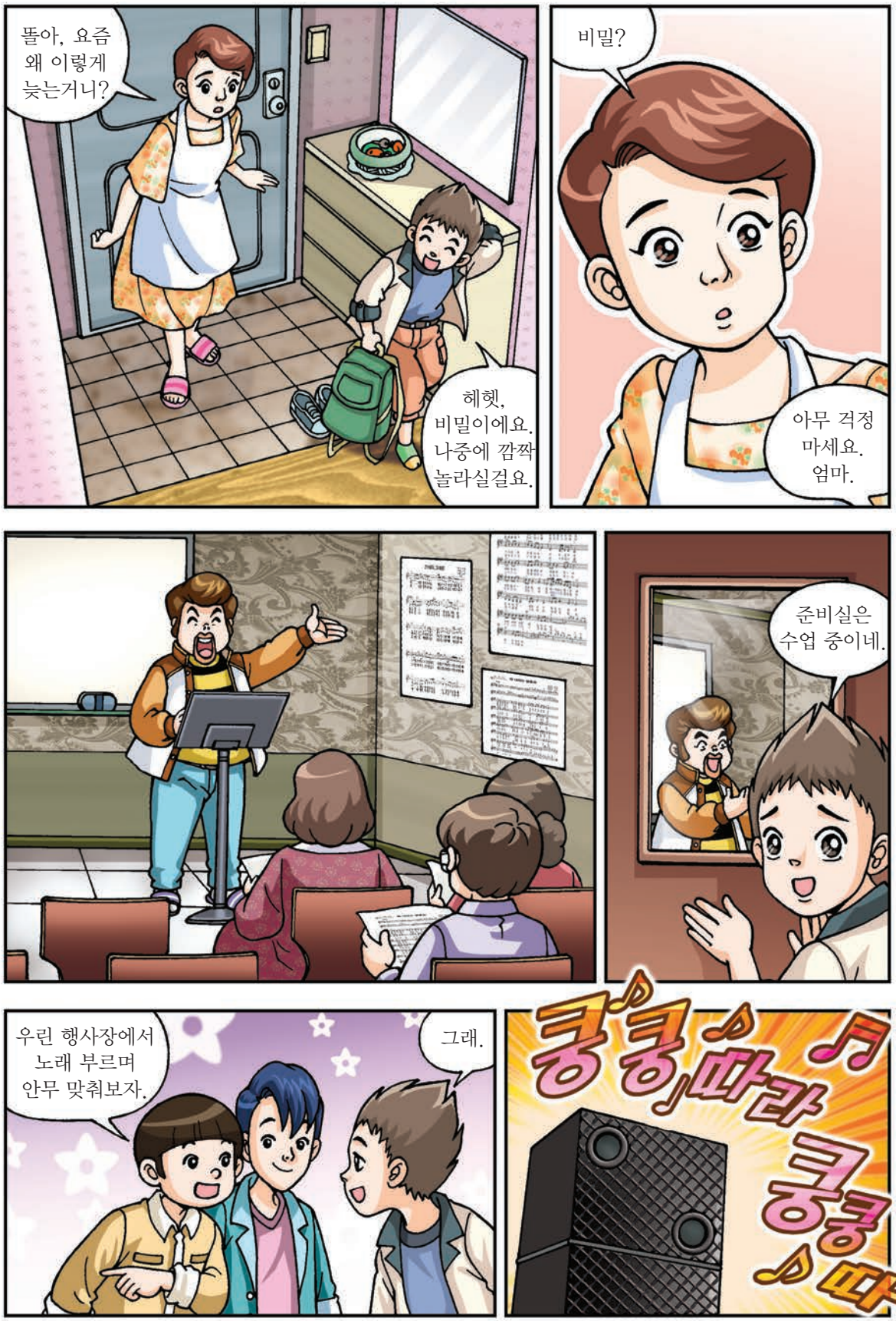
[민법 제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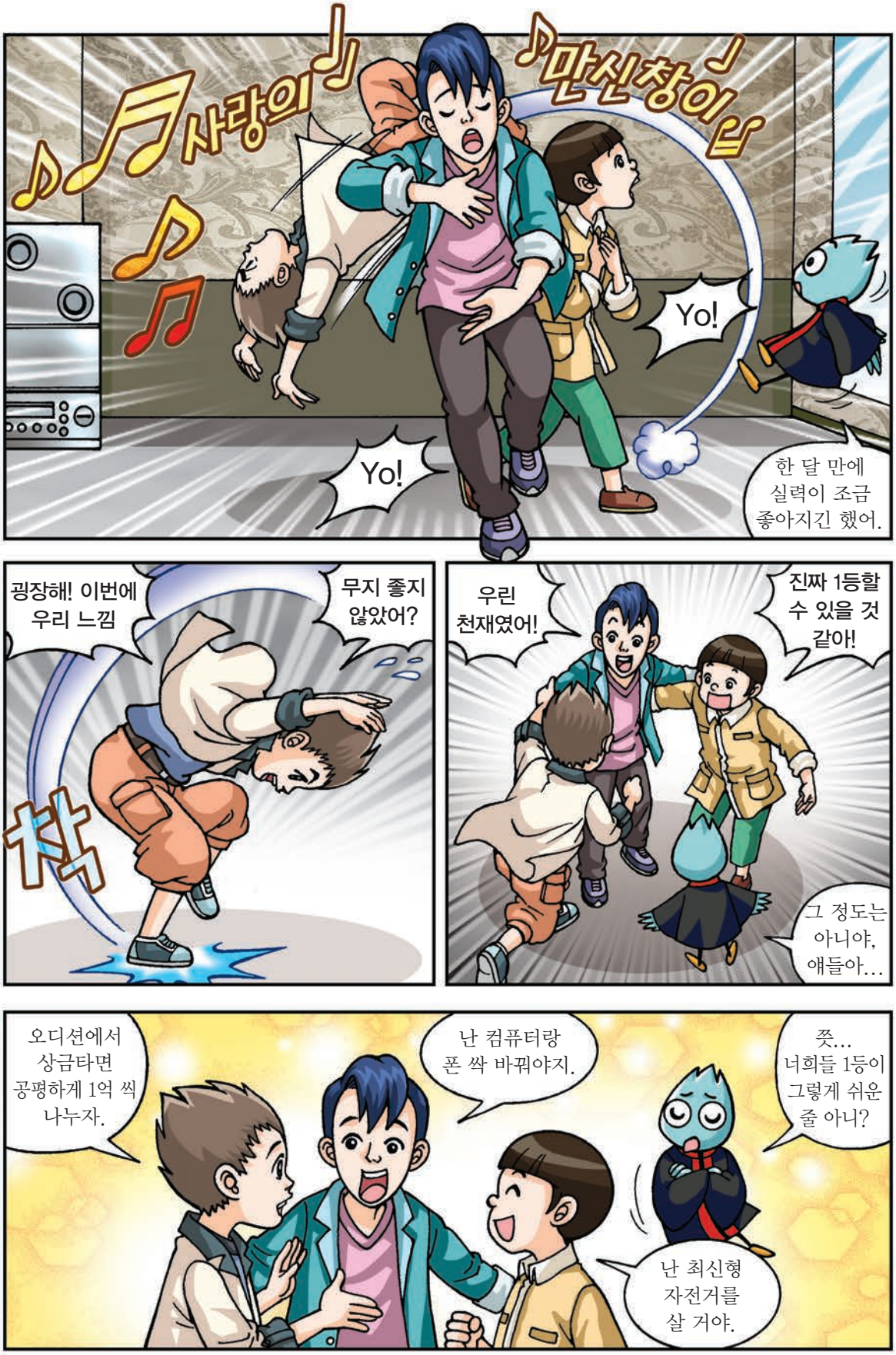

그 학원 도저히 믿음이 안 가! 내일 가지마! 취소해.
그래도 선생님 실력은 확실했어!
게다가 수강료도 깎아주시고 좋은 분 같았다구.
나보고 재능있다고 칭찬해 주셨는 걸? 목소리가 매력적이랬어.
100% 거짓말이야! 얼마나 끔찍했는데.
뭐? 끔찍?!
아차!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바로미 네가 뭐라 하든 난 내 결정을 믿겠어. 내일부터 배울거야.
소 귀에 경 읽기구나. 아무리 귀가 괴로워도
똘이 곁을 떠나는 게 아니었는데 내 탓이야! 내 탓!


딩가 딩가
노래교실
☆지하
후후... 한 사람에 15만 원씩.
합해서 45만 원 정확하군.
착
착
자!
우리 노래교실의 학생이 된 것을 환영한다.
앗싸!
이곳엔 녹음실, 음악 준비실 등 전문 시설이 갖추어져있지.
일주일에 3일 월, 수, 금요일 1시간씩 수업을 진행할 거야.
여유시간엔 비는 방에서 연습해도 좋아. 단, 다른 수강생들의 수업에 방해가 되어선 안돼.


자! 그럼 죽을 각오로 트레이닝을 시작해볼까?
네! 원장님!
똘이라고 했지? 너부터 내가 치는 음을 듣고 따라서 소리를 내 봐라.
테스트니까 긴장하지 말고 자...
띠잉
요오오또
꽈
당
정확한 발음도 중요하다. 모두 내 말을 따라해라.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네가 그린 기린 그림보다 더 잘 그린 기린 그림이다.
크게!
내..내가..그린 기..기..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네가 그린
기린... 기린...
뚝!
그 다음이 뭐더라?
목이 아니라 복근의 힘으로 노래를 불러야 한다.
배에 힘을 키우기 위해 모두 엎드려 뻗쳐!
딩가 딩가
노래교
하나!
둘!
셋!
넷!
낑~
끙~ 아이구 난 더는 못해.
꽥!
다녀왔습니다.
세상에... 이 땀 냄새!


똘아, 요즘 왜 이렇게 늦는거니?
헤헷, 비밀이에요. 나중에 깜짝 놀라실걸요.
비밀?
아무 걱정 마세요. 엄마.
준비실은 수업 중이네.
우린 행사장에서 노래 부르며 안무 맞춰보자.
그래.
쿵쿵따라 쿵쿵따


♪사랑의♪ ♪만신창이♪
Yo!
Yo!
한 달 만에 실력이 조금 좋아지긴 했어.
굉장해! 이번에 우리 느낌
무지 좋지 않았어?
찰칵
우린 천재였어!
진짜 1등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정도는 아니야, 얘들아...
오디션에서 상금타면 공평하게 1억 씩 나누자.
난 컴퓨터랑 폰 싹 바꿔야지.
쯧... 너희들 1등이 그렇게 쉬운 줄 아니?
난 최신형 자전거를 살 거야.


난 반은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반은 결혼자금으로 저축해 둘거야.
역시 똘이는 어른스러워.
김칫국을 거하게 마시는 구나.
오~ 마침 연습이 끝났나 보구나.
너희들에게 중요한 할 말이 있단다.
원장님.
우리 노래교실에 온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지.
나날이 성장하는 너흴 보면 뿌듯하단다.
뿌듯 뿌듯
아싸!
그런데 이번 달 수강료는 언제 가져올 거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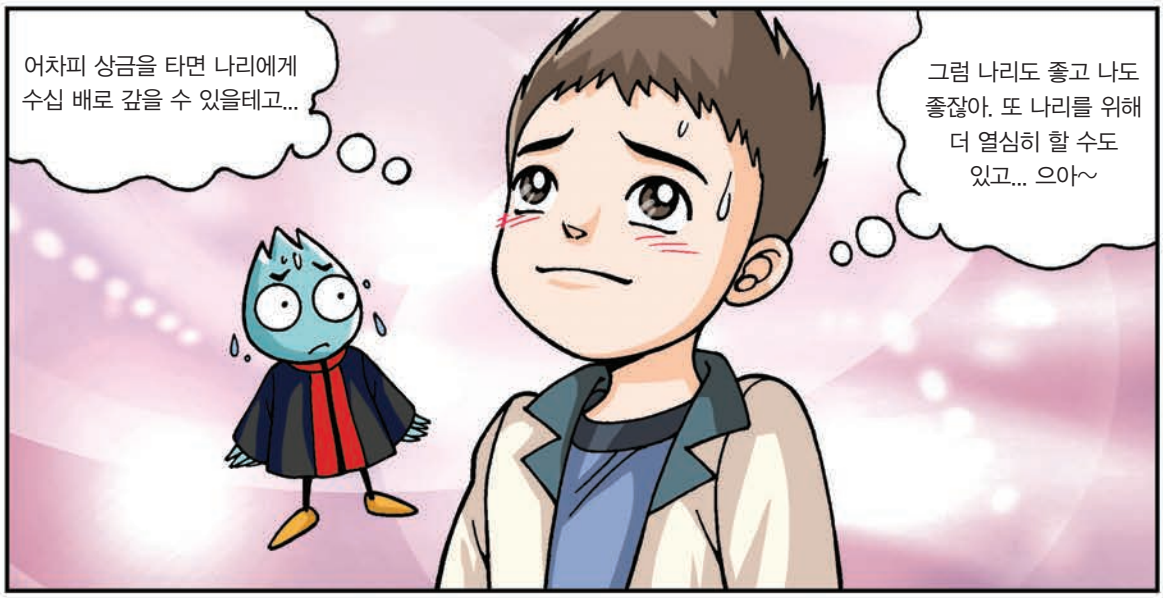

맞다.
깜빡했네.
지난 달은 처음이라 깎아 줬지만
이번 달은 확실히 20만 원씩 다 내야 한다. 알았지?
저... 원장님 혹시 수강료를 당장 내지 못하면...
당장 우리 노래교실에서 나가야지.
뜨헉!
그럼 안타깝지만 너희들이 오디션에 붙을 가능성은 완벽하게 사라지고 말거야.
형편없는 솜씨로 오디션장에서 망신을 당한 뒤 너희는 눈물, 콧물 흘리며 후회하겠지.
'20만 원만 있었으면 스타가 될 수 있었는데...' 하고 말이다.


아~ 어떡하지. 한 달만 더 다니면
가요계의 큰 별이 될 수 있을것 같은데.
똘아, 원장님은 무책임하게 네가 듣기에 좋은 말만 하고 있어.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봐.
바로미, 네가 날 위해 걱정하고 있는건 알고 있어. 고마워.
하지만 난 어느 때보다 자신있어. 믿어줘.
아아... 이 일을 어쩐다...
빙글
네가 그렇게 자신한다면 내가 수강료 빌려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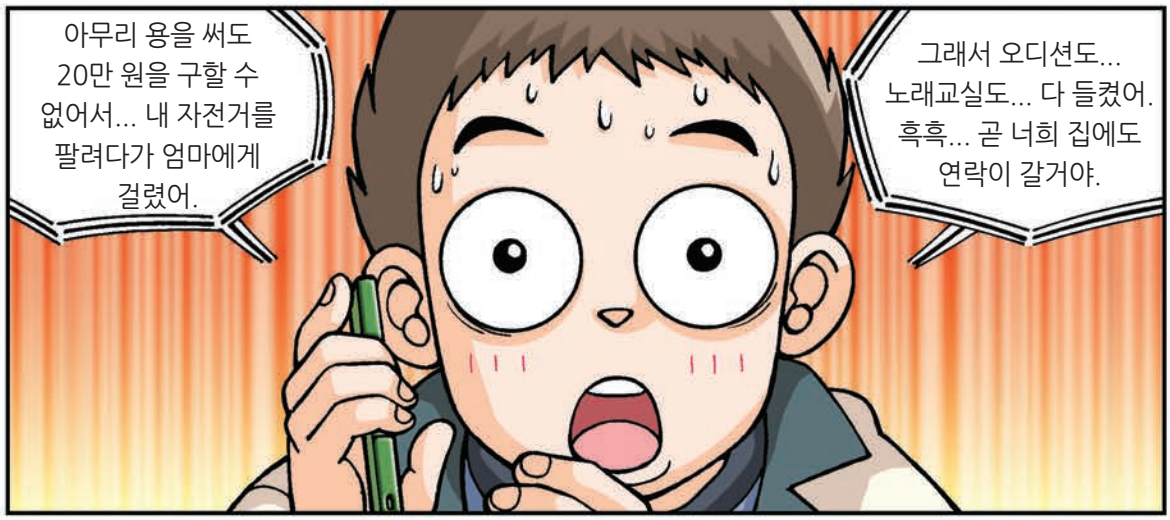

정말? 너에게 그렇게 큰 돈이 있었어?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 있어.
나중에 내 힘으로 대학교에 가고 싶었거든.
나리야, 너까지 왜 그래?


하지만 꼭 필요하다면 빌려줄게.


미래의 꿈이 담긴 돈을 선뜻 빌려 주겠다고...
?


어차피 상금을 타면 나리에게 수십 배로 갚을 수 있을테고...
그럼 나리도 좋고 나도 좋잖아. 또 나리를 위해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으아~


하아... 고맙지만 거절할게.
왜? 난 괜찮은데.
벨렐렐레
내가 안 괜찮아.
규홍아, 왜?
흑흑... 똘아 미안해. 내가 다 망쳤어.
훌쩍
훌쩍
망치다니 뭘?
?
그보다 왜 울고 있어?


아무리 용을 써도 20만 원을 구할 수 없어서... 내 자전거를 팔려다가 엄마에게 걸렸어.
그래서 오디션도... 노래교실도... 다 들켰어. 흑흑... 곧 너희 집에도 연락이 갈거야.


과지지직
그날 밤 똘이네 동네에 세 번의 번개가 내리쳤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진서네 집
쾅
엄마한테 말도 없이 그런 짓을 해?
엄마! 한 번만...
규홍이네 집
잘못했어요!
쾅
당장 말해! 그곳이 어디야?!
그리고 똘이네 집
쾅
똘아, 병원에 가서 간검사 좀 하자.
네 간이 심하게 부은 것 같구나.


노래교실
☆지하
딸칵
띳
어서오세요, 어머님들.
음
딩가딩가 노래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음치를 교정하러 오셨나요? 아니면 취미 노래교실?
아! 어머님들의 빛나는 미모를 보니 혹시 가수 지망생?
저희는 이 학원을 다니고 있는 진서, 규홍, 똘이의 엄마입니다.


아~ 그러세요?
초등학생들을 부모 동의도 없이 학원에 등록시키셨더군요.
무슨 말씀! 오해십니다.
골치 아픈 예감...
전 확실하게 부모님을 모시고 와 동의를 받은 후에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후비 후비
아이들이 워낙 막무가내라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 마세요. 아이들에게 자세한 이야기는 다 들었어요.
톱스타들을 아신다면서요? 신미모도 잘 알고요!
알아보니 신미모는 댁을 모른다고 하더군요!
자격증이나 공식적인 경력은 있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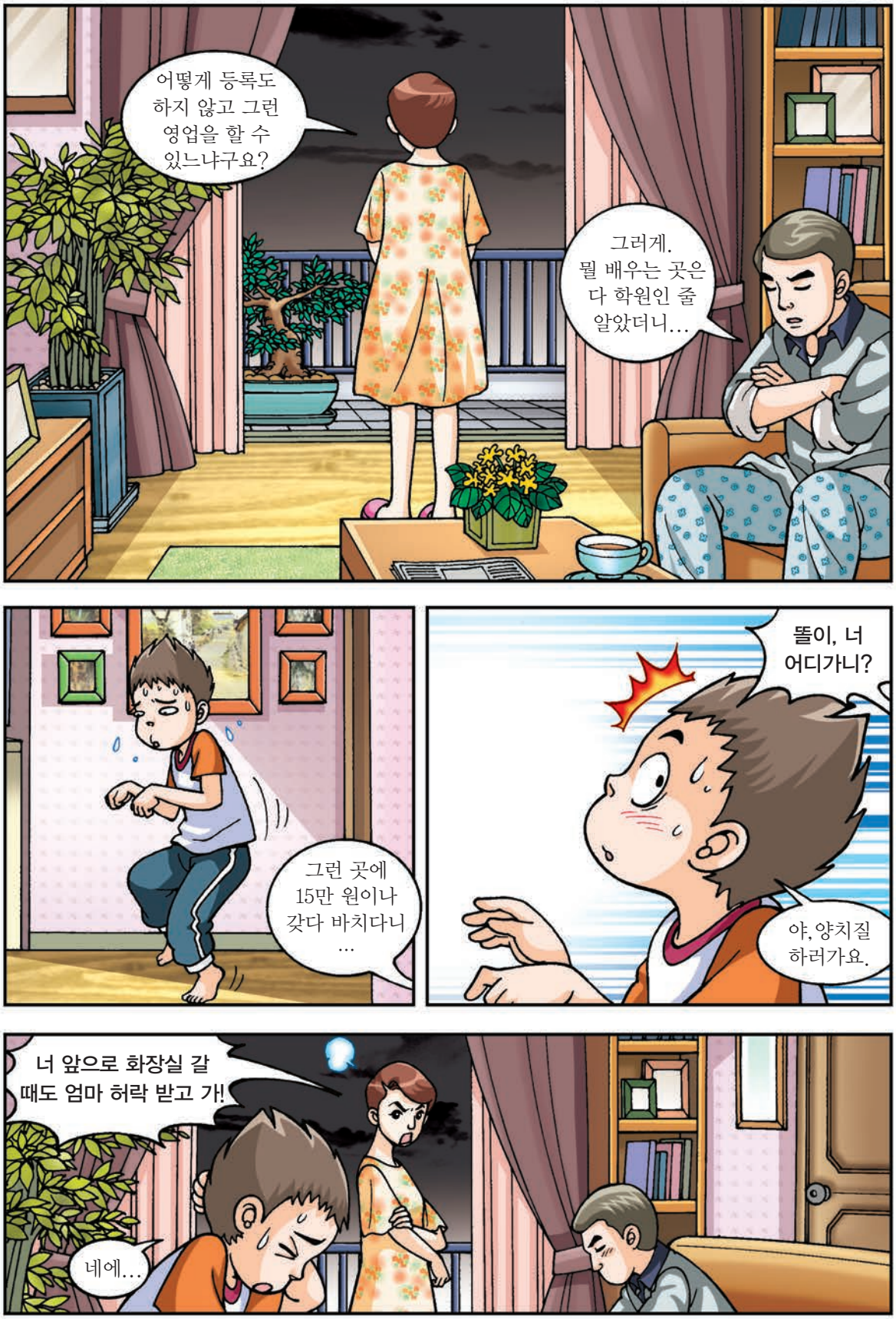

게다가 시설이 모두 허술하군요.
조명도 어둡고 환기도 안되고.
보아하니 소방 시설도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네요.
아~ 따박따박 엄청 따지시네.
그래서 어쩌라구요? 아이들 그냥 보내지 마세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짜증나네 진짜.
어머머... 적반하장 이시네...
거참! 보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드릴 말이 없으니 나가들 주세요.


우린 아이들이 어떤 곳에서 한 달간 지냈는지 단순히 확인해보고자 왔을 뿐이었습니다만...
선생님의 자격도 불분명하고 시설 수준도 매우 불량해 보이는 군요.
학원법 위반으로 이 학원을 교육청에 신고하겠어요.
크하하하! 학원법 위반? 마음대로 해보세요!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
아니,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인 줄 아는가 본데 진짜로 신고할 거예요.
톡톡톡
하세요.
여보세요? 교육청이죠?
대체 뭘 믿고 저토록 당당한 거지?


훗!
그게 정말인가요?
네?!
진서 엄마 왜 그래요?
교육청에서 뭐래요?
그, 그게.
참칵
딩가딩가 노래 교실은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뭐라고요? 그럼 여긴 등록도 안된 불법 학원인 거에요?
시설도 엉망인데다가 무등록이라니 더 할 말이 없군요.
당장 학원비 전액을 환불해 주세요!
어머님들 들어오시면서 간판 못 보셨어요?
여긴 학원이 아니라 노래 교실입니다.


학원이나 노래 교실이나 그게 그거잖아요!
엄연히 다르지요, 무식하시긴.
무, 무식?!
아니, 저 사람이...
학원법에서 말하는 학원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
학원은 10명 이상의 학생에게 30일 이상 지식, 기술, 예능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기술이나 예능에 관련된 교습과정엔 국악, 무용, 실용음악, 성악 등이 포함되어 있지요.
하 · 지 · 만!


저희 노래 교실에서 하는 음치 교정이나 가요 연습은
학원법에서 말하는 교습과목이랑 전혀 상관이 없지요.
따라서 이 곳은 학원이 아니니 학원법을 어겼다고 할 수 없고, 환불 또한 해 드릴 수 없습니다.
신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법을 이렇게 모르셔서야 원...
볼 일 끝났으면 어서 나가주세요.
따지자면 이것도 영업방해가 되니까요.
!?
분하다!
분한데 반박할 말이 없으니...
정말 속상해서 못 살겠어요.


어떻게 등록도 하지 않고 그런 영업을 할 수 있느냐구요?
그러게. 뭘 배우는 곳은 다 학원인 줄 알았더니…
그런 곳에 15만 원이나 갖다 바치다니…
똘이, 너 어디가니?
야, 양치질 하러가요.
너 앞으로 화장실 갈 때도 엄마 허락 받고 가!
네에…


그 노래교실 신고하려 해도
학원법이 그렇다는데 어쩌겠어…
내가 다닌 곳이 학원이 아니었다니 충격이야.
학원법이 대체 뭐길래?
학원법은 말 그대로 학원에 대한 법이야.
학원의 설립, 운영 혹은 과외 교습 등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해두었지.
그런 법이 굳이 필요해?
당연하지. 법이 없다면 아무 곳에서 학원을 차린다든지
학원비를 마음대로 정한다거나 범죄자를 고용한다든지 또,
시설이 낡거나 위험해도 막을 수가 없을 것 아니야.
… 그래도 노래교실은 학원이 아니라니 원장님이 어떤 부당한 일을 해도 막을 수가 없잖아.


글쎄, 난 노래 교실이 학원이다 아니다를
원장이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해.
?
치카
치카
학원법에서 정한 교습과정과 비슷해도 학원에 해당한다고 보거든.
아구아구 아구구! (번역: 좀 더 쉽게 말해봐.)
성악을 가르치려면 학원으로 등록해야 하거든. 음치교정도 넓게 보면
성악 교습과 비슷하니 학원으로 등록되어야 하지 않을까?
법률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것은 법원에서 가릴 수 있을텐데…
삭
이 사실을 엄마 아빠께 알려야 해!
똘아?
아부 아부 아부부부부!
까악!


똘이와 진서, 규홍이네 부모님은 상의 끝에 노래교실 원장을 고소하였고,
검사는 노래교실 원장을 기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을 하면서 교육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학원을 운영하였으므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
제 의뢰인이 운영하는 노래교실은 음치를 교정하고 가수지망생들의 실전 연습을 하는 곳으로
등록해야 하는 학원이 아닙니다.
암~ 그렇고 말고...
법원
존경하는 재판장님 선처를 바랍니다.


피고인은 딩가딩가 노래교실이라는 상호로 전문시설을 갖추고 주부, 직장인들을 상대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수업횟수, 시간, 정원에 따라 책정된 수강료를 받아왔고 1인당 평균 수강료는 20만 원 정도인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일정한 시설, 설비를 갖추고
♪띠~잉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노래 등을 가르쳐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받아온 점,


피고인의 교습내용이 학원의 교습과정인 실용음악이나 성악에
♪만신창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노래교실은
등록을 해야 하는 학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거야?
변호사님!?
끔적
끔적
따라서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운영한 것이므로 그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앗싸!
아~ 통쾌해라.
뻔뻔하게 굴더니 우습게 됐네요.
역시 학원이 맞았구나.
다행이에요.
대박!


MiMi coffee shop
정말 원장이 오늘 순순히 사과할까요?


해야죠. 원장에게 큰 벌이 내려지진 못했지만 법원에서
잘잘못을 명확하게 가려 주었잖아요.
맞아요, 맞아.


앞으로는 우리 진서와 친구들도 좀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믿어도 되겠지?
네…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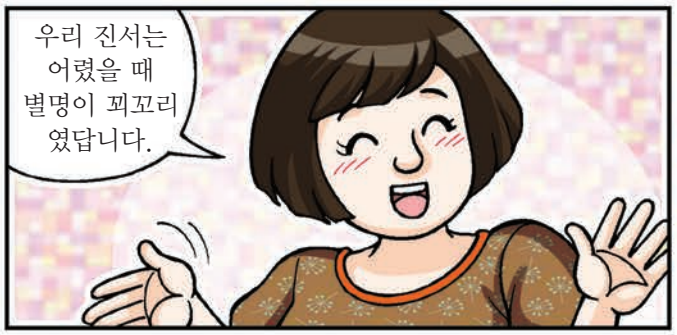

그나저나 이 녀석들! 오디션에 정말 나갈거야?
마음 같아선 절대 못 나가게 가둬두고 싶은데…


아~ 제발… 그것만은 안돼요.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했는데요.
저희를 믿고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니, 이 녀석들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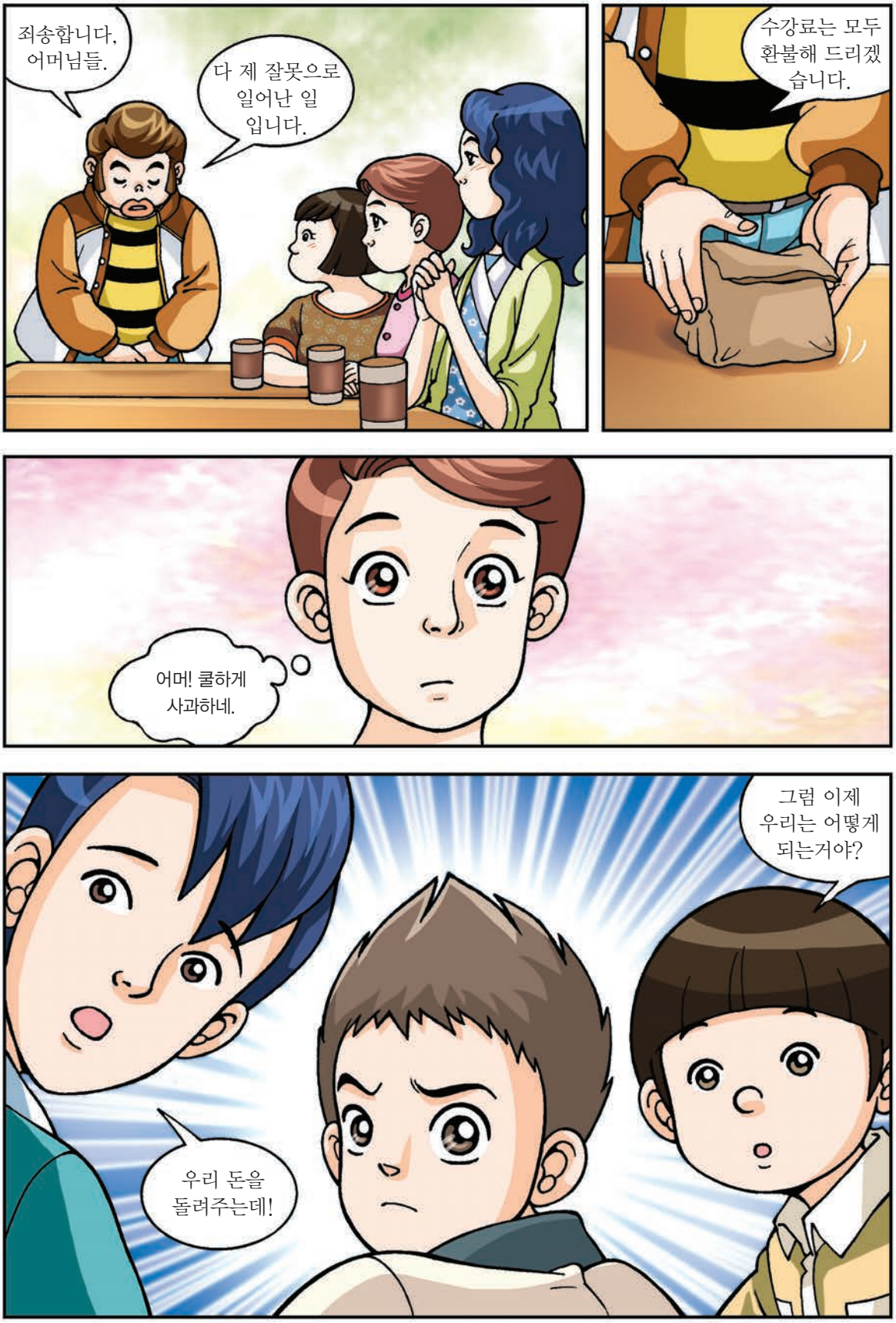

똘이 엄마. 애들을 한 번 믿어보면 어떨까요? 열심히 한 건 기특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사실 제가 처녀 적에 한 노래하긴 했었는데 규홍이가 절 닮았나 봐요.


우리 진서는 어렸을 때 별명이 꾀꼬리였답니다.


고민이군요. 우리 똘이는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 생겼는데다가 노래까지 잘하니…
졌다.
졌어.
으~ 부끄럽다.
우린 가자.


어머, 원장이 왔어요.
!
얘들아, 어른들 이야기하는 동안 옆 테이블에 가 있어.
네…


죄송합니다, 어머님들.
다 제 잘못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수강료는 모두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어머! 쿨하게 사과하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거야?
우리 돈을 돌려주는데!


앞으로도 노래교실을 계속 운영하시는 건가요?
네. 이번 기회에 법을 제대로 살펴보고 교육청에 정식 등록을 하려구요.
시설들을 완벽하게 보수하고 프로그램들도 보완할 예정입니다.


혹시 노래에 관심 있으시다면 부담 갖지 말고 찾아주세요.
어머님들은 절 개과천선하게 해주신 은인들이니 5만 원씩 깎아 드릴게요.


완전 딴사람처럼 태도가 공손해졌어.


이제 우리 오디션은 어떡해?
어쩔 수 없지. 우리끼리 연습해야지, 뭐.


전 바쁜 일이 있어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애들아, 가자.
네.


아! 어머님들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양심을 걸고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뭔데요?
이 아이들의 노래 실력은 제가 들어 본 것 중에 가장 끔찍합니다.
뭐라구요?
아이들을 가르친 뒤, 전 이비인후과에 고막 검사를 받으러 갔었지요.
인류 평화를 위해 아이들의 오디션을 막아주세요. 그럼 이만.



제3화 심화학습

미래의 K-Pop 스타

'딩가딩가 노래교실의 문제를 찾아라!'

* 어린이 여러분 '딩가딩가 노래교실'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법률을 읽고 딩가딩가 노래교실의 문제를 찾아보세요.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① 학원은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 · 관리되어야 해요.



② 학원은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시설과 같은 건물 안에서 운영되어서는 안 돼요.



③ 학원장은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 시설 · 설비 등의 사항을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해요.



④ 학습자가 수업을 계속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학원비를 돌려주어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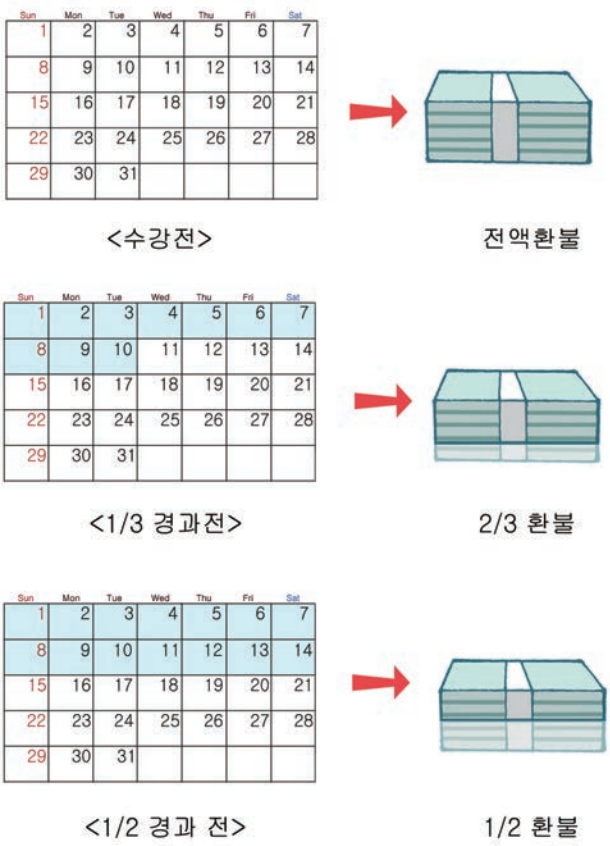
■ 학원비 환불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다니는 학원에 사정이 생겨 계속 다니지 못하게 된다면 학원비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을 받는 경우 수수료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학원에는 환불 수수료 규정이 없어서 환불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강의인 경우에는 학원과 달리 환불 수수료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환불은 신청 후 3일 이내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100% 환불' 이라는 현수막을 본적이 있지요? 단순 과장 광고일 수도 있으므로 속지 말아야 하며, 꼭 믿고 싶다면 학원장에게 직접 확인을 받거나 증거가 될 구체적인 환불 조건을 반드시 증거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개월분 수강료 환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3화 '미래의 K-pop 스타'의 내용은 대법원의 실제 판결에 근거한 이야기에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람이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고 학원을 운영하면서 수강료를 받으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OOO씨는 '△△노래교실'을 운영하며 주부, 직장인 5~8명을 대상으로 2~3개월 과정의 음치 클리닉을 지도하였어요. 한 사람당 월 200,000원의 수강료를 받으며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도 학원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며 등록도 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예능계열의 교습과정의 하나로 '음악'을 규정한 법률에 따라, 이 노래 교실도 엄연히 학원이므로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OOO씨에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4684 판결]

제4화

악플 좀 달면 안 되나?




당연히 있지. 냉장고에 있는 과일 네가 다 먹어도 돼.
하핫 고마워~
저기 나리야. 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응? 뭔데?
네가 아이돌 SOP 멤버 신미모의
사촌 여동생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야?
맞아, 사실이야
헐~대박! 웬일이니 진짜였구나.
얄미, 쟤는 왜 저렇게 호들갑이야?
내가 실은... 신미모 팬이거든! 궁금한 게 많아서 그런데 좀 물어봐도 돼?
어머, 미모 언니 팬?! 내가 아는 건 이야기 해줄게.


…
신미모 얼굴 자연산이야? 원래는 평범했는데.
성형수술 덕분에 초미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뭐?


야! 나리 얼굴 보면 감이 딱 안 와? 당연히 신미모도 천연 미인이지.
그으래.


그리고 사람 얼굴이 야채야? 생선이야? '자연산'이 뭐야?
뭐, 어때? 인터넷에선 흔하게 쓰는 말인데.


그렇게 궁금하면 팬미팅을 하지 그러냐?
그럼 신미모 성격은 어때? TV에서 보면 가녀리고, 여성스럽고, 무지 얌전하잖아.


미모 언니가 얌전해?
푸후


왜? 아니야?
휙
TV엔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도 실제로는 엄청 털털해. 와일드하다고나 할까...
어렸을 때 태권도를 배워서 힘도 세. 초등학교 때는 골목 대장이었지.
나를 따라라!
사고도 많이 쳤겠네?
응, 장난 꾸러기였지.
언니랑 신나게 놀다 보면 주변이 초토화 되곤 했지.
거울을 깬다거나 옷이 찢어지거나 해서 어른들께도 많이 혼났어.
어쩌면 소문이 사실인지도 모르겠네.


뭐야? 소문이라니?
아, 아냐.
대답해줘서 고마워. 그럼 내일 보자.
뭐래? 뭐래? 사실이래?
쉿! 들려.
느낌이 좀 이상해.
응.
처음부터 저 애는 나리에게서 뭔가 살피는 눈치였어.
질문 내용도 신미모의 팬답지 않았고.
신미모에 대해 무슨 소문이 돌고 있나 검색해 보자.









신미모 꺼져라

소문이 아니라 사실임. 신미모 중고딩 때 얼굴 믿고 엄청 나댔음.
돈 빼앗고 물건 훔치는 건 기본.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만만한 애들 골라서
따시킴 . 이건 레알트루 진짜임. 증거도 있음.

1시간 전 / 신고

남자친구짱

신미모 방송가에서도 인성 거지라고 유명해요. ㅉㅉ ㅉㅉ
걸핏하면 SOP 멤버도 때린대요. 아는 오빠가 진짜 봤다고 했어요.

1시간 전 / 신고

악한

소문이 아니라 진짜 아닌가? 그래서 침묵을 지키는 게 아닐까?

1시간 전 /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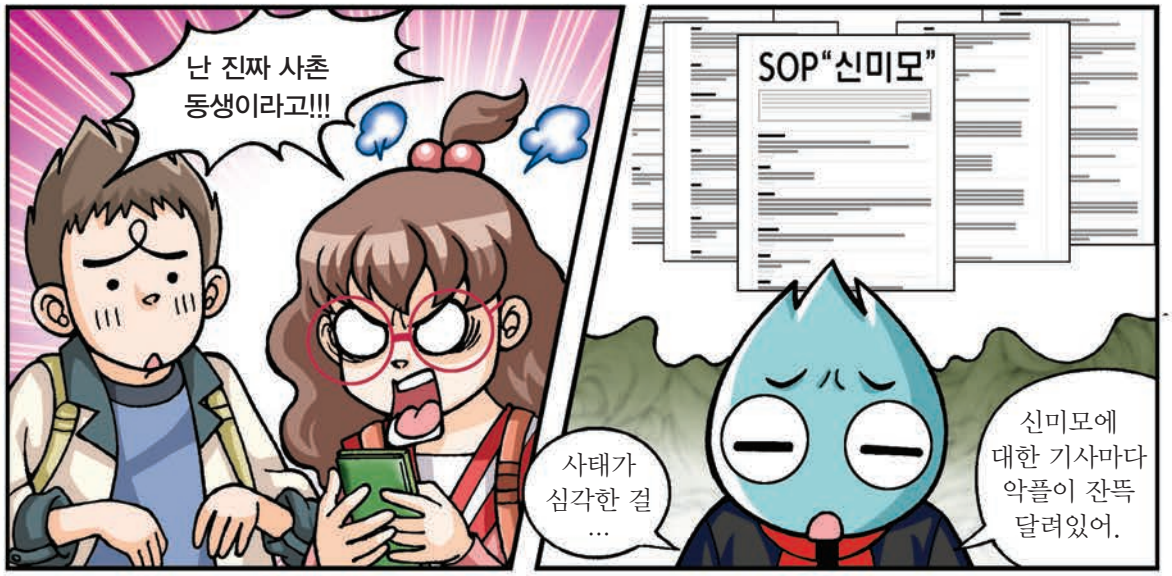


나리나리신나리

저는 미모언니의 사촌동생입니다.
모두들 근거도 없는 헛소문에 휘둘려 말씀을 심하게 하시네요.
미모언니는 절대 폭력을 휘두를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사 같은 사람입니다.
착하고 마음이 따뜻하여 어렸을 때부터 남을 잘 챙겼습니다.
지금도 바쁜 와중에 양로원에 종종 찾아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켜본 제가 보증합니다.







TIP 인터넷 명예훼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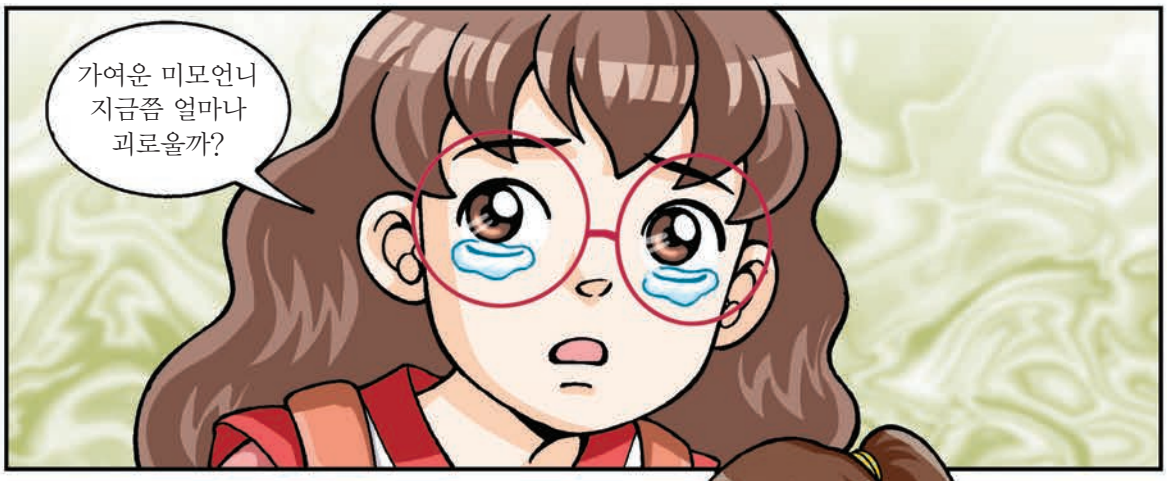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이버공간(인터넷 게시판, 카페, SNS 등)에서 사실 또는 거짓을 지적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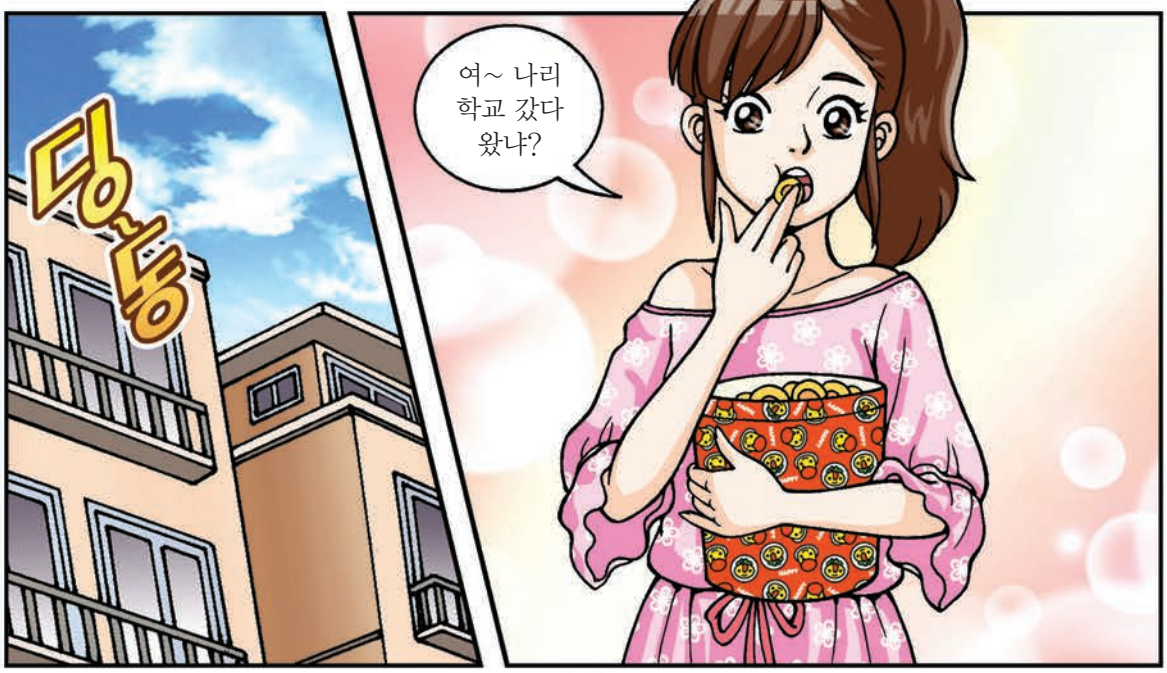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경우 등을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본다.

- 비방: 공개적으로 나쁘다고 말하거나 헐뜯는 행위
- 폭로: 부정이나 비밀과 관련하여 특정 사실 또는 거짓을 유포하는 행위
- 사생활 침해: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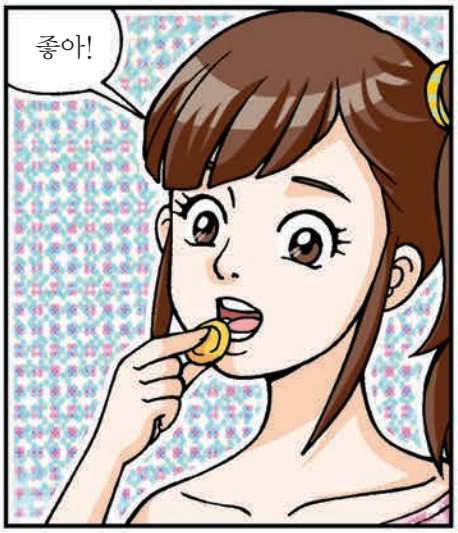

도대체 이런 악플들을 왜 쓰는 거지?
내가 봐도 불쾌한 글들이야.


가여운 미모언니 지금쯤 얼마나 괴로울까?


딩동
여~ 나리 학교 갔다 왔냐?


헉!
신미모다.
언니! 걱정했어.
우리 집엔
웬일이야?
숙소랑 부모님
댁에 기자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피난 왔어. 당분간
신세 좀 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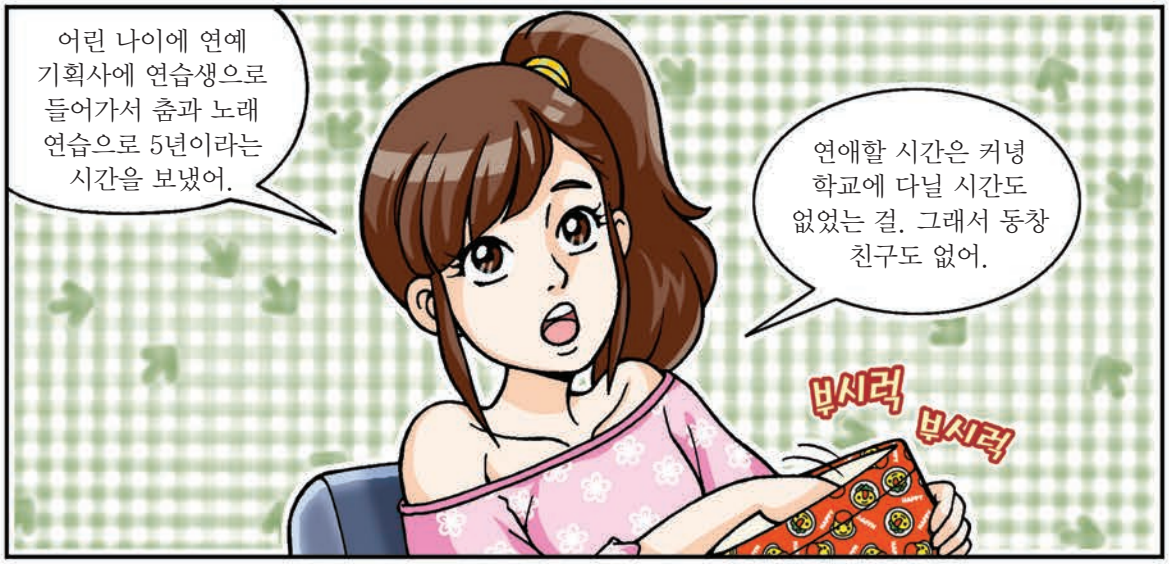

그리고
너!
내가 네 친구야? 아님
동생이야? 미모 누나라고
불러! 미모님이라
부르든지.
죄송합니다.
미모님!


좋아!


TV를 볼 때도
예쁘다고 생각했었는데
실물로 보니 100배는
더 이쁘시네요.
우와!
!


매일 듣는 말이긴
하지만 칭찬
고맙구나.
그런데
넌 나리
친구니?
네, 나리의
남자친구 한똘
이라 합니다.


남자친구는 무슨!! 그냥 친구야!
어머!
엥?
미모 누나, 나리가 갑자기 왜 화가 난 걸까요?
흐음... 나도 연애를 안 해봐서 제대로 된 조언을 해주지 못 하겠지만,
일단 여자친구 앞에서 다른 여자의 미모를 칭찬하는 건 큰 실수였다고 봐.
그렇군요,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누나처럼 예쁜 분이 어째서 연애를 못 해보신 거죠?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야! 안 한 거!
크악
네...에...


어린 나이에 연예 기획사에 연습생으로 들어가서 춤과 노래 연습으로 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
연애할 시간은 커녕 학교에 다닐 시간도 없었는 걸. 그래서 동창 친구도 없어.
부시럭
부시럭


하지만 덕분에 국민 여동생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인기와 명성을 얻었으니 아쉽지 않아.


학교도 거의 다니지 못한 미모 누나가 일진이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누나에 대해 조금만 알아봐도 일진설은 루머라는 것을 다들 알 텐데...


언니...
삭


나리야, 똘이 탓하지 마.
탓하려면 지나치게 예쁜 내 얼굴을 탓해.
그건 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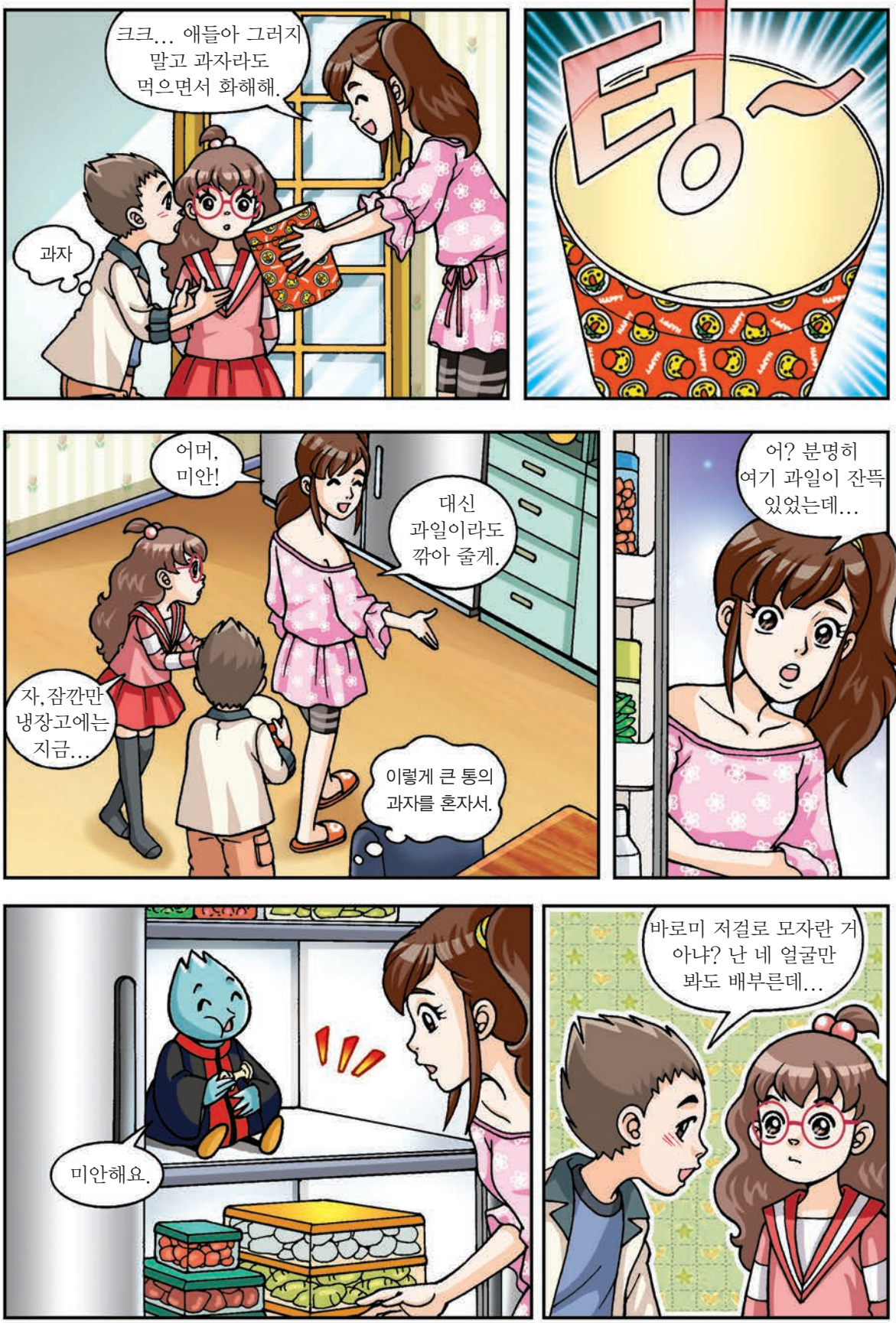

언니 기사에 달린 악플들을 읽었어, 괜찮아?
괜찮아, 인기가 워낙 높다 보니 헛소문도 돌고, 악플도 달리는 것뿐이야. 오호호호.


소문도 한때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사그라들겠지. 너무 걱정 마.
성격이 정말 털털하시구나. 다행이야.


아... 나리가 나한텐 아예 눈길도 안 주네.


저기... 나리야.
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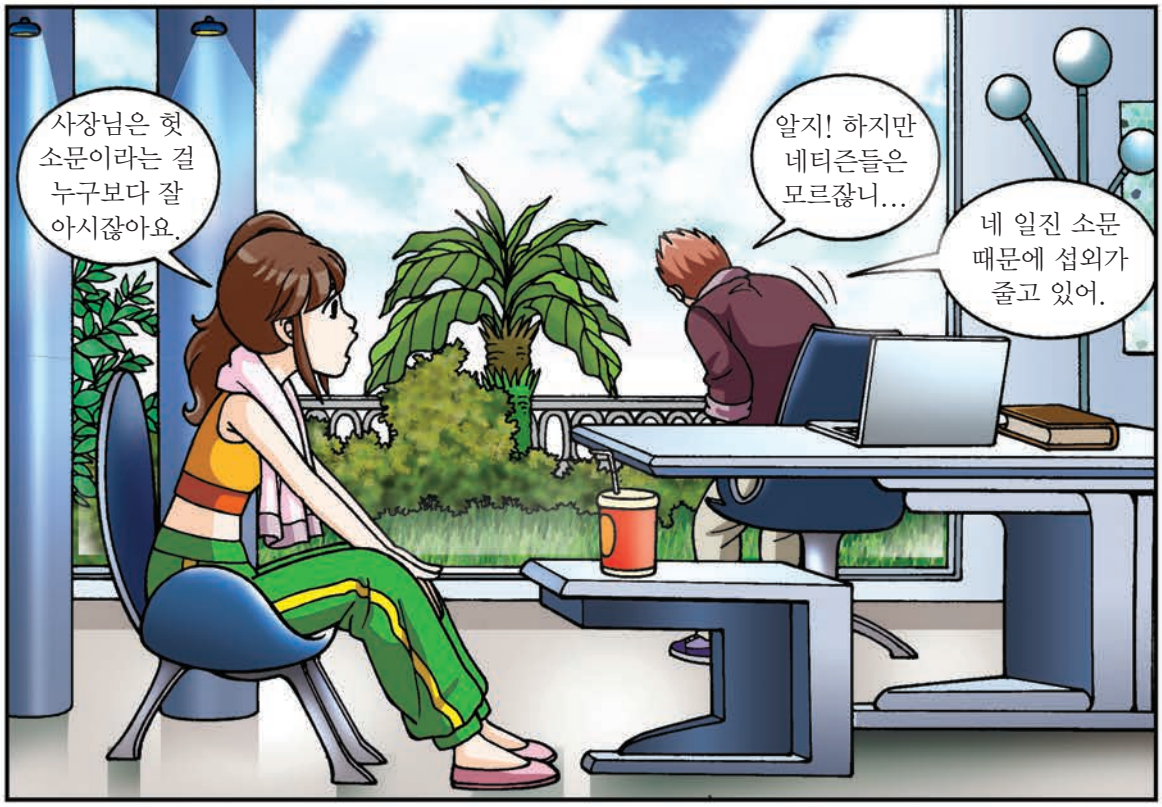

내 눈에는 네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됐거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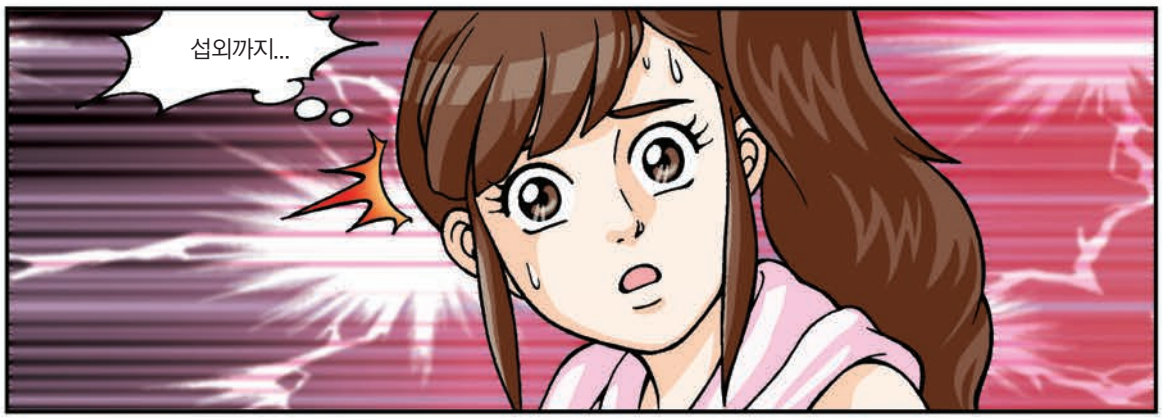

크크… 애들아 그러지 말고 과자라도 먹으면서 화해해.
과자
텅~
어머, 미안!
대신 과일이라도 깎아 줄게.
자, 잠깐만 냉장고에는 지금…
이렇게 큰 통의 과자를 혼자서.
어? 분명히 여기 과일이 잔뜩 있었는데…
미안해요.
바로미 저걸로 모자란 거 아냐? 난 네 얼굴만 봐도 배부른데…


M
오히려 소문에 점차 살이 더해져
내용이 악의적으로 변해갔다.
이후 신미모의 예상과 달리 일진설은
인터넷의 댓글들을 중심으로 널리 퍼졌고


네!
알겠습니다.
미모야,
한 템포
느려.


잠깐, 미모!
사장님 콜이다.
나머진
쉬어.
PRESIDENT'S OFFICE
사장님
부르셨어요?
어서 와, 미모.
당분간 널 빼고
3인조로 활동해야
겠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SOP신미모"
소문의 진상은?


사장님은 헛소문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알지! 하지만 네티즌들은 모르잖니...
네 일진 소문 때문에 섭외가 줄고 있어.


섭외까지...


이러다 SOP 멤버들 몽땅 밥줄이 끊기게 생겼다.


잠잠해질 때까지 당분간 조용히 지내.


억울하고 화도 나겠지만 어쩌겠니.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를 활활 나게 하는 것이 인터넷 이잖아.


헛소문에 대해선 회사에서도 공식 입장을 내보낼 테니 기다려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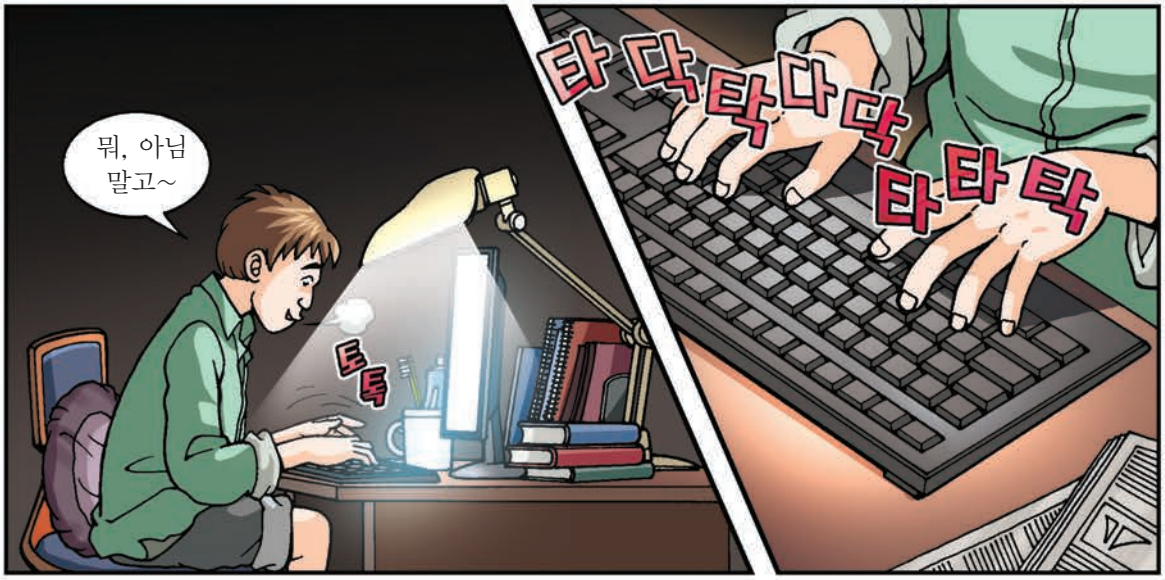



"신미모 소속사 공식입장"
신미모 일진설은 근거없는 낭설 일축
무책임한 악플 자제 당부
당부 좋아하네...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네.
얘는 얼굴도 두꺼워. 세상이 다 자기가 일진인 줄 알고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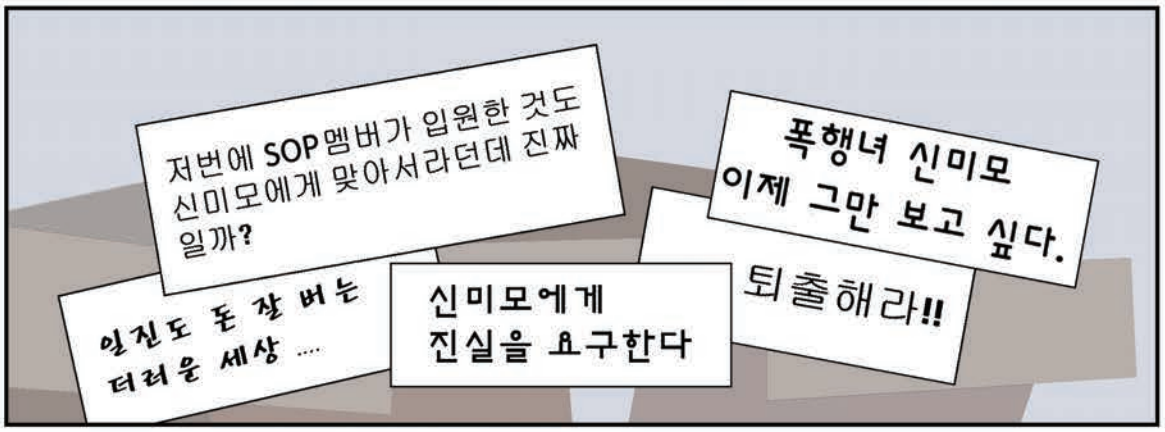

얼굴만 믿고 뻔뻔하게 청순한 척 하다니 재수 없어.
정의를 사랑하는 네티즌으로서 댓글로 응징하겠어!!
투두툭


아, 혹시 진짜 일진설이 루머이면 어떡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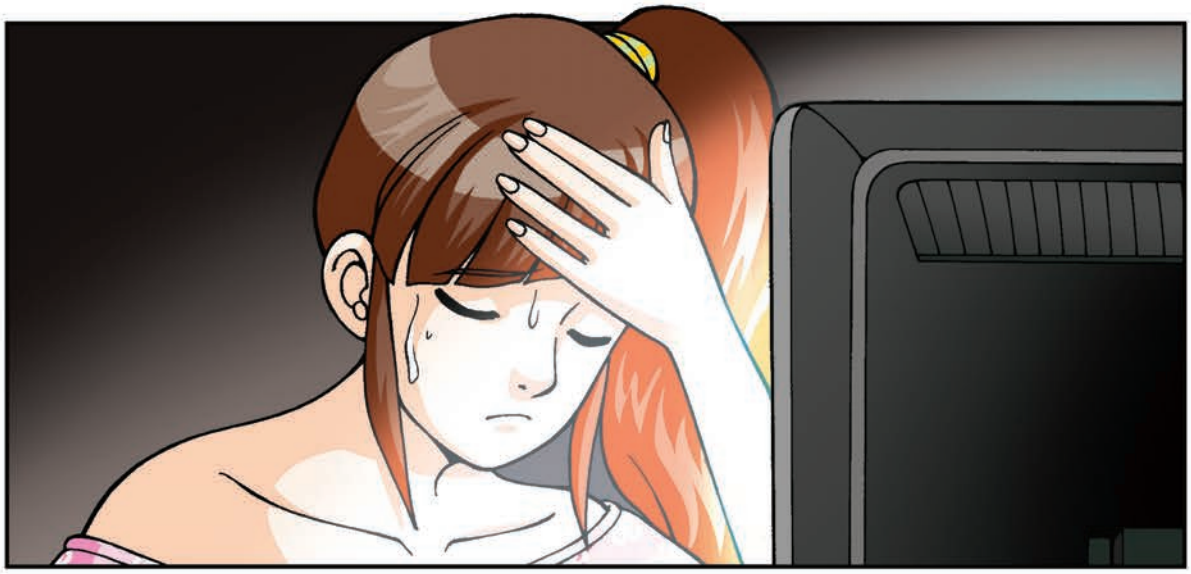

뭐, 아님 말고~
토톡
타 다닥탁다닥 타 타 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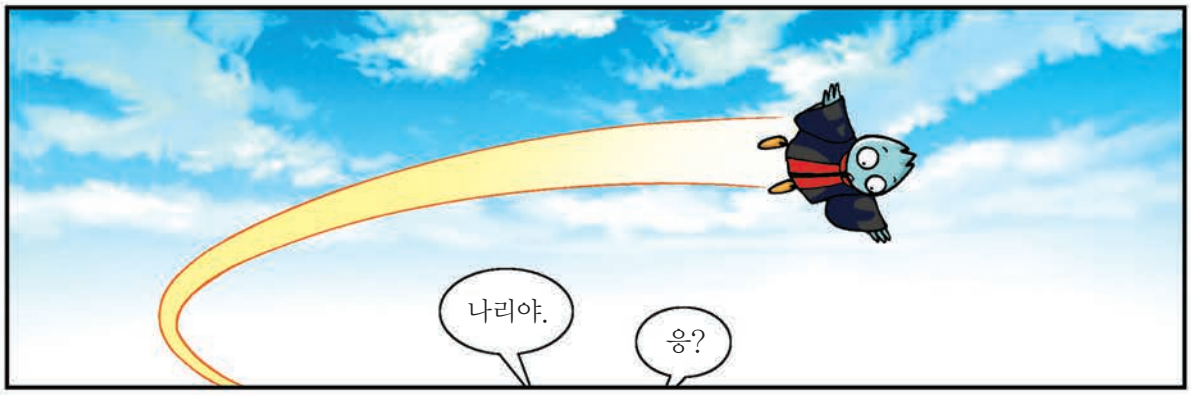

악플러들이 무리를 이루면 악플의 수위가 심해진다.
악한
국민여동생 요즘은 주먹질 안하시나? ㅉㅉㅉ
타 다 다 닥
신미모 학교 때 버릇 못 버리고 SOP 멤버들에게도 일진 짓 한다고.
착한 척 하더니 다 쇼였네...!
신미모의 본모습 사진 입수. 일진이라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다!! 신미모에게 진실을 요구한다.
서로 편파적인 정보와 의견을 주고받으며 점점 극단적으로 변해가는 것이다.
신미모 중학생 때부터 지나가기만 해도 담배 냄새가 폴폴 났었다고 함.
얼굴만 예쁘면 일진도 아이돌이 될 수 있나? ㅋㅋ XX 아름다운 세상이구만.
맹목적인 악플들에 의해 그 대상이 된 사람들의 영혼은 조금씩 죽어가고...


최악의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생긴다.
신미모 네가 때린 애들에게 석고대죄 해라.
신미모 XXX
신미모 얼굴만 봐도 짜증 난다.
토 토 톡


저번에 SOP멤버가 입원한 것도 신미모에게 맞아서라던데 진짜일까?
폭행녀 신미모 이제 그만 보고 싶다.
일진도 돈 잘 버는 더러운 세상 ....
신미모에게 진실을 요구한다
퇴출해라!!


그래서 악플러들을 손가락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나리야.
응?


미모 누나에 대한 악플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
그린마트
알아… 언니가 얼마나 괴로울지 상상도 안 돼.


괜찮다고 말은 하지만 매일 밤 스트레스로 예민한 상태야.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 같아.


악플은 피해 정도를 측정할 수 없고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충격도 다르기 때문에,
당사자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이 잘 알 수가 없어.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지옥 같은 아픔이 있을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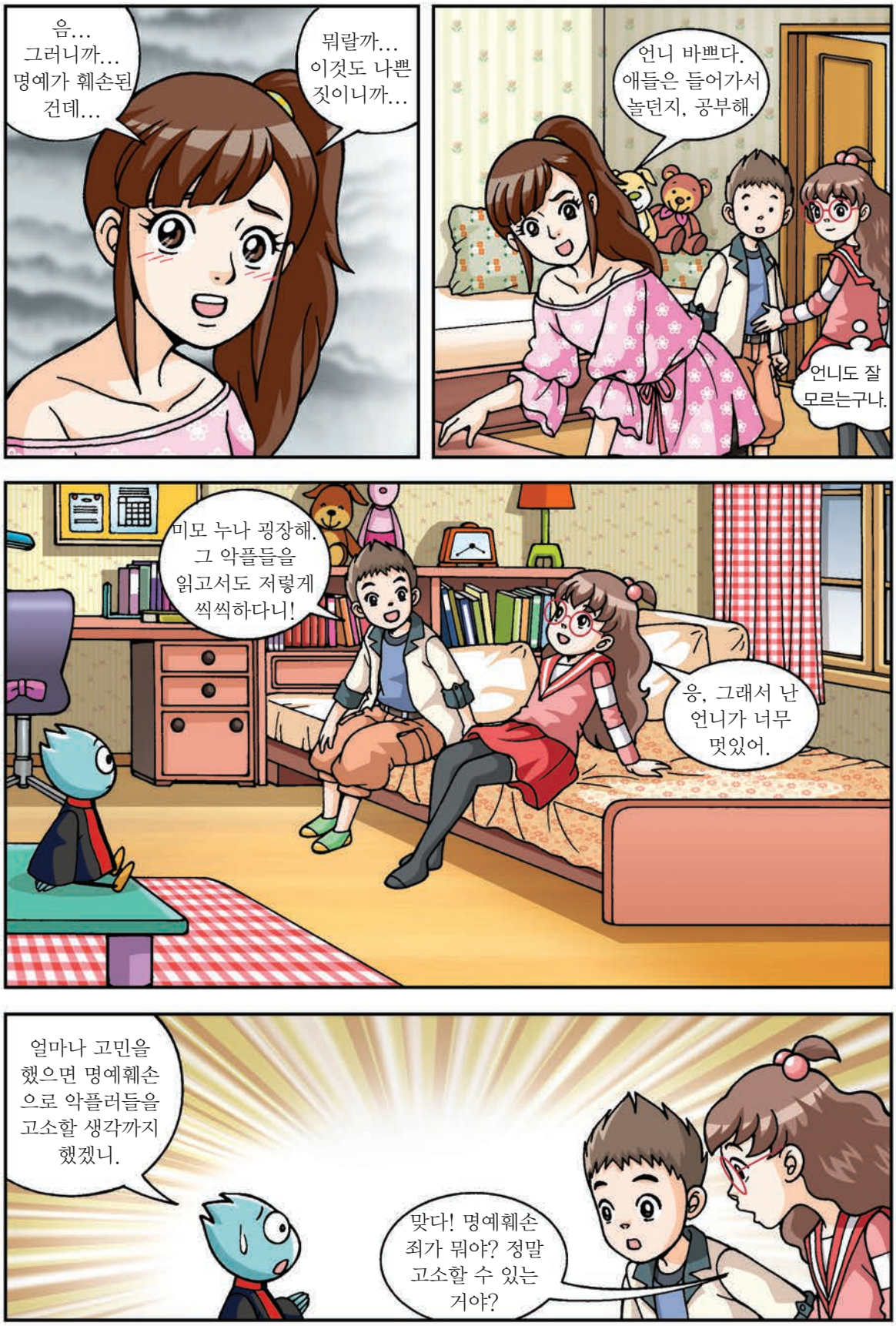

하긴 악플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연예인도 있었잖아.


서,
설마!!


안돼


미모 언니!
확
언니!
화장실 급해? 왜 그리 헐레 벌떡이야?
누나, 이게 다 뭐예요?
내 기사와 SNS에 달린 악플들을 프린트하고 있어.
지직 지직 지직
그건 뭣 하러…


이제까지 난 무조건 참는 게 착한 건 줄 알았어. 내 진심을 결국 다른 사람들이 알아줄 거라고 순진하게 믿고 있었지.
하지만 내가 잘못 생각했어. 더 이상은 나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말하고 맞서려고 해.
악플러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어.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가 뭐예요?
명예는 유명한 사람들에게 있는 거 아닌가? 참, 언니는 유명하지.
으이구! 명예훼손죄도 몰라? 그건…


음… 그러니까… 명예가 훼손된 건데…
뭐랄까… 이것도 나쁜 짓이니까…
언니 바쁘다. 애들은 들어가서 놀던지, 공부해.
언니도 잘 모르는구나.
미모 누나 굉장해. 그 악플들을 읽고서도 저렇게 씩씩하다니!
응, 그래서 난 언니가 너무 멋있어.
얼마나 고민을 했으면 명예훼손으로 악플러들을 고소할 생각까지 했겠니.
맞다! 명예훼손죄가 뭐야? 정말 고소할 수 있는 거야?


명예훼손죄를 알려면 우선 「명예」에 대해서 알아야겠지?
법에서 말하는 명예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 사람의 이름이나 평가를 말해.


모든 국민은 명예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인 「명예권」을 가지고 있어.
명예면 명예지, 명예권은 뭐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이지만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기본적인 중요한 권리를 말해.


하긴,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지.
그래! 나 사나이 한똘도 목숨보다 명예가 더 중요해.
그리고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
어머!
으이구! 틈틈이 애정 표현이구나.
명예훼손죄에 대해 안 궁금해?
아! 미안, 미안. 궁금해! 가르쳐 주세요.



〈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한다.

사실을 드러냈을 때	허위의 사실을 드러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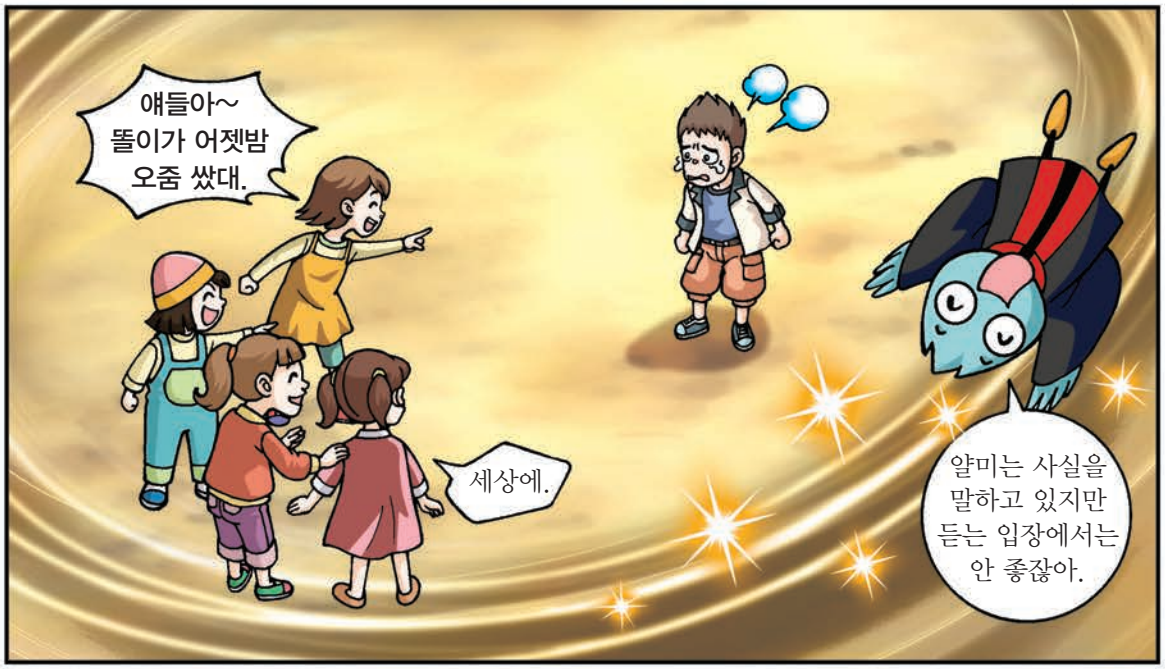
사실을 드러냈을 때	허위의 사실을 드러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뭐가?
사실을 말하는데 어째서 명예 훼손죄가 되는 거야?
음...비록 사실을 말했을지라도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처벌 받도록 되어 있지.
그래도 사실을 말했는데 처벌을 받는다는 건 이상해.
사실이라 해도 공공연하게 드러내지 말아야 할 것도 있잖아.
예를 하나 들어볼까?


얘들아~ 똘이가 어젯밤 오줌 쌌대.
세상에.
얄미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안 좋잖아.


하필 왜 저딴 걸 예로 들어?
난 오줌 싼 적 없다구!!
그래야 네 귀에 쏙 들어갈 테니까.


알겠어. 사실이라 해도 남의 약점이나 예민한 부분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도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사실」도 있잖아.


당사자의 기분을 거슬리지 않는 사실이라면 문제 될 것도 없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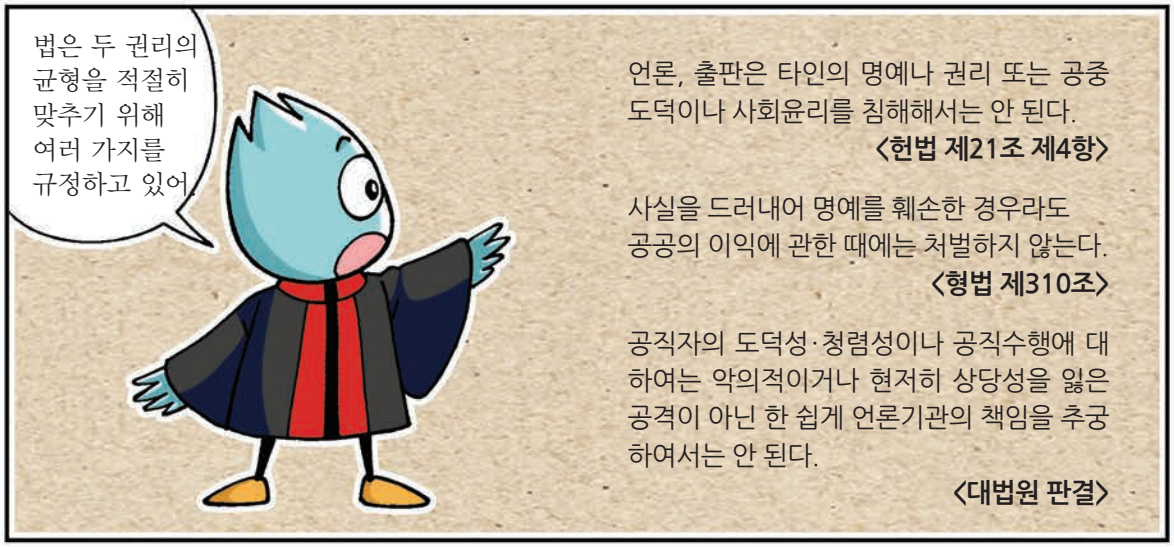

설령 좋은 뜻으로 말하는 사실이라 해도 본인이 싫어한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캬아! 나리는 생각이 참 깊구나. 역시 똘이에겐 좀 아깝다니깐.
뭐야?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어.
법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엄중히 보호하고 있지.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를 발전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소중한 권리거든.


그런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다 명예권을 해치기도 하고,
명예권을 보호하려다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일이 생기기도 해.


실제로 외국의 어떤 권력자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언론을 탄압하기도 했지.
독재자!
너희도 다 명예훼손죄!
부패한 정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고 명예권도 중요한데
어느 권리가 더 중요한 거야?


둘 다 우열을 가릴 수 없이 중요해!
단호


법은 두 권리의 균형을 적절히 맞추기 위해 여러 가지를 규정하고 있어.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 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헌법 제21조 제4항〉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형법 제310조〉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공직수행에 대하여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언론기관의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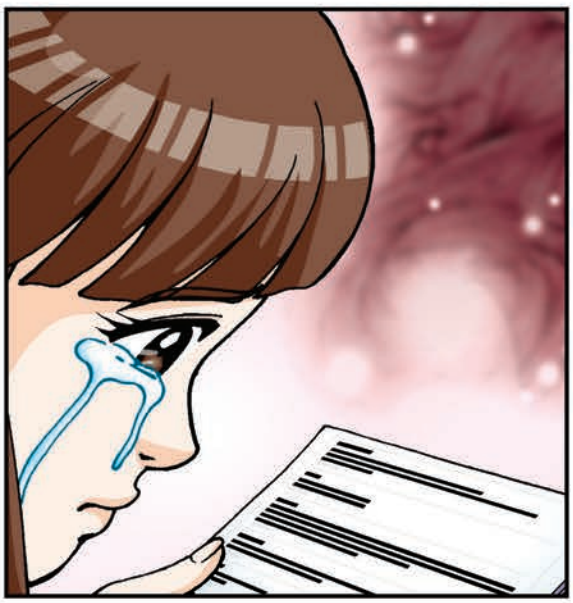

공익을 위해선 사실을 밝혀도 되는구나.
그렇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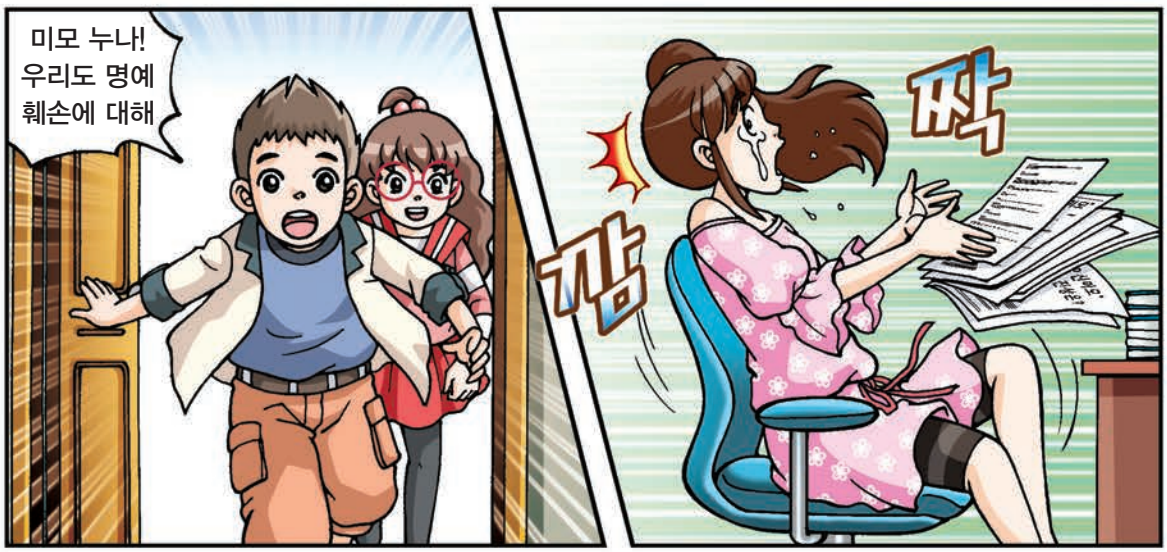

나도 앞으로 인터넷에 글을 쓸 땐 좀 더 신중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써야겠어.


나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진 않은지,
내 글을 읽는 당사자는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 봐야겠어.
응, 그리고 쓰려는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따져보고…


아이구~ 우리 꾸러기들. 기특해도 너무 기특해.
뽀뽀해 줄게♡
으악! 하지 마!!


미모 누나에게 우리가 도와줄 게 없는지 물어 보자.
그래야 겠어.




미모 누나! 우리도 명예 훼손에 대해
짝
깜


뭐야? 노크 좀 해라. 놀랬잖아!
눈물
오해하지 마. 이건 눈으로 나오는 콧물일 뿐이야.
알았어. 그렇다고 쳐.
아닌 척하지만 상처받지 않을 리 없지...
누나, 우리도 명예훼손죄에 대해 공부 했어요.
우리도 도와줄게, 언니.
됐어. 너희들 눈만 버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잖아요.
맞아, 언니 이거 어떻게 정리하면 돼?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도 같이 고소할 거야.
내용을 살펴보고 모욕죄에 해당하는 내용은 따로 빼둬.
엥? 모욕죄는 또 뭐지?
?
잘 들어.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단순한 추측이나 경멸하는 표현을 써서 상대방을 모욕하는 범죄야.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나도
끙...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둘 다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에 대한 범죄이긴 한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신미모는 일진이었고, 학생 때 허구한 날 아이들을 때렸다.
명예훼손
신미모는 죽일X 살릴X 나쁜X XXX XX XXX
모욕죄
욕설은 모욕죄로 죄명을 달리할 수도 있구나.
우와~ 이거 읽는 것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려. 거짓말에 욕설에...
조롱하고 빈정대고 당장 이것들을 찾아 혼내고 싶어!
흥분하지 마. 그러다 또 다른 폭행죄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법이 있는 거잖아.
이것 좀 봐요. 누나 기사마다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악플인가요?


악한
청순이 무슨 의미인지 아나?
악한
국민여동생 주먹질은 요즘 안하시나?
악한
얼굴만 예쁘면 일진도 아이돌이 될 수 있나?
이것도 묻는 척 하면서 빈정거리는 악플이야.


이런 댓글도 나를 고통스럽게 하기는 마찬가지야.
그럼 악플 맞네요.


신미모는 수십 명의 악플러들을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했다.
경찰서


그 후
사이버 수사대
경찰 아저씨 한 번만 봐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런 거 기록에 남는 거죠?
글쎄…
크흐흑 난 망했다.
어떻게 합의는 안 될까요? 우리 애가 수험생이거든요.
저기… 저 이제 대학 못 가는 건가요?
그러게, 벌 받을 짓을 왜 합니까?
난 그냥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한 건데…
휠씩
난 진짜 일진인 줄 알고 했는데, 고소당할 줄은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하길래 한 것이…
난 가벼운 마음으로 재미 삼아 한 건데…


조용!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풀려고 또는 재미로 헛소문을 믿고
생각없이 한 사람을 단체로 괴롭힌 것 입니다.
악플도 폭력입니다. 악플에 시달리다가 희생된 분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죄가 될지 몰라서 저질렀다고 하는 말은 변명이 안 돼요.
경찰 아저씨, 저는 어떻게 되나요? 감옥가는 거예요?
얄미야.
다행히 신미모 씨가 악플의 정도가 낮은 분들은 특별히 봉사 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모두 돌아가서 진심을 담아 반성문을 써 오세요. 그러면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크흑! 십년감수 했어요.
신미모. 얼굴처럼 마음도 예쁘네...
전, 반성문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이름이...
오자판 입니다.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잘못도 없는데 반성문을 왜 씁니까?
아이디가 「악한」이시죠?
네. 전 제가 쓴 댓글이 악플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궁금증이 들어 쓴 글인데.
대중의 관심으로 먹고 사는 연예인이 그 정도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죠.
좋아요! 법대로 진행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네.
내 글이 악플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판단하겠죠!


와, 방청석에 신미모가 와 있어.
진짜 예쁘다.
크~ 사인 좀 받아야 겠다.
인증샷~ 인증샷~
거기요! 신성한 법정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찰칵
찰칵
정숙해 주시고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딸 한테 보여 줘야지~
피고인석에 있는 저 사람이 아이디 「악한」
재판을 자원할 정도로 자신이 있다는 건가?


흠... 나도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봤다, 이거야.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따져야 할 것이 있지.
• 구체적으로 사실 혹은 거짓의 내용을 드러내었는가? (사실의 적시)
•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가? (공연성)
•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가? (명예훼손 의도)
내 댓글은 세 가지 다 해당되지 않아.
이 재판은 반드시 내가 이긴다!!
판사님 입장하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드디어...


피고인 오자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악한」이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신미모에 대한 기사란에
「청순이 무슨 의미인지 아나?」「국민 여동생 주먹질은 요즘 안 하시나?」 등등
검사
댓글로 공공연하게 피해자 신미모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변호인
피고인이 신미모에 대한 댓글을 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떠도는 소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일 뿐입니다.


또 그가 쓴 글은 이미 방송이나 신문 등에서 다루어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으므로 공연성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당연하지.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재미로 충동적 댓글을 달았을 뿐.
신미모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사실의 적시」란 직접적 표현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의 경우도
내용이 암시가 된다면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엥? 이게 뭐죠?
다음으로 이미 일부에 퍼진 소문이라도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포털사이트 기사란에
댓글을 게재하는 것은 공연성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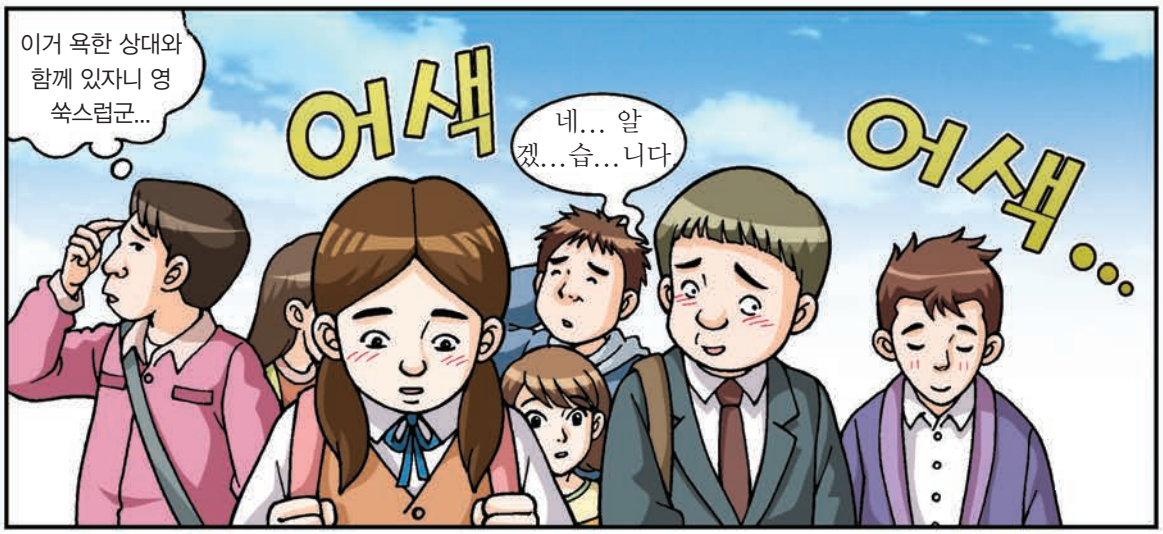

내가 예상했던 결과와 너무 다르잖아...
그리고 피고인은 명예훼손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댓글의 내용과 성질, 표현방법 시기와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보았을 때,
남자친구짱
신미모 방송가에서도 인성 거지라고 유명해요 ㅉㅉㅉ
걸핏하면 SOP멤버도 때린대요 아는 오빠가 진짜 봤다고 했어요
악한
소문이 아니라 진짜 아닌가? 그래서 침묵을 지키는게 아닐까?
진실의 수호자
내 친구의 친구가 신미모 봤다는데 성격 진짜 가식적이래
매니저 완전 불쌍ㅠㅠ
또 피고인이 떠도는 소문만 듣고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댓글을 단 이상 명예훼손의 고의와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 집니다.
아니면 말고...
헉!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합니다.


으윽... 100만 원, 뒤, 뒷목이...
언니, 저 사람 죄가 인정됐어. 축하해.
죄가 없는 것처럼 뻔뻔하게 굴더니...
젠장! 그냥 반성문 쓰고 합의할 걸..., 크으... 내가 고집을 부린 건가...
하지만 말도 안 돼! 그 정도가 무슨 악플이냐고?
이미 버스는 떠났단다.
오자판을 비롯해 악플의 정도가 심해 재판을 받았던 악플러들은 모두 벌금형을 받았고...
신미모 악플러들 '무더기 철퇴'
악플러 16명
"벌금 50만원~100만원"


신미모의 일진설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신미모 일진설은 100% 루머로 밝혀져...
네티켓을 바로 세우기 운동
악플러와의 전쟁
하늘노인복지센터
어서들 오세요.
이렇게 외진 곳에 일을 도우러 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꽤 왔네.


고소를 취소하려면 봉사활동을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오긴 왔는데...
이쪽으로 오세요.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나 참...
신미모 씨는 아침 일찍 오셔서 먼저 일하고 계세요.
네? 신미모 씨가 여기에 있어요?!
그럼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양로원에 자주 봉사하러 오셨는데 유명해지고 나서도 변함이 없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어? 지, 진짜 신미모...!
봉사한다는 게 뻥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할 일이 참 많아요. 빨래, 청소, 불편하신 어른 돌보기, 집수리 등등 취향대로 고르셔서 하시면 된답니다.


이거 욕한 상대와 함께 있자니 영 쑥스럽군...
어색
네... 알겠...습...니다.
어색...


헉! 바퀴벌레 커플?!
어?! 얄미...
네가 왜 여기 있어?


그… 그러는 너희들은…
미모 누나 따라 자원봉사 왔지.
너도 미모 언니한테 악플 달았니?
엥?! 그때 좀 이상하다 했어.
어떻게 나리 친척 언니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괜찮아 뚤아.
내가 싫을 수도 있는 거지.
얄미라고 했지? 혹시 내게 할 말이 있으면 내 얼굴 보고 해 줘.
내게 모자란 점이 있으면 보태고, 오해가 있으면 풀어 줄게.
저… 미모언니 할 말이 있긴 한데…


실제로 보니 완전 예뻐요! 진짜 미모가 갑이시군요. 대박!!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말이 있잖아.
네?
신미모 씨 반성문을 쓰긴 했지만 직접 사과 드리는 것이 예의인 것 같아서요.
헛소문을 무책임하게 옮겨 큰 상처를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부끄럽네요.
저도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후광!!
천사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신미모 팬클럽에 들어간다.
난 이제 죽을 때까지 신미모 팬입니다.
히야, 대단해! 미모 양이 단숨에 악플러들을 팬으로 만들었어.
그 아이디 「악한」은 재판 때 끝까지 억울해 하는 눈치던데…
치… 언니를 실제로 알게 되면 다 반할걸.
이제 언니에 대해 악플을 쓰는 사람은 없겠지?
맞아, 「악한」은 억울하다고 블로그에 재판 후기까지 올렸어.
이 정도가 무슨 악플임? 안그래?
으휴… 진짜 못 말리겠네.

그런데 이번엔 「악한」에게 악플들이 줄줄이 달려 댓글로 서로 싸우다.

└ 너 신미모 관심받으려고 한 짓인거 다 알아 XXX 야~~

└ 물음표 달았으니 악플이 아니라고? 머리는 폼으로 달았냐?

└ 밥은 먹고 다니냐? ㅉㅉㅉ

└ 개념이 무슨 뜻인지는 아냐?

└ 요즘에도 악플쓰고 다니냐? 이 악플러 XX야!

「악한」 자신도 상대 악플러들을 사이버 명예 훼손죄로 고소하게 돼.

이런 XXXX들을 봤나!!

그래서 「악한」 지금 또 재판 중이야.

이런 걸 인생의 아이러니라고 하는 건가…

자신도 미모 양과 비슷한 입장이 되고 나서야 쪼끔 자기 잘못을 깨닫는 눈치야.

진짜 자존심인지 고집인지 무지 세네.

그래도 그 사람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에휴,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 속도 등이 세계 1위라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진정한 인터넷 강국이 되려면 이에 걸맞은 네티켓, 즉 인터넷 예절에 대한 윤리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걱정 마. 예절 하면 이 한똘님이 있잖아.
그랬었던가?
한똘! 신나리! 언제까지 놀고만 있을 거니? 낙엽 쓸기로 했잖아.
네!
여기는 우리한테 맡기고 미모누나는 이제 좀 쉬세요.
저... 똘아, 마당 쓰는 일 나도 도우면 안 될까?
엥?
괜찮아! 얄미, 넌 들어가서 일해.
낙엽은 우리 둘이 쓸게.
캐!
에구. 저 닭살...

제4화 심화학습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일까요?

4화의 '악플 좀 달면 안되나?'의 이야기는 실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고 있어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유명 연예인의 기사에 악성 댓글을 쓴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은 사건이랍니다. 유명 연예인을 비난할 목적으로 아무런 근거없이 악의적으로 쓴 댓글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라고 할지라도 명예를 훼손하고 가슴에 큰 상처로 남겠지요. 연예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사이버 공간에서 나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로부터 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답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 이런 일도 있어요!!– 일부러 욕먹는 사람들...

인터넷에 일부러 악플을 달고 싶도록 글을 올린 뒤 댓글을 단 사람을 고소해 합의금을 뜯어내는 이른바 악플을 유도하는 범죄도 있다고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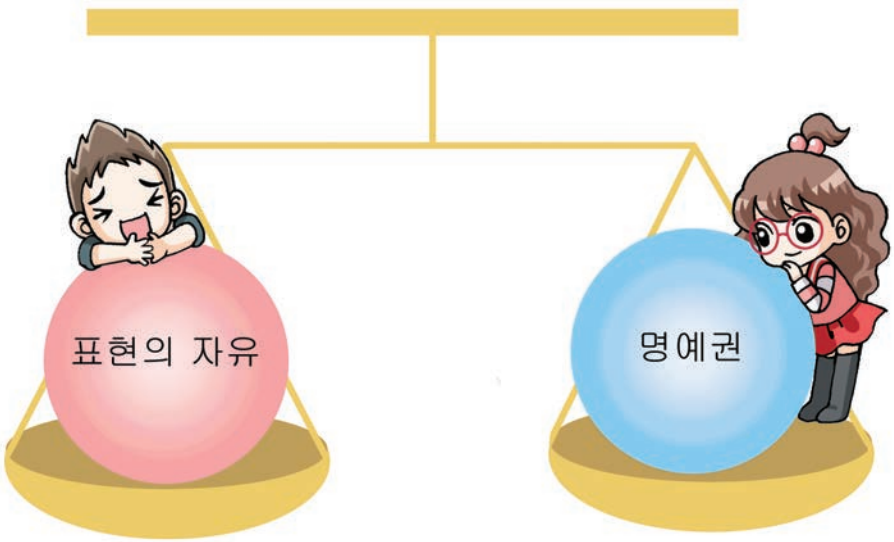
악플 유도의 덫에 걸리는 사람은 대부분 나이가 어린 여러분이나 청소년인 형, 누나들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어린 친구들은 변호사의 도움도 받지도 못한 채 난생 처음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매우 당황스럽겠죠? 또 부모님들께서는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이 자식의 미래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봐 쉽게 합의를 해주기 때문에 합의금을 받을 성공률도 높다고 합니다.

인터넷 악플! 절대 쓰면 안 되겠죠?

■ 표현의 자유 VS 명예보호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권리 중 하나로서 우리들이 모두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나름대로 보장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말한 도덕적인 책임의 문제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국민의 권리로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7조).", "언론 ·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언론 ·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 제21조 제4항)."



표현의 자유, 명예권 두 가지 모두 헌법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두 가지 권리 모두 여러분들에게 아주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매우 소중한 권리랍니다. 내 표현의 자유도 지키고 다른 사람의 명예도 지키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글 | 서울교육대학교 법과인권교육연구소
그림 | 극동만화연구소

1판 1쇄 | 2017년 02월 21일
개정판 1쇄 | 2024년 10월 ??일

펴낸 곳 | **사법발전재단**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번지 (06590)
02)3480-1309
대법원 홈페이지 | http://www.scourt.go.kr/ (사법발전재단)
디자인·인쇄 | 홍디자인 02)464-5167
연구·개발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02)3480-1262

정가 9,000원

ISBN ???
??? (세트)

* 이 책의 내용을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이 책은 대법원 홈페이지의 어린이마당 법교육교재 코너
(http://www.scourt.go.kr/kids/edu/edubook/index.html)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